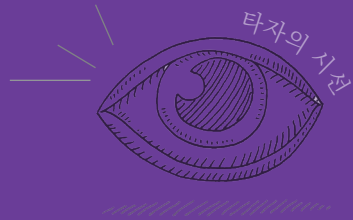


청소년 마을배움 Storytelling Book

십만원 프로젝트 이야기편 2

**내맘대로  
십만원을  
썼습니다**



우연한 만남, 뜻밖의 변화

장희숙 | 민들레 편집장

### 질문으로 시작하다

오랫동안 민간의 힘으로 꾸려오던 청소년문화공동체 ‘품’이, 2년 전 서울시와 협약해 서울시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숨’이라는 새 날개를 달았다. 그들이 어느 곳을 향해 날아갈지 궁금했고, 나는 그 방향을 주시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역의 교육관계자들이 모여 있는 단체 채팅방에 올라온 ‘십만원프로젝트’ 홍보 포스터를 보았다. 무언가를 시도해보려는 청소년들에게 현금 십 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 프로젝트의 요지였다.

동아리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흔하지만 지원금을 프로젝트 이름에 직접 내세우는 건 좀 독특한 접근이라 생각하던 차에, 포스터 디자인을 보고 조금 놀랐다. 근래 유행하는 B급 감성을 한껏 살린 포스터였다. 우주의 기운이 느껴지는 밤하늘에서 돈이 쏟아지고, 하늘을 쳐다보며 두 팔을 벌린 청소년의 눈이 달려 모양으로 변해 있었던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대략 충격적인 건 확실했다. 언뜻 카지노 같은 것이 연상되어 걱정스러웠다.(또 다른 청소년단체에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돈을 준다는 홍보를 하고 있던 시기라서 더 민감하게 굴었던 듯하다.)

적극적으로 마을배움터에 의견을 전할 수도 있었을 텐데, 불편한 마음 한쪽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해보려는 분들 기운을 빼선 안 되지, 내부적으로 뜻이 있고 사정이 있겠지’ 싶어서 생각을 접어버렸다. 망설임이 쌓이다 시간은 그대로 흘러 버렸다.

### 십대들이 예전 같지 않다?

포스터의 충격이 가신 것은 일 년 후 십만원 프로젝트의 첫 번째 자료집 <십만원을 내맘대로 썼습니다>를 읽고 나서다. 단순한 결과 자료집이 아니라 처음 기획했던 프로젝트의 목적과 방향, 이전과는 달라진 청소년들의 모습,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고자 머리를 맞댄 활동가들의 고민이 세밀하게 담겨 있었다. (나는 포스터 디자인을 그냥 넘겨버렸지만) 홍보 문구에 ‘흑우(호구의 비속어)’를 사용했다가 어떤 이의 문제제기를 받은 이야기까지 솔직하게 담겨 있었다.

프로젝트를 기획하며 마을배움터 활동가들의 큰 고민은 ‘청소년들이 이전과 달라졌다’는 것이었다. 예전의 청소년들은 판을 깔아주고 기회를 독려하면 눈을 빛내며 “뭘든 해볼래요!” 했는데, 근래에 만난 청소년들은 현실에 순응하고, 도전하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시도해보려는 에너지가 없다는 것이다. 사회학자 엄기호의 표현에 따르면 이른바 ‘널브러진 아이들’이다. 큰 사고를 치거나 강하게 저항하지 않

지만 뭔가 '무기력하고' '나른하고' '생기가 없다'고, 최근 학교나 여러 교육현장에서 청소년들을 만나는 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다.

정말 그럴까. 왜 그럴까. 십대들과 함께하려는 이들이라면 쉬이 진단하고 결론내리기 전에 이 현상에 천착해 세밀하고 끈질기게 들여다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문제의 매듭이 어디 있는지, 그들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구체적인 길이 열릴 테니까.

### 자신을 내버려 둔 인생은 없었다

십만원프로젝트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었던 계기는 지난 연말, 마을배움터 축제에 초대받으면서였다. 일 년 동안의 '십만원프로젝트' 결과를 나누는 자리였다. 온라인으로 열린 발표회에 열여섯 팀의 이야기를 세 시간 동안 들었다. 잘 모르는 내가 감히 말을 보탤 수는 없었고, 그들의 활동을 귀 기울여 들어주자 하고 참석했는데 이야기의 중반이 지나가며 마음이 울컥하고 코끝이 찡해지는 순간이 있었다. 우울증을 앓는 청소년이 자신의 일상을 담아 만든 영상을 보던 순간이었다. 너무도 솔직한 그 기록물에서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픈' 그의 강렬한 열망이 느껴졌다. 인권을 연구하고, 그림책을 만들고, 베이킹을 하고, 단편영화를 제작하고, 뮤직비디오를 찍고, 동물권을 위한 수제간식을 만든 십대들의 기록을 보며 나는 알았다. 어른들의 생각과 달리, 무력하게 자신의 삶을 아무렇게나 내버려두려는 십대는 없다는 걸. 다만 그 의지를 표현할 기회조차 거세한 것은 아닌가, 그 가느다란 희망을 보지 못하고선 '요즘 애들 다 그래' 하고 속단한 것은 아닌가, 자꾸만 생각을 되짚었다.

대부분 고등학생이라 입시를 준비하는 틈틈이 프로젝트를 이어온 그들의 처지도 안타까웠다. 그 정도의 활동을, 부모 몰래 하는 아이들도 꽤 있었기 때문이다. 자고로 대한민국에서 고등학생이란 공부 말고는, 그 어떤 것도 허락되지 않는 존재다. 십대들에게 '꿈을 가져라' '빨리 진로를 찾아라' 다그치면서도 이 작은 시도가 무엇보다 좋은 진로 찾기라는 걸 모르는 어른들에겐 그저 '쓸데없는 짓'으로 비칠 것이다.

주제는 다 달랐지만 흥미롭게도 이 프로젝트는 공통적으로 '내가 누군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고민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었다.

### 우연한 만남을 기다리며

요즘 청소년들이 '생기가 없다'고 푸념하듯 그들을 탓하는 어른들에게 묻는다. 정말 그런가. 그렇다면 그것은 과연, 청소년들의 책임인가. 십대들이 생각보다 훨씬 심한 억압 속에서, 훨씬 가진 것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라는 걸 알아차린 것도 서글픈 일이었다. 대한민국 십대들에겐 시간도 없다, 돈도 없다, 권리도 없다. 그들이 갖고 있는 건 딱 한 가지, 학생의 본분으로서 성실하게 공부해야 할 '의무'뿐이었다.

수행해야 할 의무로 가득한 일과 속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가를 십만원프로젝트를 보며 알아차렸다. 십만원. 누군가에게 메이커 운동화 한 켤레도 살 수 없는, 적은 돈일 것이다. 그러나 출구를 찾아 헤매던 누군가에게 숨통을 틔 해방구이자, 널브러진 자신을 일으키는 중요한 자산이 될 수도 있다. 혹여 처음부터 십만원이라는 '돈'에 혹해 이곳을 찾아왔을지라도, 그 선의의 유혹은 이들을 새로운 세계로 이끌었다. 목적이 흐려지지 않도록 청소년들 곁에서 돈보다 귀한 것들을 지원하며 애를 쓴 마을배움터 활동가들 덕분일 것이다.

마을배움터 활동가들은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며 십대들에게 실패할 권리, 시도할 권리, 누군가에게 응원받을 권리를 주고 싶다고 했다. 거기에 욕심을 얹어본다. 이 작은 경험을 통해 인생의 모든 경험은 과정이라는 것, 그러므로 어떠한 결과라도 '실패한 인생이란 없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한 냉정한 현실 속에서도 더 많은 청소년들이 우연한 만남과 뜻밖의 변화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마을배움터가 오래도록 그 곁에 있어주었으면 좋겠다.

## 이야기 흐름



## 타자의 시선 • 004

우연한 만남, 뜻밖의 변화 | 장희숙

## STORY 1. 십만원 프로젝트에 담고 싶은 것 • 011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싶었기에 | 고민정

## STORY 2. 십만원 프로젝트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 017

## STORY 3. 십만원 프로젝트 한눈에 보기 • 035

## STORY 4. 십만원 프로젝트의 '사이' • 043

나를 응원해주는 어른을 만난다는 것 [모모학당] 047

작은 걸음이 큰 걸음이 될 때 [중간공유회] 059

십대들이 판을 열다 십開판 [마무리 축제] 067

## STORY 5. 보이지 않는 연결자 짝공의 시선 • 091

짝공 고민정의 시선 094

짝공 문성희의 시선 106

짝공 김준혁의 시선 115

짝공 이상현의 시선 120

짝공 정규민의 시선 127

2020  
십만원프로젝트

## 부록\_ 십만원 주인공들의 이야기 보따리 • 135

페이드아웃 136

시간을 담는 사진 144

갱얼쥐방범대 150

간지작살 177

그림그림 187

감성포켓 193

나만의 베이킹 205

내가 가는 길이 정답 211

COSMOS 213

내가 찾던 힐링 218

우주조류 224

내 안에 우리동네 있다 228

인파많파 234

Earth Project 237

텔레토비 242



## STORY 1.

십만원 프로젝트에 담고 싶은 것

##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싶었기에

고민정

서울시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숨' 활동가

### 왜 십만원이에요?

분명 '무언가 저지르고 싶다', '변화하고 싶다', '새로운 저  
넘어 무언가를 만나보고 싶다.' 그 마음이 있음에도 선뜻 움  
직이지 못하는 청소년을 볼 때 마음이 움찔움찔거린다. 그리  
고 대부분의 청소년이 그러하다. 그 마음의 씨앗은 '나답게'  
살고 싶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본능과도 같은 것이라  
생각한다. 그 씨앗을 어떻게 피워나게 할 수 있을까? 어떤 조  
건과 환경이 필요할까? 세상을 바꿀 순 없어도 작은 그 '틈'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했다. 아마 이 고민은 앞으로도  
끈질기고 섬세하게 계속해서 묻고 또 물으며 시도해봐야 할  
것이다.

십만원 프로젝트의 시작은 그 질문을 따라 시도해보고 있는 움직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 '선뜻' 움직이게 되는 그 틈은 어디서 올까? 그 틈을 만들어 보기 위해 '십만원'을 내걸었다고 생각한다. 너무 작지도 크지도 않은 이 십만원이 어떤 친구에게 든든하게, 확실하게, 혹은 만만하게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마음을 콕콕 찌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무언가 '시도'를 해보고 싶은 마음은 너무 어렵지도 너무 쉽지도 않을 때, 해봄직한 그 틈이 보일 때 생겨나니까.

여전히 청소년에게 이런 조건 없는 응원과 환대, 만만하게 누구나 시도해볼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충분하지 않다. 평가와 경쟁 그리고 의무만이 가득한 일상이 만연한 건 물론이고 당연한 것이 되어있다. 그렇게 차가운 현실이 갑자기 변하진 않겠지만 십만원 프로젝트가 스스로 삶을 살아가는 나만의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는 작은 사건이 되길 바란다.

그렇게 올해도 만만하게 혹은 든든하게 작은 사건을 만들어보고 싶은 15팀이 모였다.

### 그렇게 거기에 있어주는 존재

모두가 그랬듯 20년도는 처음 마주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 혼란스러운 시간이 길었다. '거리두기'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다. 만나지 못한다는 건 아이들과 아무것도 나누지 못한다는 의미로 다가왔었다. 비대면, 대면의 이야기가 나올 때도 처음엔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무엇을 관찰할 수 있을지,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진정한 성 없는 '거짓'인 것만 같아 거부감이

답고 싶은 것

들기도 했다. 하지만 마냥 기다릴 순 없었기에 zoom을 켜기 시작했다. 자주 zoom을 활용하다 보니 비대면으로도 어떻게 하면 더 서로에게 가닿을 수 있을지 다양한 방식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재밌어졌다.

그런데 자꾸만 의심이 들었다. '작공으로서, 청소년을 만나는 활동가로서 나의 역할을 정말 잘 하고 있는 걸까?' 5명의 작공들은 저마다의 고민이 깊어졌다. 십만원 프로젝트가 끝난 지금, 그 의심에게 가볍게 대답해 본다. 그것은 작공인 우리들의 욕망이었다고. 나쁜 욕망은 아니지만 무언가를 주고 싶고, 성장시키고 싶은 작공 입장의 욕망이었다고.

아이들의 마무리 축제와 리뷰에서 '만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었음을 말해주었다. 거창한 무언가보다 누군가 조건 없이 나를 기다려준다는 것,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공간과 사람이 있다는 것. 그렇게, 있어주는 존재 자체가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했다.

5명의 작공 모두 의심의 여지없이 그 마음 하나만큼은 충만했고, 그 마음을 저마다의 방식으로 아이들과 나누고자 다양하게 시도했다. 엄청난 기획과 기술은 없지만, 그렇게 진심을 전할 줄 아는 5명의 작공들의 이야기가 코로나였기에 더 가치롭게 느껴진다. 그래서 이번 책에 부족할지라도 5명의 작공 이야기를 담았다.

### 사라지지 않은 아이들의 이야기

코로나로 인해 학교가 문을 닫고, 아이들이 갈 곳이 사라지면서 청소년은 우울하고 불안하다는 이야기가 가득해졌었다. “정말 청소년은 우울하고 불안한가?” 질문을 하게 되었다. 청소년에 대한 시선이 그렇게 굳어지는 것이 싫어 괜스레 삐딱해지기도 했다. 사회적 안전망이 되어줘야 할 곳들이 문을 닫으면서 교육과 돌봄의 불평등이 커지긴 했지만 분명 아이들은 불안하고 우울하기만 하진 않았다. 등교를 하는가 안 하는가, 수능을 연기 하는가 안 하는가, 온라인 클래스인가 아닌가를 넘어 불안하다로 통 쳐져서 달나라로 날아가 있는 다양한 청소년의 이야기가 드러나길 바랐다.

코로나로 인해 여백이 생겨서, 멈출 수 있어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서 몰랐던 자기 모습을 보기도 하고, 스스로 해보고 싶었던 시도를 하기도 하고, 내 안에 있던 다양한 자신을 확인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번 책에서는 처음 마주한 재난 속에서 널부러지기도, 계획이 무너지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무언가를 시도하려 했던 15팀의 청소년의 이야기를 그대로 담았다. 아이들 이야기 속에서 서툴더라도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싶은’ 열망이 곳곳에서 절절히 느껴진다. 성적도, 진로도, 세상도 모른 게 불확실하지만 그럼에도 오늘을 살고자 하는 청소년, 그들의 이야기를 신나게 발견해보는 시간이길 바라본다.

2020  
심민원 프로젝트



## STORY 2.

십만원 프로젝트,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페이드아웃  
#시간을 담는 사진  
#갱얼쥐 방법대  
#간지작살  
#그림그림  
#감성포켓  
#나만의 베이킹  
#내가 가는 길이 정답  
#COSMOS  
#내가 찾던 힐링  
#우주조류  
#내 안에 우리동네 있다  
#인파망파  
#Earth Project  
#텔레토비

STORY 2.

십만원 프로젝트,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1/15

## 페이드 아웃

“ 당연히 영화도 망하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오히려 망함으로써  
 나는 극복을 배웠고 열정을 얻었다.  
 나는 10만원으로 10만원 이상의  
 값진 경험을 얻은 것이다.

정채영  
함주현

## 시도와 실험

- '20살이 되기 전의 감정'을 주제로 설문 조사 진행
-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나리오 구성, 배우 및 장소 섭외, 소품, 콘티, 촬영과 편집까지 스스로 진행하며 단편영화제작



## 뭐 해?

누군가에게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  
 진심으로 우리가  
 원하는 영화 만들기

## 성장과 발견

- 실패여도 행복할 수 있는 이유를 알게된 채영
- 시도하고 도전했을 때 새로운 방향성을 찾았다는 걸 알게된 주현

자세히  
보기

페이드아웃팀 짝꿍의 시선 p. 101  
 페이드아웃팀의 실험계획서와 리뷰 p.136

“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프로젝트는 마무리됐고  
 나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사람을 만나는  
 즐거움과 사진을 찍는 내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2/15

시간을 담는  
사진

## 뭐 해?

10대를 조금  
 의미있고,  
 재미있게  
 보내기 위해  
 도전

이승철



## 성장과 발견

친구와 함께 사진  
 찍으며 일상을  
 나누는 시간 보내기  
  
 십만원 친구들에게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떨리지만 당당하게  
 발표해 본 경험 쌓기

## 시도와 실험

평소 가보지 못한 곳에 출사를 나가 사진찍기  
 사진에 그날의 분위기와 감정을 담아 찍어보기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한 전시회 진행해보기  
 십만원프로젝트 친구들과 협업 활동해보기

자세히  
보기

시간을 담는 사진팀 짝꿍의 시선 p. 113  
 시간을 담는 사진팀의 실험계획서와 리뷰 p.144

3/15

## 갱얼쥐 방법대

“ 십만원 프로젝트는 그저 청소년들이  
십만원으로 하고 싶던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  
이미 완성된 존재들이 건강한  
방향을 찾아떠나 서로를 응원하고  
위로해주는 꿈의  
첫 내딛음이라고 생각한다.

뭐해?

유 기 견 과  
길고양이들에  
게 좀 더 나은  
삶을 선물하  
고,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  
과 시선을 바  
꿔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사회  
를 만들어 보기

성장과 발견

무언가 도전을 하기 위한 첫 경험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용기.  
도전에 대한 두려움보다 설렘



시도와 실험

- 동물을 위한 건강한 간식 만들기
- 유기견을 위한 장난감, 쿠션 만들기
- 제작 후 유기견 보호소에 기부하기
- 인식과 시선의 개선을 위한 길고양이, 유기견 알리기
- 사람들에게 과정을 공유하기 위한 영상제작

자세히  
보기

갱얼쥐 방법대팀 짝꿍의 시선 p. 125  
갱얼쥐 방법대팀의 실험계획서와 리뷰 p.150

김세아  
차우진  
김이소  
손정희  
유 민

4/15

## 간지작살

”

넘지 못 한 허들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어디서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교육과  
그저 너무 좋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음이 감사했다.

김지우  
조서영  
장선주

뭐해? 나만의 악세사리 만들고 판매해보기

성장과 발견

-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닌  
만든 것을 어떻게 나누면  
좋을지 고민하게 된 친구들
- 십만원프로젝트를 계기로  
다른 시도와 실험을 만들어  
간 친구들(숨 축제기획단)



시도와 실험

각자의 개성과 느낌을 담은 악세사리 만들기  
십만원프로젝트 참여자들을 위한 비즈반지 만들기과 나눔

자세히  
보기

간지작살팀 짝꿍의 시선 p. 128  
간지작살팀의 실험계획서와 리뷰 p.177

5/15

## 그림그림

”

나는 그냥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는  
최 많은 인간들 70억명 중 한 명이고  
단지 그 수많은 인간들 중에서 조금 덜  
유해한 사람이 되고 싶을 뿐이다.

권도연

뭐 해?

평소에 느꼈던 성차별에 대해 공부를 해보고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그림책 제작

성장과 발견

스스로 자신의 배움을  
찾아간 도연

목표를 이루지 않아도  
새로운 인연과 경험의  
시도의 가치를 알게 된  
도연

자세히  
보기

그림그림팀 짝궁의 시선 p. 104  
그림그림팀의 실험계획서와 리뷰 p.187

시도와 실험

- 차별을 주제로 책읽고 학습
- 페미니즘을 주제로 예술작업을 하는 예술가 인터뷰
- ‘코끼리가면’ 작가 컨택 시도 및 인터뷰

“

내가 누군지 알면  
숨 쉬는 느낌이 든다.  
내가 살아있음을 알면  
그만큼 남도 챙길 수 있다.

유 민  
김려은

6/15

## 감성포켓

뭐 해?

옷을 매개로 사회의 문제점과 이슈를 옷을 통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

시도와 실험

- 프로젝트를 통해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부분이 미숙한지 프로젝트 과정을 통  
해 느끼며 앞으로 또 힘차게 나갈 에너지를  
받은 유민.
- 남들과는 다른 속도, 렌즈를 통해 세상에 대  
한 시선과 질문을 찾아간 려은

성장과 발견

- 프로젝트를 통해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부분이 미숙한지 프로젝트  
과정을 통해 느끼며 앞으로 또 힘차게 나갈 에너지를 받은 유민.
- 남들과는 다른 속도, 렌즈를 통해 세상에 대한 시선과 질문을 찾아간 려은

자세히  
보기

감성포켓팀 짝궁의 시선 p. 118  
감성포켓팀의 실험계획서와 리뷰 p.193

7/15

## 나만의 베이킹

“

시식평을 적어 달라고 부탁했다.  
그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  
어떻게 하면 식감이 좋아질까 하고  
고민하면서 실험을 통해 평을 듣고  
개선해 나갔다

뭐해?

유기농 재료로 유지와 설탕을  
줄인 건강한 빵도 맛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리기

고은세

시도와 실험

다양한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고 피드백  
수집 (무인시식코너,  
동네 빵 나눔, 십만원  
프로젝트 참여자에게  
쿠키배송)

성장과 발견

- 타인에게 도움을 청할 줄 알고, 도움을 받을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한 은세
-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으로 동네에 말을 건네게 된 은세

자세히  
보기

나만의 베이킹팀 짝꿍의 시선 p. 95  
나만의 베이킹팀의 실험계획서와 리뷰 p.205

”

민서, 송희는 고3이라는 이 세계를 함께  
헤쳐가는 동료와 동지의 마음으로  
힘든 입시스트레스를 같이  
날리자 이야기 나눈다.  
고3이 고3을 응원한다.  
감동스럽다.

8/15

내가 가는  
길이 정답손민서  
이송희

뭐해?

고3이 고3에게 전하는 응원프로젝트

성장과 발견

- 고3 친구들을 응원하기 위해  
8시간 동안 쿠키를 구움
- 고3 친구들을 응원하며 스스  
로를 응원하는 마음을 갖게  
됨.

자세히  
보기

내가 가는 길이 정답팀 짝꿍의 시선 p. 111  
내가 가는 길이 정답팀의 실험계획서 p.211

시도와 실험

- 십만원프로젝트 친구에게 쿠키 굽는법  
배우기
- 쿠키를 구워서 고3 친구들에게 줄 응원  
선물 만들어 나누기



## 9/15 코스모스 COSMOS

“

돈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좋아하는 사람들과 재밌게 사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배웠다.  
나중에 후회 없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씩 해나가면서 재밌게 살고 싶다.

임우석

뭐 해?

미디어아트 영상에 사용할 수 있는 음악 만들어보기로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지만,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 시도

시도와 실험

- 미디어아트 영상에 사용하기 위한  
음악작업과 실험
- '예술'을 주제로 한 다양한 자신의  
표현과 작품 만들어보기

성장과 발견

- 학원, 학교로 바쁜 일상에서  
도 자신이 하고싶은 것을 놓  
치않고 이어가는 끈기와 노력
- '음악 만들기'로 신청했지만  
다른 자신의 예술적 실험으로  
넓혀가보는 실행력

자세히  
보기

코스모스팀 짝꿍의 시선 p. 130  
코스모스팀의 실험계획서와 리뷰 p.213



10/15

## 내가 찾던힐링

”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시간들이었다.  
그 특별할 것 없는 시간들이  
난 텅없이 좋았다. 나다워서.  
온전히 나였기에.

김진희

뭐 해?

나에게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 찾아가기

시도와 실험

계획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고, 멈춤  
의 시간의 연속이었지만 이것저것 다  
양한 취미 활동과 사유를 하며 진정한  
나다움이란 무엇인지 단서를 찾아감

성장과 발견

-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하고 있었음을 깨달은 진희
- 온전한 나다움을 앞으로도 계속 찾아가고 싶어진 진희

자세히  
보기

내가 찾던 힐링팀 짝꿍의 시선 p. 98  
내가 찾던 힐링팀의 실험계획서와 리뷰 p.218



11/15

## 우주조류

“

조금 모자라도 행복하게.

마라톤 선수보다는 여기저기 샅길로 새며 여행하는 바보처럼.

한번 무너졌던 내 인생,

좀 무너져도 괜찮다는 사실을 그렇게 배우고 있다.

뭐해?

우주에서 표류하고  
있는 지금의 나의 이  
야기를 글로 쓰고 그  
림으로 그려보기



김지우

시도와 실험

- 나를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  
섬을 선택
- 그런 나의 이야기를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기

성장과 발견

누군가가 만들어준, 혹은 이미 만들어진 삶의 기준이 아닌  
나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삶의 기준을 만들어간 지우.

자세히  
보기

우주조류팀 짝꿍의 시선 p. 107  
우주조류팀의 리뷰 p. 224

”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프로젝트는 마무리됐고 나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사람을 만나는 즐거움과 사진을 찍는

내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권지원  
김혜원

뭐해?

무심코 지나치는 동네의 작지만 소중한 일상을  
사진으로 담아본다.



시도와 실험

- 동네의 작은 일상 속 모습들을 사진으로  
담아본다.
- 사진을 퍼즐을 제작하고 맞추어본다.
-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한 새로운 • 시각으  
로 전시회 진행해보기.
- 배움터의 언니들과 협업하기

성장과 발견

- 일상 속의 작지만 소중한 모습들을 발견하며 매일  
같은 일상에서 새로움을 찾았다.
- 코로나 때문에 조각난 일상을 다시 합쳐보자는 의  
미로 사진을 퍼즐을 제작
- 나의 프로젝트를 전시하며 의미를 담아보는 경험

자세히  
보기

내 안에 우리 동네있다팀 짝꿍의 시선 p. 121  
내 안에 우리 동네있다팀의 실험계획서와 리뷰 p. 228

13/15

## 인파 많 파

“

나의 생각을 많이 전하기보다  
준영이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속에서 프로젝트로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는  
과정을 가졌다.

천준영

뭐해?

사회적 약자, 사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인권에 대한 공부

시도와 실험

인권 변호사를 위한 인권 관련 독서,  
인권 침해 사례를 정리하여 다른 십만  
원프로젝트 참여팀, 주변 친구들에게  
알리기

성장 and 발견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지만, 구체적  
으로 무엇을 해보고 싶은지가 없던 준영이.  
인권 변호사가 멋있어 보였지만 인권을  
자세히 몰랐던 준영이가 엉뚱한 꿈을 좇지  
않고 관심 있는 것을 스스로 찾아보고 경험  
해보았던 일 년의 시간.

자세히  
보기

인파많은팀 짝꿍의 시선 p. 116  
인파많은팀의 실험계획서 p.234



14/15

Earth  
Project

”

이번 활동 덕분에  
다시 동기부여를 가지게 된 것 같다.  
졸업 후에도 여러 영상을 친구들과  
함께 제작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강동현  
권순현  
김경수  
조예준  
홍유태

뭐해?

지구를 위한 의미를 담은 커버영상 제작,  
모금 후 지구를 지키는 후원단체에 기부해 보기

시도와 실험

- 지구를 위한 UCC 제작
-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갈 친구들을  
찾아보기
- 학교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모금  
을 받아 그린퍼스에 기부하기

성장 and 발견

메시지를 담은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어왔지만 흥미와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와중에 지구를 위한 영상을 만들며 다시 한 번  
영상으로 건네는 표현에 흥미가 생겼다. 고3이 공부만 하는 것  
이 아니라 의미있는 활동으로 친구들과 마지막 고등학생으로  
추억을 만들 수 있었음.

자세히  
보기

Earth Project팀 짝꿍의 시선 p. 123  
Earth Project팀의 실험계획서와 리뷰 p.237



15/15

## 텔레토비

“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나에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말을 건네준 십만원 프로젝트는  
2020년 나의 가장 큰 행복과 위로가 되어주었다.

안연우  
김태경  
이예진  
이지현

뭐 해?

길거리 버스킹 공연 해보기



시도와 실험

코로나로 인해  
버스킹을 포기하고  
밴드 사운드와  
함께 공연 영상  
만들기 시도

성장과 발견

- 기존의 MR반주로만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닌 밴드와의 협업과 공연 경험.
- 익숙한 무대방식, 익숙한 동아리 방식에서 벗어나 영상으로 담는 무대 경험

자세히  
보기

텔레토비팀 짝꿍의 시선 p. 132  
텔레토비팀의 실험계획서와 리뷰 p.242

## 십만원 프로젝트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페이드아웃  
#시간을 담은 사진  
#갱얼쥐 방법대  
#간지작살  
#그림그림  
#감성포켓  
#나만의 베이  
#내가 가는 길이 정답  
#COSMOS  
#내가 찾던 힐링  
#우주조류  
#내 안에 우리동네 있다  
#인파많은파  
#Earth Project  
#텔레토비

### **STORY 3.**

십만원 프로젝트 한 눈에 보기

### **STORY 3.**

십만원의 프로젝트 한 눈에 보기

# 2020

## 십만원 프로젝트 지도

START

**20.06**

모집홍보

마뚝하고 재미나게 초대하기

홍보물로 시선을 끌기 보다 친절한 안내서, 마뚝하고 재밌는 초대장으로 아이들을 찾아갔다. 2년차이다 보니 친구 추천으로 신청한 친구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20.07**

면접

서로 알아가기

평가와 판단이 가득한 면접이 아닌 진심으로 환대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만들고자 했다. 많은 아이들이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큰 매력을 느꼈다. 사진, 영상, 패션, 공부 등 작년보다 구체적인 욕망이 있는 아이들도 많았다.

**20.07**

전체 첫 만남

환대와 만남

오리엔테이션이 아닌 환대와 만남이 있는 첫 만남의 시간으로 만들고 싶었다.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일방적 언어가 아닌 다른 이름을 붙인 이유도 그렇다. 온라인이지만 어떻게 환대 할까 고민했고 공간과 사람이 담긴 오픈형 영상을 제작했다. 온라인이 익숙치 않아 어설프었지만 시도하고 실패할 권리증을 전달하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0.08**

실험계획서

실험계획서는 부록에  
#WHY생각해보기  
#작당모의  
#작공과 관계맺기

작공과 작당모의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전에 작공과 함께 why를 다시 고민하고, 내가 꿈꾸는 것을 상상한다. 꿈꾸는 것과 현실(학원, 학교, 부모님 등) 사이에서의 간극을 발견하기도 한다. 하지만 작공과 전혀 상상해보지 못했던 계획도 스스로 알아채지 못한 자기 욕구를 발견하며 만들어진 계획은 내 일을 기대하게 만드는 동력이 된다.

20.08

선물받아랏

## 만나지 못해도 응원하기

코로나로 인해 만나게 쉽지 않아 지면서 어떤 응원을 해줄 수 있을지 긴 토론과 회의를 했다. 존중과 환대를 담은 선물을 하기로 했다. 자기 기록을 할 수 있는 삼각대와 조명, 간식, 짝꿍의 손편지, 노트와 펜을 담아 집으로 보내주었다.



#쓰레기걱정  
#선물후기  
#일상나누기

20.09 모모학당

## 나를 응원해 주는 어른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끼리 관심 영역의 선배 혹은 전문가와 만나 관계와 배움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초반에 없던 계획이었만, 모모날 아이들의 욕망을 보고 필요한 시간을 자연스럽게 고민하여 만든 자리였다. 한 번의 만남이 다음을 이어주는 좋은 인연이 되어주었다. 응원해주는 어른이 생겼다는 건 생각보다 더 든든한 일이라 생각한다.



#긴장하는예술가  
#설레는아이들

중간공유회

20.11

## 대면과 비대면의 황금비율

서로 만나고 싶은 마음이 한가득 차올랐다. 카톡으로만 서로의 프로젝트 소식을 주고 받으니 궁금함만 쌓일 뿐이었다. 다같이 만날 날 날짜를 잡았더니 또 다시 거리 두기가 격상되었고, 대면과 비대면의 황금비율 찾아 최대한의 연결을 만들고자 했다. 숨의

각 공간에서 10인 이하로 모여 가까이 있지만 온라인으로 만남을 가졌다. 내가 하고픈 것을 시도하고 있는 사람은 타인의 시도를 또한 귀하게 보는 힘이 모이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다가오는 연말 축제에 대한 기대를 서로에게 안겨주는 시간이기도 했다.



NEXT PAGE

#자기컨텐츠#멈춰보기

20.12

축제준비

## 돌아보고 발견하기

프로젝트 결과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아이들은 알고 있다. 스스로 나의 프로젝트 과정 돌아보고, 짝꿍과 함께 지나치고 흘러보냈던 시간들을 다시 붙잡아보며 무엇을 나누고 싶은지 발견했다. 만나지 못해 온라인으로 영상이나 피피로 준비하는 이야기들이 많았다. 그렇게 성과를 보여주는 결과물이 아닌 자기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은 나를 성장시킨다.



20.11 축제기획단 탄생

## 기획이 뭐냐?

내가 꿈꾸고 상상하는 것을 만든다는 게 아닌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잘하는 것에 끌리는 친구들 9명이 모여 공유하고 싶은 마음, 나에게 주어진 축제 기획단이 결성되었다. 아이들 명확한 역할, 움직이는 만큼 만들어진 3주간 매일같이 고민하고, 회의하고, 움직였다. 밤 12시에도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는 자발적 몰입감을 겪으며 함께 한다는 건 생각보다 더 어렵지만, 생각보다 더 필요했던 일 인건 덤으로 알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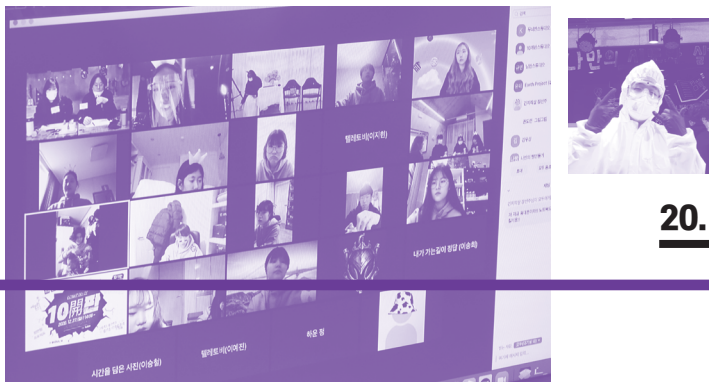
#회의의연속#단체후드티#홍보도직접#십개판이름을만든사람들



## 심만원. 문을 열다

### 심만원. 문을 열다

코로나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시도로 전환해보고자 했던 지지부진했던 과정들이 참 길었다. 내가 누군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스스로 발견했던 솔직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제대로 얼굴을 마주하진 못했지만 스스로 배움을 만들었고, 서로를 통해 성장했던 시간이었다.



**20.12**

#3시간온라인축제 #웃고떠들고감동받고 #응원받고응원하기#우리모두주인공

**2021**

심만원  
프로젝트는  
계속된다



## ***STORY 4.***

십만원 프로젝트의 -'사이'

STORY 4.

십만원 프로젝트의 - '사이' -

“


전체가 부분의 합보다 큰 이유는  
부분과 부분을 연결하는 그 '사이' 때문이다.

- 스스로 서서 서로를 살리는 교육 중에서-

[모모학당] 01 


나를 응원해주는 어른을 만난다는 것



[중간공유회] 02 

작은 걸음이 큰 걸음이 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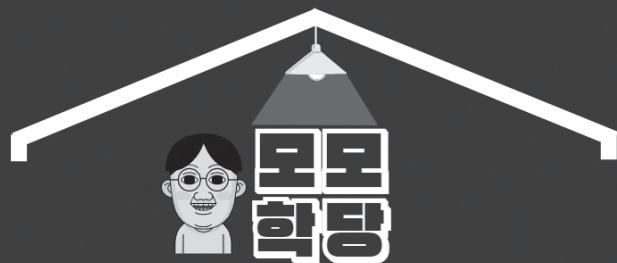


[십開판] 03 

십대들의 판을 여는 마무리 축제



# 십대들의 판을 여는 마무리 축제



## 집에서 모모학당 하자(ZOOM으로 만나)

미디어, 사진, 스토리텔링, 패션



코로나가 안정화 되면  
비대면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모모학당> 일정과 내용 살펴보기

<b>9/5(토) 14:00</b> 미디어와 예술학당	<b>함께하는 교사:</b> 김판중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진정한 예술가, 별명 '판') 판이 존경하는 예술가의 삶과 작품을 함께 보며 그들의 작품세계에 빠져보자, 덤으로 살아있는 미디어 현장 이야기를 나누며 수다떠는 모모학당!
<b>9/6(일) 14:00</b> 사진과 예술학당	<b>함께하는 교사:</b> 박동명 (사진 속 다양한 이야기를 찾는 작업을 하는 사진 작가) 좋은 사진, 나쁜 사진이 있을까? 나는 무엇을 담고 싶지? 저마다의 다른 시선을 통해 탄생하는 다양한 사진의 시선을 알아보는 모모학당!
<b>9/19(토) 14:00</b> 패션과 예술학당	<b>함께하는 교사:</b> 조석준 (스스로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 패션사업을 시작한 청년)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갔던 청년(형,오빠)의 시행착오 이야기와 서로의 패션 이야기를 서슴없이 나누는 모모학당! (코로나가 조금 안정해지면 같이 동대문도 가볼 예정!)
<b>9/19(토) 17:00</b> 스토리텔링 학당	<b>함께하는 교사:</b> 강정아 (발화할 수 없던 언어를 담는 Echo 웹진 제작자) 스토리텔링이 무엇일까? 살아가면서 누구나, 언제나 필요한 스토리텔링을 알아보자! 함께 '이야기'를 이야기 해보는 모모학당!



**신청방법:** 민정쌤에게 듣고 싶은 학당과 본인 이름,  
듣고 싶거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이번주까지 카톡보내기

01

## 모모학당이란?

책 '모모'에서 빼앗긴 시간을 되찾는  
주인공 모모와 십만원 프로젝트  
주인공들이 닮아있다고 생각해  
붙인 이름이 '모모'다.

19년 십만원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첫 만남을 '모모날'이라고  
이름 붙이며 '모모'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모모학당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끼리 그 영역의 선배 혹은  
전문가와 만나 새로운 배움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학당이다.

## 01

나를 응원해 주는  
어른을 만난다는 것  
모모학당



## 보이지 않는 사이를 발견하기

모모학당의 탄생은 십만원 프로젝트 모모날(첫만남) 때 ZOOM화면 넘어 전달되는 아이들의 욕망으로부터 시작했다. 왜 십만원 프로젝트를 하고 싶고, 무엇을 할 것인지 공유하는 시간 안에서 한 명 한 명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싶고, 무엇이든 해보고 싶은 그 열망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그 마음이 뿌리가 되어 더 배우고 싶고, 다른 팀 친구들의 이야기에 더 기뻐거리고 싶은 마음도 보였다. 명확한 언어로 자신의 욕구를 이야기하진 않지만 충분히 느껴졌다.

그렇게 발견한 마음이 풀어질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사람을 연결하고, 그 관계가 또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기에 계획에 없던 모모학당을 열게 되었다. 십만원 프로젝트는 청소년 스스로 자기 것을 해나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진 않는다. 모모학당 같이 청소년의 시간을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적절한 시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보이지 않는 사이를 발견하고자 마음의 불을 켜고 있다. 청소년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는 자기 욕망이나 무언가 막혀 나아가지 못할 때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적절한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다.

## 나를 응원해주는 어른을 만난다는 것

1회차 프로그램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이 있었기에 기술적인 교육을 넘어 그 2시간의 만남에서 무엇을 주고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다. 그래서 아이들을 만나는 그 어른이 누구인가가 너무 중요했다. 주변 추천을 받기도 하고 평소에 알고 지내던 좋은 어른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초대했다. 그리고 아이들도 그 만남을 준비할 수 있게 했다. 아이들은 어떤 시간이길 기대하고, 무엇을 배우고 싶고, 나는 무엇을 나누고 싶은지 생각하고 사전에 공유했다.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참여하는 그 몇몇의 아이들 개별 이야기를 모모학당 교사들과 깊게 이야기했다.

4명 중 3명은 청소년을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기도 했다. 오히려 아이들은 무뎠던 한테 교사들이 긴장하고 설레하며 만반의 준비를 하기도 했고, 오히려 어떠한 준비보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더 깊게 들어보고자 하는 마음과 함께 선물을 들고 오기도 했다.

모모학당에서 사진, 패션, 미디어, 스토리텔링 등.. 관심 있는 영역에 대한 배움을 통해 프로젝트에 대한 동기부여도 만들어 주고 싶었지만, 그보다 그 한번의 만남에서 낯선 어른이 나를 응원해주고, 나를 위해 긴장하며 무언가를 준비해주었다는 그 작은 경험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

# 01

## 모모학당

### 사진과 예술

“제가 할 수 있는 일일까요?”

박동명 사진작가님은 지인의 추천으로 연락하게 되었다. 전혀 관계가 없던 터라 마을배움터에 대한 소개와 4명의 아이들 개별 이야기 그리고 십만원 프로젝트 취지를 자세히 적어 미리 이메일을 한 통 보냈다. 열심히 적어 보낸 요청안에 대한 답변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일까요?’였기에 오히려 좋은 신뢰감이 느껴졌다. 청소년을 만나는 것이 처음이라며 내비치는 그 조심성이 오히려 아이들에 대한 존중감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한 명 한 명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밤새 빼곡히 고민하며 준비해온 작가님은 어색하고 세상에서 누구보다 뽀족한 듯 아이들과 인사를 나누며 사진 모모학당은 시작되었다. 아이들이 평소에 찍었던 사진을 함께 보며 서로 느낀 점을 나눠보는 간단한 방식으로 모모학당은 채워졌다.

“사진을 잘 찍는 것에 집중하기 보다  
나에게 말을 거는 피사체를 계속해서 찍어보는 건 어때요?

그건 결국 나에게 집중하는 것과도 같아요”

(...)

“사진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

“제 이야기를 너무 잘 들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동명 작가님은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왜 찍고 싶었는지?를 물었고, 떨리고 서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따뜻한 존중감을 표현해주었다. 사진 이야기 만큼이나 강렬했던 동생 작가의 태도였다.

기대한 만큼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서로의 사진을 보며 사진 안에서  
다양함을 보았어요.  
작가님과 친구들이 제 사진을 보며  
해준 말들은 제가 앞으로  
사진 찍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작가님이나 다른 사람들 사진을  
보니까 사진에 이런 감정이나  
이야기를 담을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작가님이 응원해주시고  
준비해주신 그 시간이  
너무 감사했어요!



자기 이야기를 쓰고 싶고, 자신을 알고 싶다며 모인 4명의 친구들과 소리 없던 목소리를 찾고 발화할 수 없던 언어를 담는 웹진 'Echo' 제작자인 멋진 언니 강정아와 만났다. 수업이 아닌 만남을 준비한 정아 작가는 아이들 한 명 한명에게 준비해온 책을 선물했고, 책 이야기를 시작으로 지극히 평범한 수다가 이어졌다.

“평소엔 뭐해요?”

“뭐할 때 즐거워요?”

“학교에선 뭐해요?”

(...)

“우리 모두 부당한 것을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인거였네!!!!”

어떤 수업도, 가르침도 없이 일상적인 수다로 꽉 차는 시간이었다. 수다가 쌓이고 쌓이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싶다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공통점을 가지고 또 수다가 이어졌다.

“우리 또 연락해요. 내 공간에 놀러와도 좋구”

선물로 가져온 책에 연락처와 응원 한마디를 적어주며 우리는 헤어졌다. 아이들 눈빛에 이 멋진 언니랑 친해지고 싶은 약간의 동경과 다음 만남을 바라게 되었음이 느껴져 있었다. 그렇게 얼마 후, 그림그림팀의 도연이는 정아작가를 만나러 공간에 찾아갔고, 지금도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이들은 꾸준히 정아작가를 응원하곤 한다.

처음 보는 요상한 기운이 나는 언니가 지극히 사소한 일상을 물어보는 질문이 아이들에겐 묘하게 자극적이었다. 아이들은 그 자극이 나쁘지 않았고, 정성스레 곰곰이 생각하고 답했고, 평소에 불편하다고 느꼈던 작은 것이 작은 것이 아닌 부당했다는 걸 스스로 인지했다. 자연스러운 수다 안에서 피어나는 배움이 가득했던 시간이었다.



“딱딱 맞춰진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어서 좋았어요.

정아쌤이 무엇을 하시는지, 작품과 전시내용도 구경할 수 있었고, 이렇게도 하고 싶은 일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좋았습니다.

직업이 정해져 있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일을 만나본 적 없는 저에겐

정말 흥미롭고 새로웠어요.

좋은 시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십만원 프로젝트 1년의 과정을 곁에서 촬영해주고 함께 고민해준 판PD와 예술과 미디어에 관심 있는 5명의 친구들이 함께 했다.

판이 아이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예술가가 가진 삶의 태도가 작품에 어떻게 담기는지, 그 시선과 태도가 왜 중요한지였다.

“삶의 태도가 어떻냐에 따라 익숙하고 편안한 것을 다르게 바라볼 수도 있고, 세상을 읽어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태도가 자신의 작품이나 표현으로 풀어지는 것이죠.”

그저 멋진 작품들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 한 사람인 그의 삶의 태도로 머물러 보는 시간이었다. 판의 이야기가 잠시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시선과 감각일 수 있겠지만,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시선과의 만남이었다. 누군가에게는 무의미해 보이는 시도들도 저마다의 의미와 이유가 담겨질 때, 귀해지고 강해지는 과정도 자연스레 전해졌다.



“저희가 지금 하고있는 프로젝트인 영화 제작에도 이런 가치를 넣어보고 싶어요. 저도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부조리함이나 감정, 상황들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습관을 들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듣고 본 작가와 작품들 모두 태어나서 처음으로 듣는 이야기였어요. 작품에 담긴 이야기, 시선, 감각들이 저에겐 의미가 크게 다가오네요. 무엇을 해야 할지 아직 찾아가고 있는 중인데, 저의 태도는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만들어가고 싶어요.”



십만원프로젝트의 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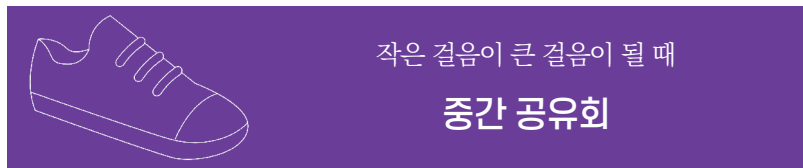
02



작은 걸음이  
큰 걸음이 될 때

중간 공유회





### 낮설지만 낮설지 않은 이유

십만원 프로젝트가 시작 된지 5개월이 지나고,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던 11월. 각자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이유로 십만원 프로젝트를 시작한 16팀이 한 자리에 모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이 우리는 마무리를 향해가고 있었다. 카톡방에서 아주 가끔씩 서로 소식을 전해 듣고, 부끄럽지만 용기 내어 한마디를 건네며 서로를 응원하곤 했다.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했지만 서로의 관심이 끊이지 않도록 짝꿍들이 연결자가 되어 가느다란 선을 놓아주고자 노력했고, 그 시간이 쌓여 아이들은 어느 때보다 다른 팀과의 '만남'을 원하게 되었다.

코로나가 잠시 잠잠해졌던 11월. 11월 22일 우리는 다같이 모이기로 했다. 시험 기간이었음에도 너도 나도 시간을 내어 참여하고자 했다. 하지만... 코로나가 다시 심해져버렸다.

예측 불가능한 코로나로 인해 2020년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일단 해보자"를 밥 먹듯이 이야기했던 것 같다. 또 다시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 거리두기 격상이었고, 우리는 또 다시 대책회의를 하고자 둘러앉았다. 고민 끝에 대면과 비대면의 황금비율을 찾는 실험을 해보기로 하였다. 배움터의 공간의 장점을 살려 4개의 공간에



10명 이하로 인원을 배정하여 각 공간에서 zoom으로 모였다. 30명이 넘는 아이들이 한 공간에 모였지만 서로 얼굴을 실제로 대면하는 사람은 10명 이하인 것이다. 열체크 후 배정된 공간에 들어갔을 땐 모두 빔 프로젝트로 각 공간을 볼 수 있었고, 화면으로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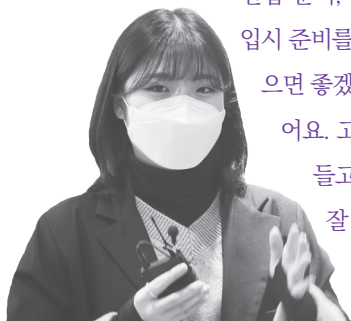


처음 만난 사이라 어색하기도 했지만, 저 멀리 다른 공간에서 소리도 지르고, 노래도 하면서 점점 분위기는 다른 공간이지만 한 공간에 있는 연결감이 만들어졌다. 자주 만났던 사이처럼 금세 수다 꽃이 피워지는 걸 보니 우리는 그간 서로를 보고 있었고 관심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공간별로 프로젝트 과정을 공유하고, 서로의 과정을 가지고 대화가 이어졌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 마무리 축제에 대해 상상하고 함께 공유했다.

십만원 프로젝트라는 공통분모가 주는 힘이 분명 있다고 생각되었다. 서로 자신의 것을 공유할 것이 있다는 것, 내가 느꼈던 설렘, 무언가를 이루었던 성취감, 부담감, 두려움 비슷한 순간을 마주한 적이 있었다는 그 공통분모가 주는 힘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더 각자의 이야기가 서로에게 가닿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었고 **낮설**지만 **낮설지** 않았다.

”

열아홉을 앞둔 친구들에게 할 말이 있어요. 자소서, 면접 준비, 수능준비 등등 저는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입시 준비를 했어요. 고3이라고 연연하지 않고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은 걸 포기하지 않았음 좋겠어요. 고3이면서 이런 활동을 하면 가끔 회의감도 들고, 우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을 잘 견디며 하고 싶은 것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두의 도전과 시도가 멋지다고 생각해요. <감성포켓, 유 민>



저는 저의 힐링을 찾는 프로젝트 중이에요. 지금 저는 ‘쉽’ 자체가 생각보다 어려운 저의 상태를 살펴보는 중이에요. 우리 모두 쉽에 대해서는 배운 적도 경험한 적도 본 적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문장에서 쉽표가 있으면 쉽게 읽히듯이 쉽도 삶에서 그런 역할이 될 것이라 생각해요.  
<내가 찾던 힐링, 김진희>



나는 어떻게 이곳에 존재하고 있는 걸까?  
존재의 이유에 대한 물음을 찾아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우주 조류로 살아가고 있는 저의 이야기를요.  
<우주조류, 김지우>

애완동물 아니고 반려동물! 분양이 아니고 입양!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안에서 동물에 대한 인식이 보여요. (...)  
사소하지만 언어의 변화가 나비효과가 되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갯벌취방법대, 김이소>



이렇게 만난 것 자체가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들 만나서 같이 어떤 프로젝트를 할 건지 얘기를 나누고 싶었고  
어떤 친구가 프로젝트를 하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여기에 오기까지 코로나 때문에 참 고민했었어요.  
온라인의 장점도 있지만 만나서 오가는 눈빛, 말투, 몸짓, 행동으로  
교감되는 게 있잖아요. 오늘 충분히 서로가 느꼈다고 생각해요.  
오늘 짧은 순간이었지만  
조금의 관계가 생긴 것 같아서 의미가 있었어요.  
오늘 하루 정말 좋네요!  
<시간을 담는 사진, 이승철>



## 작은 걸음이 큰 걸음이 될 때

11월 22일. 대면과 비대면이 섞여 있는 그 장면이, 나의 이야기를 하고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아이들 표정이 점과 점이 모여 큰 덩어리가 되는 듯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시도 중인 사람은 타인의 시도 또한 귀하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십만원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모이면 내가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따뜻한 안정감 같은 공기가 자연스럽게 생겨난다. 그 안정감은 자연스럽게 온전히 나에 의한 언어, 나에 의한 표현, 나에 의한 표정들이 오고 간다.

아이들을 만나며 누군가는 앞서가고, 누군가는 실패하고, 누군가는 빨리 얻고, 누군가는 뒤처지고, 누군가는 제자리인 상황을 계속해서 살피고,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를 재는 상태에서 벗어나 보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항상 느낀다.

다른 이의 삶을 궁금해하며 질문을 던지고, 응원해 보는 것, 다른 이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그의 시간을 느껴보려 할 때 혼자만의 작은 걸음이 큰 걸음이 되어 든든한 걸음걸이가 되는 배움을 얻는다.

아쉬움을 남긴 채, 우리는 각자가 가진 이야기를 더 멋지게 나눠보고 싶어졌다. 다시 또 온라인으로 만나겠지만 그건 중요해지지 않았다. 미완성이던, 실패했던, 시도하지 못했던, 멋지게 성공했던... 우린 모두 나의 이야기를 가진 멋진 사람이고, 그 이야기를 서로 들어줄 준비가 되었다.

그렇게 처음 대면한 날, 함께 계획하고 준비해서 무언가를 이뤄보고 싶단 생각으로 모인 9명의 축제 기획단이 탄생했다.



작은 걸음이  
큰 걸음이 될 때

십대들이 축제를 연다고?

# 10開판

오늘의 주인공은 너야

2020.12.27. | 14:00~ | 마을배움터 유튜브

공공시설의 문열기는 더 힘들어졌다고...  
아이들의 모임과 활동도 더 힘들어졌다고 ....

만남과 시도와 공유까지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세심하게 조심하되 지혜로운 실험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펜데믹의 우울과 답답함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대면과 비대면의 황금비율로 유쾌한 시도와 지혜를 만들어가는!

'십대들의 비대면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딱 2시간만 내면 함께 할 수 있는 꺼리들 ]

하나. 10만원으로 일상을 바꾸기는 십대들의 이야기 (16개 프로젝트 사례 공유)  
두울. 기획, 구성, 홍보, 진행까지 십대들의 토크쇼 (주제: 십대가 이야기하는 20살이 된다는 건)  
세엣. '숨' 십대세프들의 비대면 식당  
네엣. 대면과 비대면의 황금비율로 만든 전시 (마을배움터 '숨' 사람책, 십대들의 이야기 전시)  
다섯. 온라인 공연과 십대가 직접 만든 악세서리 경매  
여섯. 기획단이 직접 준비한 연말 시상식!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비대면 축제 일정이 변경 될 예정입니다

십만원프로젝트의 사이

03



십대들이 판을 열다  
십開판

마무리 축제



십대들이 판을 열다 - 십開판

## 마무리 축제

## 나의 존재감, 너의 존재감

십만원 프로젝트 중간공유회 이후 우리는 모두 마무리 축제 준비를 시작했다. 코로나라는 재난에도 불구하고 갇히지 않고 계속해서 시도하며 20년을 의미있게 만들었던 십대세프학교와 사람책의 그림을 그렸던 그림작가들까지 함께 서로를 응원하고 연결되고자 축제를 함께 만들어보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더 고민이 많았다. 각자의 지지부진했던 제각기 다른 과정을 어떻게 공유해야 서로에게 가닿을 수 있을까? 각자의 공간에서 어떻게 함께 한다는 공통의 감각을 만들 수 있을까? 아마 온라인으로 행사를 준비했던 모든 기획자들이 고민했을 지점일 것이다.

11월 늦어졌던 중간 공유회에서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처럼 응원하던 그 따뜻한 공기가 연결의 가능성을 열어주었고, 그 당사들이 기획자가 되어 축제를 만들어갈 수 있겠단 확신을 얻었다.

우선은 기획단과 기획이란 무엇인지, 미디어의 가능성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고 함께 시도해보아야 했다. 3주라는 짧은

시간동안 매일같이 ZOOM을 키고, 수없이 회의를 했고 시간이 갈수록 우리들의 축제는 행사를 넘어 서로를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노력이자 코로나이기에 해볼 수 있는 놀이가 되기도 했다.

기획단이 아닌 나머지 친구들에 대한 고민도 적지 않았다. 각자 프로젝트를 통해서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지 처음으로 돌아가 지난 과정을 ZOOM으로 돌아보아 했고, 그것을 온라인으로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 짝꿍들과 논의하며 해본 적 없던 방식으로 준비하여 나누고자 준비했다.

이렇게까지 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이지? 라는 물음이 필요가 없었다. 코로나로 인해 다 못해, 다 안돼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는 점점 이 재난 앞에서 무기력만을 경험할 뿐임을 이미 겪어봤기 때문이었다. 무엇이든 재미난 일상을 위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일상을 위해, 나의 존재감, 너의 존재감을 감각하기 위해 무언가를 위해 시도해야만 했다.

## 온라인 축제, 그래서 가능했던 것

코로나로 인해 아이들에게 관계의 경험이 기회가 사라지고, 성장의 공간이 사라져갔다. 공공시설인 마을배움터도 긴 휴관이 있었고, 아이들에게 '오늘도 오면 안돼'라는 말을 밥 먹듯이 하곤 했다. 재난을 마주했을 때 공공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묻게 되는 순간들이었다.

어떻게 하면 공공의 자리에서 수칙을 지켜가면서도 아이들의 역동을 살리고, 몰입의 시간을 만들고, 서로를 통해 배워갈 수 있을지 정말 고민이 많았다. 그렇게 짝꿍들의 고민과 시도의 수많은 반복으로 1년을 보내니 12월의 축제를 앞두었을 땐 오히려 걱정과 당혹스러움보단 이 순간을 또 다시 우리답게 어떻게 만들까에 대한 기대가 더 컸다.

관계와 관찰을 베이스로 성장을 만들어 오던 우리들이 카메라, 콘솔, 조명을 잡았고, 편집과 방송기획을 배우며 제각기 역할이 다양해진 것도 유의미했다. 활동가들의 새로운 측면의 성장도 있었다. 온라인을 통한 전달을 만들기 위해선 이전보다 청소년이 전하고자 하는 의도와 내용을 더 명확하게 파악해야 했다. 오프라인으로 하려던 것을 그대로 옮겨놓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팀은 사전녹음과 믹싱을 하기도 하고, 어떤 팀은 안내 영상 제작을 하는 등 이 친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더 적합한 방식과 구성을 재고민해서 제안해주었다. 아이들도 새로웠고, 우리도 새로웠다. 스스로 만든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아이들 스스로에게도 더 큰 성취감으로 다가왔다.

그렇게 십開판은 총 4개의 스튜디오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유튜브와 ZOOM을 연동시키고, 스튜디오도 여러 개로 나뉘어 지면서 기술적인 면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것 또한 부족한대로의 의미가 있었다. 모두가 스스로에게 만족스러운 준비의 과정 덕분이었을 것이다.



### 십대들이 판을 열다 "십開판" — 축제기획단 이야기



“축제기획단 왜 해보고 싶지?(Why)”

“기획은 뭐야? 축제기획은 뭔데?(What)”

“온라인으로 축제가 가능해?(How)”

#### 나의 역할, 우리의 역할을 정의해보기

축제 기획단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9명의 친구들은 첫 모임에서 ‘왜 축제기획단을 해보고 싶은지’, ‘무엇이 기대되는지’ 이야기를 하며 시작했다. 그리고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기획’이란 무엇인지, ‘미디어의 가능성’은 어디까지인지 강의를 들었다. 기획이란 무엇인지 스스로 정의내려 보는 시간 속에서 스스로 ‘기획단’으로서 활동의 목적을 정리하게 되었고 어깨가 으쓱하는 자부심도 가져갔다.

#### 축제기획단이 정의한 축제기획자란?

- 축제를 계획하고 실현하는 사람
- 축제에 필요한 여러 분야의 기획자를 섭외 및 총괄하고 축제의 전체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

## 축제기획단이 정의한 축제기획자란?

- 내가 꿈꾸고 상상한 축제의 프로그램의 계획을 짜서 프로젝트로 실현해주는 사람
- 상상력을 동원해 실행하는 사람
- 상상하는 축제를 함께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사람
- 상상을 현실로 만들 줄 아는 사람



## 해봄직한 역할과 책임이 생길 때

기획단 이름과 축제이름이 정해졌다. 마을배움터의 애칭인 '숨'을 닮고 싶고, 숨의 아이들이라는 의미를 담아 'THE 숨'이라는 팀이름을 정했다. 축제는 십대들이 판을 열었다는 의미를 담아 '십開판'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전체를 하나로 엮어내기 위해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아야만 했다. 축제에 함께하는 십만원 프로젝트 16팀, 세프학교, 사람책 과정까지 디테일하게 살펴보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와 의미를 다시 되새겨 보는 시간을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의 명확한 역할과 나의 역할을 정리하였다. 'THE 숨'이 지향하는 축제의 목적을 정리하였고, 토크쇼 기획팀, 공연방송 기획팀, 전시팀, 홍보팀으로 팀을 선택해 앞으로 방향과 계획을 1차 정리하였다. 명확한 역할과 책임이 생기니 점점 몰입해나가는 느낌이 강해졌던 시간이었다.

## THE 숨이 정리한 축제의 목표

- ① 비대면이지만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 본다.
- ② 코로나'덕에' 서로를 응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 본다.
- ③ 함께 연결 되어있는 느낌을 모두가 가질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 본다.



## 해봐야 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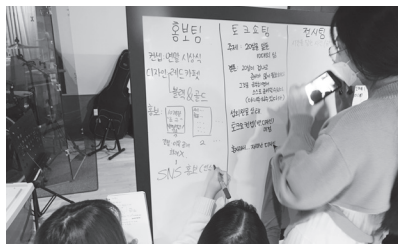
홍보영상  
바로보기

영상에 필요한 기획, 시나리오, 촬영, 편집을 배웠다. 실제로 해봐야 아는 법! 2시간 안에 축제 홍보 영상을 만들기 위해 열띤 토론을 목에 핏대 세워가며 했다. 시나리오, 대본, 카메라 동선, 소품까지 해본 적 없는 영상촬영을 직접 해보았다. 순간적인 몰입력과 역할분담으로 서로 호흡도 맞춰보고,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영상으로 어떻게 전할 수 있는지 실제로 경험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 우리가 그려가는 축제



일주일 동안 팀별로 ZOOM미팅을 가졌다. 밤 10시, 12시에 ZOOM으로 모여 심 없이 회의를 했고, 네 번째 모임이 되던 날 팀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했다. 홍보팀은 모두를 응원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 연말 시상식 컨셉의 홍보물 디자인을 구상했고, 그 의미를 담아 모두에게 '상장'을 제작해 전달하고자 했다. 토크쇼팀은 20살을 앞둔 10대의 이야기를 라디오 컨셉으로 사전 촬영하여 전달하고자 했다. 전시팀은 사진 프로젝트를 하는 친구들의 전시를 함께 고민해주는 기획자를 자처하였고, 이미 사진 프로젝트를 했던 친구들과 ZOOM미팅 까지 마친 상태였다. 방송팀은 악세사리 프로젝트를 했던 친구들의 내용으로 홈쇼핑의 컨셉으로 모든 참여자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생방송을 기획하고자 했다.

## 우리 연결될 수 있을까?

각자의 공간에서 어떻게 공통의 감각을 가질 수 있을까? 함께 즐길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우리의 고민이었다. 그래서 시도해본 것이 함께 디자인하고 제작한 공동후드티와 모두의 출석을 확인하고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불빛이 들어오는 머리띠,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간식, 기획단이 직접 제작한 개별 상장, 메시지와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보드마카와 보드판, 함께 나눠 끼고 싶은 비즈반지, 간단한 편지와 안내문 등 고이고이 선물을 담아 발송하고자 한 것이다.



## 놀이가 되어가는 시간



놀이가 되어  
가는 시간

zoom을 장시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각자의 공간에서 모니터로만 장시간 집중하기란 쉽지가 않다. 참여팀이 많았기에 그 긴 시간을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을까 고민했다. 기획단이 할 수 있던 것은 중간 중간 즐거움과 환기가 될 수 있는 광고 타임을 만드는 것이었고 영상, 기획, 회의, 실천, 제작 등에 친숙해진 기획단은 즉석에서 회의를 시작했고, 즉석에서 촬영과 편집을 끝냈다. 기획과 실행이 놀이가 되어버린 듯했다.



## 완벽함을 내려놓기 (토크쇼 기획팀)



토크쇼  
바로보기

토크쇼 기획팀은 십대는 왜 도전하고 싶은 욕망을 스스로도 세상에도 감추어야만 할까? 왜 십대는 작은 것도 용기내어 도전해야할까?를 주제로 보이는 라디오 컨셉의 토크쇼를 기획했다. 패널로 친구들을 섭외하고, 이들과 사전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대본과 컨셉을 만들어갔다. 삽입되는 노래 선곡, 좋은 내용을 담고자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 계속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다. 생각보다 더 어려운 과정이었음을 느끼는 시간이었지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잘 전달하기 위해 어떤 과정을 필요한지 절절히 느끼는 시간이었다. 계획대로 되지 않거나 완벽하지 못하면 실패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던 토크쇼 기획팀에게는 실패가 실패가 아님을 알아가는 좋은 과정이었다.



## 나의 전시는 아니지만 (전시 기획팀)



전시영상  
바로보기

십만원 프로젝트 팀중에 사진을 중심으로 한 팀이 2팀이 있었다. 이 친구들이 사진



전시회를 하고 싶었지만 코로나와 개인 사정으로 인해 전시회를 열지 못하여 기획단이 나서면서 만들어진 기획팀이다. 하지만 전시에 대한 경험도 지식도 없었기에 청년 전시기획자들과 만남을 연결 해주어 짧지만 전시에 대한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전시기획팀은 이들이 하고 싶은 전시가 아니라 십만원 프로젝트 사진팀들이 하고자 하는 전시를 함께 고민하고 더 돋보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었기에 끊임없이 ZOOM을 켜서 그들과 소통하곤 했다.





뮤직비디오  
바로보기

# '랜덤박스' (자작곡)

작곡\_심현\_김세아 | 노래\_김이소 | 랩\_김지우

처음 만난 모두들 인사해 안녕 활동이 편하다고 생각한 어린 아(이)  
어색한 공기를 뒤로하고 모여 하고 싶은게 많아져 이 기쁨 통해 많(은)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으면 해서 비록 시기가 안좋은 시기지만  
이 순간을 10대를 담아내려 노력 내 방식으로 장식해 맘대로

너는 노래 해 나는 랩을 해 이웃끼리 모여  
너는 요리해 넌 무엇을 원해 미리 길이 보이지 않아도 maker  
시간을 쪼개 추억을 조각해 행복 한 움큼 집어 넣고 섞어  
우리 모두 같이 만들어내 puzzle

둘보다는 셋 셋보다는 넷이 나온 매일 이 박스 안에 뭐가 있을진 몰라도  
둘보다는 셋 셋보다는 넷이 나온 매일 꺼내 보면 알지, 미니마니모  
주고받는 게 익숙치가 않아 나는 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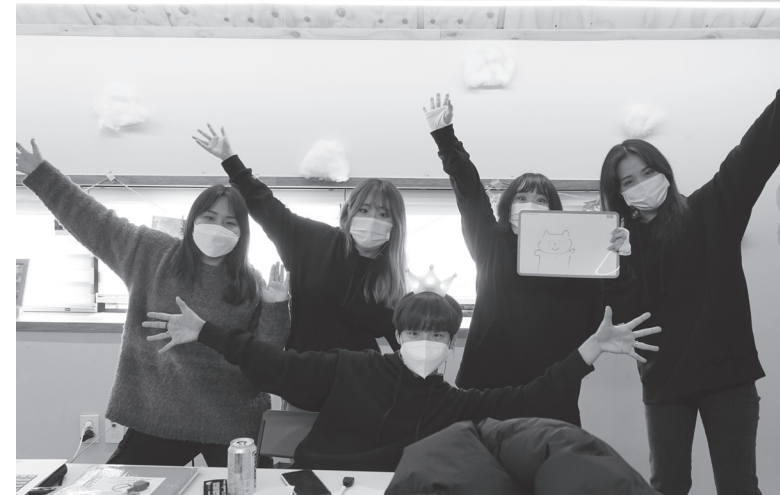
이 시간 속에 남는 경험 모두 다  
추억이 되니까 값진거지 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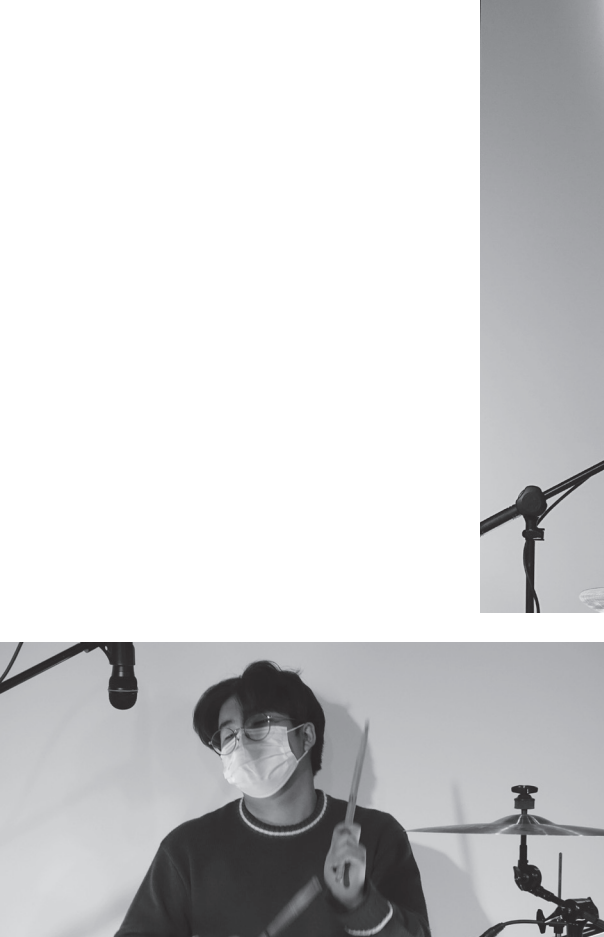




심민원  
개막  
판상기  
영도  
영도  
영도









축제기획단 'THE 송 후기'



유민

다들 너무 의욕적이었기 때문에 협력한다는 점을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너무 좋았지만 모두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서 모두의 말을 존중하지 못했었습니다. 항상 협력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만 고민하다가 이제는 협력안에 존중과 경청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실패하면 낙오자이고 실수를 하면 치밀하지 못해서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단체 생활을 한다고 하면 나만 이렇게 생각하니깐 항상 앞에서 나섰고 제가 다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축제 기획단은 모두가 도전과 실패와 실수에 두려워하지 않았고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실패해도 괜찮다는 즉, 미움받을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여유로운 20대를 맞이했네요. :-)

시간이 부족해서 아쉽긴 했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 다들 경험한게 많아서 해보고 싶은게 많다 보니 다 담아 내는데 비해 시간이 너무 적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의견들이 절대 거절되지 않고 선생님들께서 함께 고민해주시고 움직여주시니 우리를 정말 환상의 궁합이었어요!



김려은

축제를 준비하면서 기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웠던게 좋았고 내가 직접 기획한 걸 맘껏 표현할 수 있었어서 뿌듯했던 시간이었다. 무언가를 이루어 간다는 성취감,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에서 오늘 즐거움이 정말 컸다. 학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공부'가 가장 크기에 공부가 아닌 다른 경험들의 기회가 주어지기 쉽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아쉬웠던 점은 당일엔 방송을 송출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번 축제 당일 현장 사진을 찍으러 다니면서 스튜디오 별로 분위기를 알 수 있어서 즐거웠다! 모두가 온라인으로 하는 축제는 처음이었을 것 같은데 또 준비하는 과정, 세팅하는 과정도 오프라인과는 달라서 많이 색달랐고 온라인으로 해볼 기회는 적다고 느껴서 이번 축제가 더 신기하고 재밌다고 느껴졌다. 기획단은 당일엔 리허설이 제대로 진행이 안된 것은 너무너무 아쉬웠다.



김이소

새로운 친구들 많이 만나게 되고 코로나19 시국인데도 사람을 자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매주 일요일마다 정기모임도 하면서 더 더 친해지고 각자의 매력도 알

게 되어 좋았습니다. 어느 정도 역할이 정해지고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는 과정에서 멋있다고 느꼈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어 직접 편집도 하는 과정에서 모두의 열정에 놀랐고 배울 점이라고 느꼈습니다.

결과가 중요한 우리나라 시스템에서 과정을 더 중요시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했습니다! 가장 크게 느꼈던 건 사람들은 모두 다 다른 생각과 다른 성향 다른 가치관 다른 인생을 살아오면서 각자가 봤던 경험들 등 다양한 사람들과 말을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쉬운 일이 아닌거였구나 진짜 작은 사회 같았어요! 거의 축제가 다가오는 일주일 전, 십대 셰프에 초대해준 고마운 현이. 동아리 후배 그 이상으로 소중한 친구 연우. 보자마자 밝은 기운이 느껴졌던 지우. 알아가니 누구보다 매력 넘치던 서영이. 조용하지만 가장 강한 려은이. 열정과 책임감 빼면 시체인 세아. 없으면 서운한 분위기 메이커 우진.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민이. 기획단 친구들 너무 고마웠고, 감성적인 화법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시고, 축제에서 가장 열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해주신 민정쌤. 조용해 보이지만 대화하면 잘 통했고 사실 반응이 너무 웃겼던 상현쌤. 무결이랑 노는 모습이랑 화내는 모습만 봤지만 항상 마주치면 즐거웠던 준혁쌤. 확실히 프로 같은 면모를 보여주셔서 멋지고 열정적이던 아내 사랑꾼 판쌤. 옆에서 보일 때마다 한 마디씩 칭찬하고 지나가셔서 항상 힘이 됐던 성희쌤. 좋은 기회. 좋은 사람. 좋은 공간 만들고 모아주신 가장 감사한 심쌤. 와서 가장 친해지기 편했고 그만큼 배려해주신 게 느껴졌던 규민쌤. 모든 쌤들한테도 많이 배웠고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심 현

십대가 십대를 도울 수 있다는 것. 기획단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다. 기획이라고 하면 어려운 것 같지만 십대도 배우고 해보면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함께 확인했다.

기회가 없었던 것 뿐이라고 생각한다. 십대에게 많은 권리를 부여해주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해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사람과 사람과 부딪히면서 얻는 배움도 좋았고 그런 배움이 기획 안에 다 들어가 있지 않나 싶다. 나에게 너무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다.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때 여기서 얻은 것을 기반으로 기획해 본다면 아예 처음하는 것보다 엄청난 효과를 볼 것 같다.



김지우

축제를 준비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못 모이거나 다같이 밥을 먹지 못해서 아쉬웠고 마지막 날에도 너무 아쉽지만 두근두근..했던 날이었다. 머리로는 상상 되는 게 너무 많았는데 실행을 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라는 걸 경험했다. 선생님들의 도움에 정말 감사했다. 생각해보면 쌤들이 스스로 그리고 우리끼리 해볼 수 있도록 보이지 않게 많은 노력을 해주어서 지금 느끼는 뿌듯함을 가져갈 수 있는 듯하다. 실패로 좌절할 수도 있던 것들은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행복한 추억으로 남을 수 있었다. 살면서 겪어야 할 수도 있는 상황들을 배우고 느끼고 다같은 마음과 목표를 가지고 무언가 이룬다는 건 큰 의미였다. 가볍게 시작했지만 점점 열정과 협동심으로 더 더 열심히 나의 시간과 모든 것을 투자해 하나의 축제를 만들어 냈다. 다신 없을 수도 있는 좋은 사람들과 기회들이 나에게 너무 감사하고 이 마을배움터가 사라지지 않고 항상 함께했으면 좋겠다.



안연우

평소 생각만 하던 것들을 현실로 옮겨 직접 해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즐거웠다. 또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었고, 내가 용기내어 실천해볼 수 있게 해주었다. 의욕 넘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여 더 즐거웠다. 그리고 십만원 프로젝트 친구들, 세프학교 친구들 모두 각자 열심히 해왔던 활동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영광스럽고 감사했다.



김세아

축제를 기획하면서 그 과정이 생각보다 정할 것도 많고 복잡하기도 했고 다들 처음 이어서 중간중간 문제들도 있었지만, 그만큼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다양한 사람들과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었던 경험인 것 같아서 또 하고 싶어요!



차우진

전체적으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축제를 기획했던 일이라 하는 활동마다 즐거웠고 재밌었다. 축제를 준비하면서 거쳤던 과정들도 크게 어렵지 않았었고 무엇보다 다들 하고자 하는 마음이 확실하게 있어서 좋았던 것 같다.



조서영

축제의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고 많이 서툴렀다. 실수에 질타는 없었고 눈물에 이

유를 캐묻지 않았다. 그만큼 다들 미성숙하고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었기에. 넘지 못한 허들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어디서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교육과 그저 너무 좋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음이 감사했고 축제에 손을 대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 마냥 좋았다.

온라인축제... 그 누구도 해본 적 없었고 표현의 공유는 한정적이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만든 축제이기에 잘 흘러간 것이라 믿는다. 뒤에서 비춰주고 믿어줬던 선생님들과 어수선했던 속에도 이해해주던 사람들 축제기획단. 우리 모두가 만든 축제다. 프로젝트와 축제를 통해 배운 것이 정말 많았고 좋은 사람들에게 받은 에너지와 칭찬과 용기로 남아있는 아쉬움을 모조리 털었다. **십만원 프로젝트**, 누가 보기엔 엉성하고 부족한 프로젝트였겠지만 **나에겐 완벽한 프로젝트였다.**

**STORY 5.**

보이지 않는 연결자, 짝꿍의 시선

**STORY 5.**

보이지 않는 연결자, 짝꿍의 시선

“

서로에게 비밀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을 것만 같은 사이.  
오랜만에 만나도 허허실실 편안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이.

‘멘토’라는 거대한 단어를 버리고, 짝꿍이란 단어를 선택한 이유다.

무언가를 가르치려 하는 선생님이 아니라,  
혹은 거대한 이야기를 쏟아내는 조연자가 아니라,  
그냥 옆에서 함께 걸어주는 동반자이길 바랬다.

”

**고민정** 나만의 베이킹(고은세), 내가 찾던 힐링(김진희),  
페이드아웃(정채영, 함주현), 그림그림(권도연)

**문성희** 내가 가는 길이 정답(이송희, 손민서), 우주조류(김지우),  
시간을 담은 사진(이승철)

**김준혁** 인파뿔뿔(천준영), 감성포켓(김준혁)

**이상현** 내 안에 우리 동네있다(권지원, 김혜원),  
Earth Project(홍유태, 강동현, 김경수, 조예준, 권순현),  
깽얼취방범대(김세아, 차우진, 손정희, 김이소, 유 민)

**정규민** 간지작살(김지우, 조서영, 장선주), COSMOS(임우석),  
텔레토비(안연우, 김태경, 이예진, 이지현)



고민정

작궁으로서

선생님과 학생, 담당자와 참여자 넘어  
사람 대 사람으로서 깊은 신뢰와 애정이 무엇인지  
경험을 나누는 일이지 않을까

”

연결자 보이지 않는 연결자 보이지 않는 연결자

작궁 고민정의 시선

나만의 베이킹

◇◇◇◇◇◇◇◇◇◇

고은세

눈빛과 몸짓만으로도 충분해

은세와 나는 2년째 십만원 프로젝트를 작궁으로 함께 했다. 주로 은세는 수줍은 미소와 함께 ‘네’, ‘아니오’, ‘좋아요’ 이외에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작궁인 나는 혼자 고민이 참 많았다. ‘어떻게 은세가 조금 더 표현하게 할 수 있을까?’ 은세를 알고 싶은 마음이 은세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속으로 발을 동동 구른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그렇게 2년을 함께 하며 은세를 통해 내가 가진 소통의 방식을 성찰했다. 꼭 말과 글과 같은 언어로의 표현은 내가 바랐던 방식이고, 나 혼자 알고자 했던 마음이 앞선 방식이었다. 무엇을 위해 무엇을 확인하려고 했던가? 청소년을 만나는 활동가로서 본질적으로 청소년을 만난다는 건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했다. 눈에 보이는 성장이 아닌 보이지 않는 성장을 더 귀하게 여긴다고 생각했지만, 저 밑바닥엔 나의 역할에 갇혀 은세를 일방적으로 확인하고자 했었음을 인정하고 반성했다.

정말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다. 활동가, 선생님을 위한 성장과 표현이 아닌 온전히 자기 자신을 위한 성장과 표현. 그 과정을 같이 걸어가고 가끔은 다리를 놓아주는 활동가는 청소년의 눈빛과 몸짓만으로도 충분함을 느낄 줄 알아야 했다. 그렇게 다시

본 은세는 누군가에게 자신을 전달하는 것보다 스스로 알아가는 것, 스스로 즐거운 것에 더 큰 매력을 느끼는 단단한 사람이었다. 내가 보지 못했던 것 뿐이다.

### 은세 스스로 만들어낸 배움

첫 해 십만원 프로젝트에서 은세는 반려동물을 위한 빵을 집에서 혼자 만들었다. 그리고 관계있는 어른들에게 선물을 하는 정도로 빵을 나누었다. 짝꿍으로서 아쉬운 점은 다양한 사람과의 접점이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홈스쿨링을 하기에 더 새로운 사람과의 접점을 만들어주고 싶었고, 그 접촉을 통해 은세가 새로운 자극을 만들어보았으면 했다. 은세가 좋아하는 빵을 중심으로 타인에게 먼저 다가가는 경험을 해보았으면 했다. 그렇게 은세의 세계가 조금씩 넓어졌음 했다. 그러던 중에 은세가 건강한 빵을 만드는 것을 주제로 두 번째 프로젝트를 시도했고, 이전엔 없던 다양한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아보고 싶다는 의견을 내었다.

다양한 사람들의 피드백이 필요함을 스스로 느꼈고, 그 피드백을 받는 과정에서 약간의 긴장감과 두려움 그리고 설레임이 공존하는 은세의 모습이 참 소중했다. 은세는 프로젝트 기간 동안 쉬지 않고 빵을 만들었다. 첫 번째 시도는 동네 공유카페에 그 빵을 시식하고 솔직한 피드백을 받아낼 수 있도록 '무인 시식 코너'를 설치했다. 경청하는 태도가 아름다운 은세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피드백을 깊게 받아드렸고, 피드백을 적용해서 계속해서 빵을 실험했다.

은세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찾아가 빵을 나눠보자는 제안을 했다.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나 비대면 시식평을 넘어 낯선 이들에게 은세가 직접 자기 빵을 소개하고 피드백을 요청하는 과정이 은세에게는 작고도 큰 도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처음엔 직접적인 관계가 적은 사람에게 빵을 건네는 것이 부담스럽게 다가온 은세였지만, 함께 기획하고 준비를 했고 십만원 프로젝트 다른 팀 친구들도 도와주는 과정이 생기니 점점 자신감이 생겨났다. 은세가 직접 도와줄 친구들을 찾았고, 빵 종류와 포장

까지 직접 했다. 빵에 대한 소개와 피드백도 직접 했다. 은세는 도움을 청할 줄 알고, 도움을 받는 법을 배웠다. 혼자 만드는 빵보다 용기 내어 직접 소개하고, 사람들과의 이야기가 담기는 빵이 더 소중함을 알았다. 무엇보다 은세가 만든 빵이 관계가 없던 식당 사장님, 카페 사장님, 택배 아저씨, 십만원 프로젝트를 함께 하는 친구들에게까지 작은 파동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

###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사랑하기

십만원 프로젝트 공유회였던 십만원 축제에서 은세는 모든 참여하는 친구들에게 직접 만든 쿠키를 집으로 배송했다. 그리고 그 쿠키를 만들었던 과정을 영상으로 보여주었다. “제가 꼭 대단한 사람이 된 것만 같아요”라고 이야기하는 은세의 모습에서 오히려 모두에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듯했다.

코로나였지만 은세는 은세답게 타인에게 다가가는 시도를 했고, 그들과의 이야기와 그 순간의 느낌이 또 다른 것을 시도하게 했다. 그리고 또 다시 새로운 베이킹을 시도하고자 한다.

작은 은세의 프로젝트 안에 우리는 서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으로 사랑하고 사랑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생각이 든다. 은세와 나 둘의 과정에서도, 수많은 이들이 은세에게 건네주었던 따뜻한 말들에도, 은세는 자신의 좋아하는 것으로 사랑을 주고받는 경험을 스스로 만들어갔다.

작공 고민정의 시선

내가 찾던 힐링

◇◇◇◇◇◇◇◇◇◇

김진희

### 차라리 혼자가 좋아요

진희와 19년, 20년 십만원 프로젝트를 함께 했다. 첫해에는 길고양이의 행복을 찾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20살이 된 20년도에는 자기 자신의 힐링을 찾는 프로젝트의 내용을 신청을 했다. 누군가를 위한 무엇이 아닌 온전히 나를 위한 것을 하고 싶어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zoom 화면 넘어 진희는 생각과 다르게 차가운 눈빛과 무기력한 말투로 일상을 대하고 있었다.

"혼자 있는게 나아요. 별로 외롭지 않아요.

사람이랑 엮이면서 받는 스트레스 보다 혼자 있는게 훨씬 나아요.

그냥 혼자가 좋아요."

- zoom 만남 중 진희의 이야기-

### 쉬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진희는 무엇이든 완벽하게, 열심히, 잘하는 십대였다. 그래야만 인정 받았고,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려 했고, 스스로 그런 방식으로 잘하고 있다고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지쳤지만 왜 지쳤는지 모르고, 회복하고 싶지만 어떻게 회복하는지 모르는 진희였다. 그저 막연하게 나만의 힐링과 쉼을 찾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만 있을 뿐이었다. 아무도 자기 스스로에게 손 내미는 틈이나 방법을 준 적이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 혹은 누구도 조건 없이 따뜻하게 손 내밀어주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이렇게 스스로를 자책하고 무기력의 늪에 빠진 친구가 진희만은 아닐 것이다. 온전히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줄 줄 아는 청소년이 얼마나 될까.

### 편안하지 않고 평온했으면 좋겠어

고민 끝에 진희의 무기력과 관계 안에서 희망을 발견해본 적 없는 듯한 차가움을 끌어 안아보는 것 이외엔 별다른 걸 건네지 않았다. 그저 조금 더 진희를 믿어주겠다고, 진희가 편안하지 않고 평온했음 좋겠다고 진심 어린 말을 건넬 뿐이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 집 천장만을 바라보며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평온한 시간을 위해 몸과 마음을 쓰길 바란다고 그 시간을 함께 하겠다고 진심을 전할 뿐이었다.

진희와는 '프로젝트'라는 말도 쓰지 않기로 했다. 해오던 관성으로 무언가 해내야 하는 강박에서 벗어나긴 쉽지 않겠지만 노력해보기로 했다. 그저 '김진희'의 온전함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다. 어찌보면 진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프로젝트 같지만 누구보다 치열하게 프로젝트를 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매 순간, 정말 이게 맞아?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시간이었다.

그러나 그 시간(프로젝트)을 통해 그래도 조금은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 내가 가야 하는 길들을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뭐 어떻게 보면 딱히 특별할 것 없는 그런 쉼이자, 소소한 행복이었지만 그 특별할 것 없는 그 시간이 난 듯 없이 좋았다.

나다워서. 온전히 나였기에.  
- 김진희 에세이 중에서 -

관계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은 삶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과도 같다. 무기력 무중력이라는 언어가 침대와 연결되어 나타나는 것은 관계 속에서의 깊은 애정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깊은 애정을 받고 신뢰를 받은 자만이 그러한 애정과 신뢰를 나누며 뜨겁게 살아갈 수 있다. 넘어져도 일어날 힘 또한 여기서 생겨난다.

십만원 프로젝트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한 시도에 책임져가는 과정이며 그 안에서의 배움을 만드는 것에 큰 의의가 있지만 짝궁으로서는 선생님과 학생, 담당자와 참여자를 넘어 사람 대 사람으로서 깊은 신뢰와 애정이 무엇인지 경험을 나누는 일이지 않을까. '살맛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누군가가 되는 일이지 않을까.

그렇게 진희는 십만원 프로젝트 지원금의 대부분을 먹고, 놀고, 사고싶은 것을 사는 것으로 사용했다. 사용내역만을 보면 탕진(?)한 느낌이지만, 그렇게 지원금을 사용하며 진희는 스스로 마음을 다독이는 진정한 방식이 가끔은 원하는 물건을 사는 것이기도 하지만, 가끔은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며 자신과 대화를 해보는 것이라는 걸 조금씩 알아간 듯하다.

짝궁 고민정의 시선

페이드 아웃

◇◇◇◇◇◇◇◇◇◇

정채영, 함주현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요

종종 영화를 만들어왔다는 채영이와 무엇이든 경험하는 걸 즐기는 주현이는 '누군가에게 심사받아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 진심으로 우리가 원하는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이유로 십만원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대한민국에서 18살은 입시 혹은 취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차곡 차곡 해나가야만 하는 시기이다. 그 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허락되기 쉽지 않다. 성공적인 입시와 취업을 위해선 좋은 스펙이 필요하고, 좋은 스펙일 수록 누군가의 의한 강력한 심사와 평가는 따라오기 마련이다.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는 건 사치일 뿐이며, 심사기준은 나의 기준이 되어간다.

하지만 채영이와 주현이에게는 스펙보다 '진심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싶어했다. 나의 선택을 스스로 믿으며 이기는 법 말고 즐기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했다. 누군가의 의한 평가와 경쟁에 익숙해지기 보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즐길 수 있는 것의 감각을 잃지 않으려는 이들의 모습이 아름다웠다. 누군가는 쓸 때 없는 것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결에서 그 과정을 지지하고 싶었고 더 즐길 수 있도록 함께 하고 싶었다.

부모님에겐 비밀이에요



주현이는 자신의 진로를 아직 모르겠다고 했다. 춤도 잘 추고, 그림도 잘 그리고, 연기도...노래도... 좋아하고 잘하는 친구다. 다재다능한 주현이는 아무래도 문화예술 활동이 좋은 듯했다. 하지만 부모님은 좋은 대학에 가는 것 말고 다른 것을 허락하거나 주현이의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지 않는 듯 했다. 주현이 스스로도 부모님이 원하는 딸로서의 역할을 잘 해내고 싶은 듯했다.

결국 주현이는 프로젝트 기간 내내 부모님에게 들키지 않는 것을 선택했다. 그런 주현이는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하는 건 힘이 들지만 내가 하고픈 것을 꾸준히 해나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응원하고 독려하고 있었다. 부모의 거절과 스스로가 만드는 부정과 불안에 부딪히기도 전에 이미 피하는 것을 선택했다. 이 작은 시도조차 비밀로 해야 한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했다. 하지만 주현이가 현재 내린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을 있는 힘껏 지지해주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나와 비슷한 상황을 가진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다.

많은 경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많은 경험을 토대로  
자기가 원하는 길을 선택하길 바란다. 하지만 너무 성급하지 않아도 된다.

나도 이제 19살 되지만 아직 선택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지금 놓여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지금 놓여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가까운 미래든 먼 미래든

선택할 상황이 놓일 때 노력을 안 했을 때의 선택보다

훨씬 나은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 주현의 리뷰 중에서 -

18살, 19살... 지금 당장 타협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당장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 저마다의 속도가 다른 것이다. 주현이는 스스로의 선택과 방식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인 듯하다. 그리고 그 시간을 함께 걸어주는 동료와 어른이 되어주고 싶다. 주현이의

시간과 속도 안에서 어느 날, 포기과 타협을 통한 선택보다 더 강력한 온전한 주현이만의 선택이 삶을 채우는 날이 올 것이다.

우리는 망했어요(웃음)

채영이와 주현이는 이번에 만든 영화를 망했다고 한다. 그런데 표정은 웃고 있고 심지어 신이나 보인다.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도 다 담지 못했고,

촬영하면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변수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하면서 행복했어요.

그러면 된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망했어요.(웃음) 안에 채영이와 주현이가 얻은 것이 다 담겨져 있다고 생각되었다. 당장 결과를 내야 하는 것이 급한 것, 경쟁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것을 넘어 내 속도대로 내 취향대로 천천히 걸어가는 것이 꽤나 괜찮다는 것을 그리고 심지어 너무 즐겁다는 것을 알게 된 듯하다. 성공보다 더 멋진 건 ‘나 다올 때’이니까. 십만원 프로젝트가 끝이 나더라도 주현이와 채영이를 묵묵히 응원하고 싶다.

짜깁고민정의 시선

그림그림

◇◇◇◇◇◇◇◇◇◇

권도연

흔들리는 사람은 아름답다

도연이를 보며 ‘앓’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는 생각을 종종했다. 페미니즘을 주제로 한 그림책을 만들기 위해 함께 공부를 할 때에 도연이는 자주 이런 말을 했다.

“아직은 모르는 것도 정말 많고

올해 내가 공부한 건 새발의 피도 못 미치니까요.

매일 매일 실구도 엄청 많이 하고 지구도 마구 더럽히며 살아가고 있는

죄 많은 인간이니까요. 저는 그저 덜 유해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모습이 좋은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로 다가왔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삶 속에 숨고 싶기도 하고, 피하고 싶기도 한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도연이만의 고유성을 찾아가고 하는 흔들림으로 보이기도 했다. 전하고 싶은 이야기,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는 삶의 모습이 마음 속에 가득 차 있어서 더 조심스러워 보이기도 했다.

도연이가 아름다운 가장 큰 이유이다. 아직은 마음 속에 품고 있는 무언가가 잘 꺼내려지지 않고, 자꾸만 뽀뽀뽀뽀하며 방황하게 되는 그 마음의 상태가 더 좋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아름다운 흔들림이라는 걸 도연이가 꼭 알았으면 했다

스스로 만든 시간, 그렇게 배워간다

계획했던 그림책은 만들지 못하고, 계획했던 걸 지켜가지도 못했다. 그렇게 프로젝트는 미완성된 채로 끝이 났다. 하지만 도연이는 스스로 배움을 만들어갔다. 모모학당에서 만난 정아작가를 직접 찾아가고, 정아작가가 추천해준 책을 읽었다. 그리고 그 책의 출판사 대표에게 용기내어 만나달라는 글을 보냈고,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도연이는 프로젝트 기간 동안 지구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덜 유해한 사람이 되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스스로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나에게 응원을 해줄 수 있는 어른을 찾아갔다. 우연처럼, 운명처럼 생겨나는 작은 사건들을 스스로 엮어갔던 그 힘으로, 세상은 아직 살만한 곳이라는 걸 자기 존재로부터 그렇게 증명해나가길 진심으로 응원한다.

문성희



청년때의 나를 돌아봤고, 지금의 나를 마주했다.  
그 힘이 있음이 나는 행복이라 생각한다.  
그 힘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십대, 청년, 어른이기를...

”

연결자 보이지 않는 연결자 보이지 않는 연결자

작공 문성희의 시선

우주조류

◇◇◇◇◇◇◇◇◇◇

김지우

제 이야기를 써볼래요...

지우는 19년에 이어 20년도에도 십만원프로젝트를 신청했다. 19년도 청소년 자해를 주제로 책을 쓰고 싶어했던 지우는 20년도에 그 프로젝트를 이어서 끝 마치고 싶어했다. 나도 19년도에 이어 20년도 지우와 다시 만나게 되었다. 처음에 우리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자해에 대한 글을 쓸까? 그리고 어떻게 책을 낼까?" 고민을 이어갔다. 나 또한 어떻게 답으면 좋을지 고민하며 지우의 프로젝트를 도왔다.

그런데, 지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다. 약속한 것은 항상 꼬박꼬박 지키던 지우가 약속을 잊기 일쑤였고 점점 무기력해짐을 느끼게 되었다. 지우가 울었다. 자기를 짓누르던 우울감을 이기지 못했다. 호기롭게 시작한 프로젝트 였지만 상황에 따라, 상태에 따라 멈출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지우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기를 바랐다.

얼마쯤 시간이 지났을까? 늦은 밤 지우는 내게 톡을 보내왔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여전히 감이 안 잡히긴 하지만 에세이를 써 볼까 하며 그린 그림이에요.

조사가 필요한 거창한 글 말고, 그냥 제 이야기요.

선생님은 잘 지내고 계신가요?"

"지우가 전네는 안부 인사 너무 반갑다.

거창한 이야기 말고 지우 이야기를 쓴다니 더더더 반갑고 :)

마음 다스리기도 힘든 시기에 잊지 않고 연락주는

지우 마음 씬씀이는 너무 고맙고ㅎ"

마음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우는 내게 안부를 물었다. 그게 참 고맙웠다. 그렇게 지우는 자기 스스로의 이야기를 글로 쓰고 그림으로 그려보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써내려가는 글의 주인공이 되었다.

### 우리는 모두 우주조류

지우는 가끔 내게 긴 글을 보내 왔다. 자기가 느꼈던 감정을, 자기가 느꼈던 마음을, 그리고 지난날 아무렇지 않은 일이라 생각하며 보내왔던 일들에 대한 감정을 차곡차곡 글로 썼다. 나는 지우의 글들이 아팠다. 하지만 아픈 만큼 상처가 아물고 있다는 느낌도 받았다.

"이 글은 그렇게 잃어버린 존재가치를 찾기 위해

내가 떠난 여행에 대한 기록이다. 모범생 행성에 발 딛고 있던 내가

어쩌다 집을 잃어버리고, 웹소설 작가라는 정체성을 향해 열심히

버둥버둥 날아갔으며, 또 그 정체성마저도 나에게 존재가치를 주지 못하자

다른 행성과 별들에 깔짝거리게 되었는지.

또한 나처럼 길을 잃고 표류하는 모든 여행자들을 위한 안내서기도 하다"

- 처음 내게 보내준 지우의 글 -

지우는 스스로를 우주에 표류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혹은 누군가가 나의 자리라고 만들어 준 자리가 더 이상 나의 자리가 아니라고 느끼는 순간 나의 존재는 사라지고 만다. 그리고 부유하기 시작한다. 부유함은 때론 나를 가지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에겐 부유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중력을 거스르는 힘.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내가 아닌 나 스스로 만드는 나. 나는 그 힘이 청소년 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주체성이라는 말로 다 담지 못하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통용되는 언어로 이야기 한다면 주체성이라는 말이 맞는 듯 싶다.

지우는 자기 이야기를 글로 쓰며 부유하는 자신을 유유히 바라보았고,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중력을 만들어 가기도 했다.

### 행복에 관하여

지우와 한때 하루 한가지씩 질문을 던져보자고 이야기 했던 적이 있었다. 그때, 지우가 했던 첫 질문이 "왜 성공한 어른들조차 만족하지(행복하지) 않은 걸까?"였다.

난 이 질문에 지우에게 행복이란 무엇인지 물었다.

"불행하지 않은 것과 행복, 그리고 기쁨은 모두 다르다 생각해요.

불행하지 않은 것은 행복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며 행복과 달리

기쁨은 불행할 때조차 느낄 수 있지요.

하지만 행복 자체가 무엇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시적인 감정(그건 기쁨)이 아니라 생활전반적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상태라는 점이 중요하겠네요"

- 행복에 대한 지우의 답 -

삶에는 고난이 있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그 고난을 어떻게 마주하는가는 다른 문제다. 나의 삶 전반에 흐르는 에너지가 무엇일까? 그 힘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지우는 지금 우주조류로 우주를 부유하고 있지만, 지우는 자기 스스로를 직면했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려 글을 썼다. 그 힘은 아마 지금의 시간을 지난 지우에게 큰 힘으로 돌아올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지우를 보며 나 또한 청소년 때의 나를 돌아봤고, 지금의 나를 마주했다. 그 힘이 있음이 나는 행복이라 생각한다.

그 힘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십대, 청년, 어른이기를 ...  
모두 행복해지기를 ...

짜깁 문성희의 시선

내가 가는 길이 정답

◇◇◇◇◇◇◇◇◇◇

이송희, 손민서

내가 가는 길이 정답

민서와 송희는 야자 시간에 잠시 머리를 식히러 나왔다가 학교 게시판에 붙어있는 포스터를 보고는 ‘이건 꼭 우리가 해야 한다’며 서로의 눈빛이 통했다고 했다. 민서와 송희는 무려 고3이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신청이 반갑고 고마웠다. 공부만 하기에도 벅찬 시간에 아이들이 눈을 돌려 숨 쉴 공간을 찾았다. 그리고 그 장소에 발걸음을 옮겼고 무언가 시도해 보려 손을 움직이고 있었다. 프로젝트이름 또한 무려 “내가 가는 길이 정답”이다. 이 얼마나 용기롭고 패기로운 모습인가?

고3이 고3을 응원합니다.

고3이라는 문장만 봐도 마음이 어렵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불안하고 공부를 해도 불안하다. 내 미래가 온통 지금 이 순간에 달려 있는 것만 같아 겁이 난다.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 불안을 함께 헤쳐가야 할 동료가 아니라, 제껴(?)야 할 경쟁자라 생각한다. 하지만 모든 고3이라는 존재가 친구들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만은 아니다. 민서 송희는 고3이라는 이 세계를 함께 헤쳐가는 동료와 동지의 마음으로 힘든 입시스트레스를 같이 날리자 이야기 나눈다. 고3이 고3을 응원한다. 감동스럽다.

## 8시간 쿠키를 굽는다는 것

같은 고3에게 달다구리한 간식을 주기 위해 민서와 송희는 8시간동안 쿠키를 구웠다. 십만원 프로젝트를 함께 했던 은세에게 쿠키 만드는 법을 배웠다. 밀가루를 체에 치고, 반죽하고 오븐에 구웠다. 한두번은 재미지만 그 순간을 넘어서면 이제 정신력(?) 싸움이 된다. 버터냄새와 설탕냄새가 정수리 끝을 자극한다. 그럼에도 순간순간 간식을 함께 나누는 기쁜 상상으로 그 시간을 견뎌낸다. 송희는 쿠키를 굽는 당일, 엄마에게 공부를 하겠다고 집을 나섰고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좌불안석이 되었다. 그모습이 짝하고 쩔었다.

“저희도 똑같은 고3으로써 어떻게 하면 기분이 좋아질까 생각하던 중  
달다구리 한 간식을 전해 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모두 꽃길만 걸으세요”  
- 간식 상자에 담은 민서 송희의 편지 -

그렇게 구운 쿠키를 반 아이들 그리고 십만원프로젝트를 함께한 고3아이들과 나누며 따스한 응원을 전했다.

## 우리 서로가 서로를 응원할 수 있기를 ...

응원 : 곁에서 성원함. 또는 호응하여 도와줌

성원 : 하는 일이 잘되도록 격려하거나 도와줌

위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우리는 사회 속에서 응원함을 배우기보다 경쟁하기를 먼저 배운다. 경쟁 구도 안에서 아이들은 시기 질투를 배우고, 피해의식을 배운다. 그렇지만 응원하는 관계 속에서는 사랑, 우정, 낭만을 배운다. ‘시, 미, 사랑, 낭만은 삶의 목적이라는 영화의 대사처럼, 십대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아름답기를 바란다.

## 짜깁 문성희의 시선

## 시간을 담은 사진

◇◇◇◇◇◇◇◇◇◇

## 이승철

## 사진에 담긴 시간, 그리고 마음

사진에는 무엇이 담길까? 사진을 찍은 사람은 사진의 프레임을 넘어서 다른 무언가를 사진에 담는다. 그날의 분위기가 일 수도 있고, 사진을 찍었을 당시의 내 마음 상태 일 수도 있다. 때로는 몇 겹의 시간을 기다려 찰나의 아름다움을 잡아내기도 한다. 승철이는 사진에 그날의 분위기가 담겨 좋았다고 했다. 그래서 사진 찍는 걸 좋아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승철이의 인스타그램에는 다양한 하늘이 존재한다. 다양하게 존재하는 하늘만큼 승철이의 그 순간의 마음이, 분위기가 담긴 듯했다.

이번 십만원 프로젝트에 승철이는 마음껏 사진을 찍으며 그 시간을 온전한 승철이의 시간으로 만들어 보고자 했다. 이제 곧 고3이 되는 승철이는, 지금을 잘 누리고 싶어했다.

## 그 마음을 연결하는 공간 - 전시

승철이는 전시를 무척이나 기대했다. 전시를 위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2019년 십만원프로젝트 결과 공유회에 참여 한 승철이가 친구들의

전시한 결과물을 보고, 본인도 자신의 사진을 전시 해 보고 싶은 꿈을 키웠다. 그런 데 아쉽게도 승철이는 개인 사정으로 중요한 시간에 참여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것을 대신해 전시기획팀이 승철이의 전시를 진행해 주었다. 승철이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그 분위기를 내기 위해 열심히였다.

### 이제 19살이 된 승철이

승철이는 공부도 열심히 하는 친구였다. 꿈이 선생님이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공부했다. 그 와중에 스스로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아이였다. 다양한 것을 즐기고 싶어 했고 경험해 보고싶어했다. 특히 고3이 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시간에 쫓기기도 하고, 시간을 만들지 못하기도 한다. 승철이가 자기 꿈을 위해 스스로 선택한 것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면에는 19살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규정 할 수 밖에 없는 사회의 모습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미하엘엔테의 모모라는 소설책에서 나오는 회색 신사가 19살의 시간을 뺏어가는 것 같기도 하다. 지금 이 시대의 회색 신사는 누구일까?

승철이가 19살이 되어서도 지금의 프로젝트 시간을 기억하며, 조금 숨 쉬고, 조금 여유롭게 자기의 시간을 만들어가길 꿈꾼다.



성공 여부를 떠나  
각자에게 질문이 남게 되었다는 것에  
박수를 보낸다

”



짜깁 김준혁의 시선

인파와 파

◇◇◇◇◇◇◇◇◇◇

천준영

### 자기 자신의 속도 대로

첫 만남에서 느껴진 준영이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누구보다 진지한 친구였다. 학교 생활과 공부하는 시간을 누구보다 치열하게 보내면서 한편으로는 진로에 대한 고민이 누구보다 깊어 보였다. 고민은 깊지만,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모습 때문인지 어떤 방향성이 있는 공부를 하기보다, 일단은 해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공부하는 느낌이 더 강한 친구였다. 초반에는 다른 십만원 프로젝트 친구들처럼 하고 싶은 것, 해보고 싶은 것이 뚜렷하게 그려진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준영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대부분 가졌었다. 나의 생각을 많이 전하기보다 준영이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속에서 프로젝트로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는 과정을 가졌다.

### 막연함을 구체적으로

준영이가 존경하는 한 인권 변호사가 있다. 직업에 대한 동경보다 사람에 대한 동경과 지향하는 삶의 방식에 대한 동경이었다. 준영이 또한 누구보다 진지하게 그 꿈을 꾸고 있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일반 변호사가 아닌 “인권 변호사”라는 구체적인

꿈이었다. 꿈은 꾸지만 실현하기 위한 과정은 구체적이지 않았기에 준영이 스스로도 꿈과 진로가 명확하지 못해 찾고 싶은 욕심이 강했던 것 같다. 그래서 새로운 것에 대한 시도보다는 준영이 스스로가 갖고 있지만 명확하지 않은 욕망을 다른 방식으로 시도 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생각했다.

### 한 번 해보겠습니다.

준영이와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어본 말이 “한 번 해보겠습니다.”였다. 스스로 원하는 꿈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것을 공부해 볼 수 있는지, 무엇을 보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먼저 스스로 시도해보고 경험해보는 것에 두려움보다는 진지한 모습이 느껴졌다. 하지만 한편으로 아쉬웠던 것은 스스로 힘을 낼 수 있는 친구이지만 현실에서는 결국 학교와 학원에 매여 있어 자신이 해보고 싶은 것들이 우선 순위에서 밀려지는 모습이 보일 때였다. 그렇지만 딱딱한 시간 속에서 준영이는 스스로의 첫 프로젝트를 잘 마쳤다. 인권에 대해 찾아보고, 인권 관련 책, 인권의 역사를 읽고 정리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반 친구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며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인권 문제에 대해 들여다보는 시도 또한 해보기도 했다. 한 번 해보겠다는 말은 쉽다. 그러나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엔 작은 용기만 필요하다. 그러한 용기와 실행력은 이미 준영이는 갖추고 있다.

짜꿍 김준혁의 시선

감성포켓



김려은 유 민

### 감성적인 아이들

유민이와 려은이의 첫 만남은 가볍게 시작했다. 프로젝트 초반에 프로젝트의 계획 이야기를 하면서 이 친구들이 하고 싶은 것은 옷이 좋아서, 옷과 관련된 작업을 사회 문제와 연결해 보는 시도의 프로젝트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사실, 가벼운 마음으로 이 친구들이 해보고 싶은 것들을 옆에서 지켜봐주고 응원해주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계획한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이 친구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이유와 과정들이 단순하지 않음을 서서히 알아가게 되었다. '사회적 문제'에 대한 메시지 전달이 사실은 이미 전부터 스스로 느끼고 있던 문제와 질문에서 출발한 주제 였던 것,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스며들어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은 이미 충분히 담겨져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의 목소리를 어떻게 모아 낼지, 그리고 그것을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표현 할지는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다.

### 감성이 목소리로

대한민국 청소년으로서 내가 관심 있는 것, 해보고 싶은 것을 유쾌하고 즐거운 방식으로 풀어내기란 쉽지만은 않은 것 같다. 내가 갖고 있는 감각, 시선, 고민들이 우선시 되기 보단 사회의 요구와 주변의 분위기에 따라갈 수 밖에 없는 환경적 요인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거나 해보고 싶은 것들을 시도 하기란 많은 에너지를 쏟게 만든다.

유민이와 려은이는 각자가 갖고있는 감성과 내보고 싶은 목소리를 이 프로젝트를 통해 시도하고 부딪히며 경험했다. 타인의 목소리에 이끌려가기 보단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어 3달이라는 시간 동안 몰입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각자가 스스로 기획하고 만들어간 프로젝트를 통해 앞으로의 대한 고민이 깊어지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보고 싶은가에 대해 느꼈다고 한다.

짜꿍으로서 이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를 떠나, 각자에게 그러한 질문이 남게 되었다는 것에 박수를 보내주고 싶다.

이상현



작지만 소중한 것들을 모아내는 작은 조각이 되었길 바란다

”

연결자 보이지 않는 연결자 보이지 않는 연결자

짜깁 이상현의 시선

내 안에 우리동네 있다

◇◇◇◇◇◇◇◇◇◇

권지원, 김혜원

동네를 담아보고 싶어요

코로나로 인해 일상이 변하기 시작했다. 많은 것들이 통제되고 일상의 속도가 느려짐에 보이는 것들이 있기 마련이다. 지원, 혜원 두 아이는 그것이 동네였고, 일상의 사진들을 지금의 조각난 일상들을 다시 맞춘다는 의미로 퍼즐로 만들어보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멈춰버린 시간이라고 생각했었지만, 그 안에서 무궁무진한 꿈을 꾸고 있는 모습이 나를 반성하게 하기도 했다. 무언가 기회가 주어지길, 코로나가 종식되길 기다리고 있는 마음이 아닌 이 상황에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 라고 먼저 고민하는 모습들이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지 이야기 해주는 것 같았다.

일상의 예술가

두 아이의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물론 학교의 일정과 코로나로 제한되는 것들 때문에 하고 싶은 것들을 진행하지 못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동네를 관찰하는 행위는 멈추지 않았다. 심민원 프로젝트의 공유회였던 심開판(10대들이 여는 판)에서 지원, 혜원은 둘만의 전시를 열었다. 소중하게 담은 일상들을 잘 정리

해서 보여주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여전히 어색하고 수줍은 목소리지만 처음보다 힘이 생겼다. ‘익숙하지만 소중한 지금의 풍경들이 사라질까 봐’라는 말들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

두 아이의 상상으로 시작된 동네의 작은 일상을 담은 프로젝트가 마을배움터라는 곳을 통해 세상으로 뻗어 나가는 순간이었다. 작은 것들도 크게 바라보고, 평범한 것도 소중하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될 것 같다. 공유회를 준비하던 두 아이는 스스로 문을 찾았다 첫발을 내가 딛는 순간이었다. 여전히 두 아이는 수줍은 표정을 짓고 이야기하지만,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이 두 눈이 반짝거린다.

### 일상을 다르게 바라보기

같은 풍경, 같은 골목, 같은 사람들을 보며 매일 같은 일상을 보낼 때, 우리는 여행을 꿈꾸거나 새로운 그것에 대해 상상을 하곤 한다. 하지만 ‘내 안에 우리 동네 있다’의 활동처럼 동네를 다르게 바라보는 것은 늘 같은 색의 일상에 새로운 색을 더해주는 일이다. 아이들의 과정을 바라보며 너무나도 빠르게 살아가는 요즘의 모습을 반성하게 되기도 했다. 조금 느리게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때로는 멈춰서 스마트폰을 들고 사진을 찍어보기도 하고, 옥상에 올라가 쉼의 여유를 가지는 것 역시 동네를 다르게 바라보는 것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여행이 다르게 보이는 것도 쉼이 동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일을 매일 해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두 아이의 이번 경험, 나 중에 편안한 쉼과 동네를 새롭게 바라보며 작지만 소중한 것들을 모아낼 수 있는 지역의 작은 조각이 되었길 바란다.

짜깁 이상현의 시선

### EARTH PROJECT

◇◇◇◇◇◇◇◇◇◇

홍유태, 강동현, 김경수,  
조예준, 권순현

### 내가 밟고 있는 지구

십만원 프로젝트는 새로운 시도를 할 용기를 얻을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원래 해오던 활동을 더 에너지를 쏟을 기회가 될 수 있다. EARTH 프로젝트팀 역시 사회 문제에 대한 UCC를 친구들과 즐겁게 작업하던 팀이었다. 공모전에서 수상도 하는 실력 있는 팀이었고 이번에는 마을배움터와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대한 영상을 제작해보고자 했다.

학교 친구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모금을 진행하고 그린피스에 기부하는 프로젝트. 기후위기 문제로 떠들썩한 요즘, 19살의 친구들이 만들어낸 프로젝트는 어른들에게 또한 또래 친구들에게 좋은 모습이 되었다. 아직 청소년인 어린 친구들에게는 현실로 닥친 문제들이다. 자신이 나이를 먹었을 때 지금의 온화한 지구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의 지구가 우리를 여름의 모기처럼 잡아내고 싶고, 없애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 그래도 조금씩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고, EARTH 프로젝트팀 역시 그 목소리에 5명의 힘을 보탠 것은 모두에게 힘이 되어주었을 것이다.

사실 도와준 것은 별로 없다. 응원해주는 것, 고민이 있을 때 같이 고민해주는 것 원래 계속 작업을 하고 있던 팀이라서 스스로 자신의 과정들을 잘 만들어나갔다. 오

히려 도와줄 것이나, 필요한 게 없는지 짝꿍이 기웃기웃하는 모습이 더 많았던 것 같다.

### 지금의 열아홉은 무엇일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고3은 수험생, 입시생 등 많은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고 있다. 때로는 20살이 인생의 끝인 것처럼 달려가는 친구들 역시 많다. 하지만 다시는 오지 않을 열아홉을 생각하면 이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십대로서 세상에 목소리를 내는 일이 그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학원과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수능 점수를 위해 1년을 보내는 열아홉이 대부분이지만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만드는 일, 즐거운 시도나 실험들을 해보는 일은 이후 청년이 되어서 크게 자라날 수 있는 씨앗을 만드는 일이라 생각된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유태, 경수, 순현, 동현, 예준 다섯 친구에게도 작은 씨앗들이 생겨났길 바란다.

짝꿍 이상현의 시선

### 갱얼쥐 방법대

◇◇◇◇◇◇◇◇◇◇

김세아, 차우진, 손정희

김이소, 유 민

###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

혜화여고에 다니는 5명의 아이들이 진행한 프로젝트인 ‘갱얼쥐 방법대’의 활동은 이전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학교에서 역시 공식적인 동아리가 아닌 자율동아리로 별다른 지원 없이 활동을 계속해왔다. 하지만 고등학생 신분으로 이런 활동에 자신의 용돈을 쓴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으니 힘도 빠지기도 한다. 그러던 중 10만원 프로젝트를 만났다. 선생님들과 함께 반려동물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고, 다른 친구들에게 응원도 받으며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열아홉에 쉬운 일은 아니다. 학교에서는 공부하고 자신의 시간을 잘 쓰기 위해 자신들만의 회의록도 작성하고 효율적인 방법들을 많이 고민하기도 했다. 가끔은 활동가보다 더 활동가다운 아이들이다. 저런 에너지는 어디서 나올까. 고민을 해봤지만 결국 사랑과 관심이다. 사실 간단한 문제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 요즘의 바쁜 사회에서 너무 당연하지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잊고 사는 것 중 하나다. 이 아이들은 계속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 이타적인 아이들

현재 한국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약 1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한다. 대한민국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우리와 다른 작은 생명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은 아직 낮은 수준이다. 여전히 강아지 공장에서 자유가 없이 번식만을 위한 ‘기계’ 취급을 받는 생명도 너무나 많다. 길을 다니다 보면 펫샵이 즐비하고, 사람들이 바글거린다. 쉽게 생명을 사고파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 5명의 아이들은 이런 문제들이 사람들의 잘 알지 못해서가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한다.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생명에 대해 조금 더 공부하고 사랑을 하다 보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숨’ 역시 많은 길고양이가 캣타워(?)처럼 이용하고 있고 ‘무결’이라는 생명이 함께 일상을 보내고 있다. 5명의 아이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 별생각 없이 동물들을 보고 지내던 나도 다른 시각과 인식들이 생기고는 한다.

사람으로 살아가는 ‘나’도 중요하지만 작고 힘없는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괜히 반성하게 되기도 한다. 함께 1년을 보내면서 동네에 있는 길고양이들, 강아지들도 맘속으로 작은 감사를 보내고 있을 것이다.



정규민

프로젝트는 하나의 계기이지  
목적은 아니다

”

보이지 않는 연결자 보이지 않는 연결자 보이지 않는 연결자 보이지 않는 연결자



짜깁 정규민의 시선

## 간지작살

◇◇◇◇◇◇◇◇◇◇

김지우, 조서영, 장선주

### 우리는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나에게 처음이란 단어가 주는 느낌은 설렘, 긴장, 기대의 감정이다. (물론 모든 '처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간지작살 친구들을 마주하는 첫 순간도 나는 설렘과 기대도 됐지만, 긴장했다. 숨에서의 첫 만남은 함께 결정하고 판단하는 자리다. '면접'이라는 이름으로 '합격과 불합격'의 선택지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닌, 청소년과 활동가가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알아가며 함께하면 좋을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지를 함께 결정한다.

간지작살(지우, 서영, 선주)과의 첫 만남 역시 나에게서는 그런 자리였다. 친구들이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을 충분히 듣고 질문하며 숨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것. 자신들의 악세사리를 제작해 SNS로 판매하겠다는 이 세 명 친구들의 생각은 작년의 비슷한 프로젝트를 준비했던 다른 친구들의 사례로 비춰봤을 때 분명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프로젝트일 수 있지만 그런 상상과 에너지 자체가 좋았다. 나는 아이들의 계획 속 '현실 가능성'보다는 아이들의 '가능성'을 봤던 것 같다. 이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느껴지는 즐거움, 기대, 말하는 순간에서 느껴지는 푹푹푹푹함이 프로젝트 과정에서 결과를 위한 것만이 아닌 분명 자신들의 즐거움과 의미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잠시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했다.

프로젝트 첫 만남 이후 나와 아이들과의 만남, 아이들끼리의 움직임도 잠시 멈췄다. 코로나-19라고하는 이전에 겪어본적 없던 이 상황 속에서 아이들은 이동을 줄여야 한다는 필요성, 부모님의 눈치, 스스로의 걱정 등으로 활동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짜깁인 나 역시도 닫힌 공간, 어색한 비대면, 그 상황 속 대처의 한계로 우리의 십만원 프로젝트는 잠시 멈췄었다. 나도 그리고 이 친구들도 기존과는 다른 방식과 상황에서 잠시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했다.

### 익숙한 것과 낯선 것

십만원 프로젝트는 각자가 하고 싶은 상상과 실험을 직접 해보고 만들어갈 수 있는 자리다. 또한 그 과정과 시행착오들을 기록하며 함께하고 있는 다른 친구들과 공유한다. 간지작살 친구들에게 악세사리를 만들고 꾸미는 것은 익숙한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과 생각을 공유하는 것은 낯선 것이다.

넘지 못한 허들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어디서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교육과

그저 너무 좋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음이 감사했고

축제에 손을 대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 마냥 좋았다

- 간지작살 서영이의 글 중에서 -

간지작살 친구들에게는 이 십만원프로젝트가 각자의 취미와 즐거움으로 해왔던 것들이 함께 하는 프로젝트가 되고, 함께 공유하는 경험이 됐다. 각자에게 익숙한 것과 낯선 것을 넘나드는 경험을 만들어가며 의도한 결과는 아니더라도 자신들의 과정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즐거움을 찾아가는 경험을 만들어갔다.

짜깁 정규민의 시선

COSMOS

◇◇◇◇◇◇◇◇◇◇

임우석

### ‘제 꿈은 예술가입니다’ 라는 첫 문장

‘제 꿈은 예술가입니다.’ 우석이의 십만원프로젝트 신청서의 첫 문장이다. 이 한 문장이 우석이의 짜깁을 하고 싶어지게 되는(?) 매력적인 한 문장이었던 것 같다. 나의 청소년 시기를 돌아봐도, 요즘의 청소년들을 만나봐도 자신의 꿈이 예술가라고 당당히 말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 (나에게는 처음이었다.)

우석이의 꿈은 예술가였지만 우석이가 보내고 있는 일상은 예술적 경험과 실험을 만들기엔 너무 바빴다. 우석이가 진행한 십만원프로젝트의 팀명(프로젝트명)은 ‘cosmos’였다. 흔히 알고 있는 꽃이 아닌 우주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나에게 말해 줬다. 우석이가 보내고 있는 일상은 바빴지만 ‘우주’라는 그 단어가 주는 힘과 가능성처럼 자신의 프로젝트를 매우 꾸준히, 그리고 즐겁게 만들어 갔다.

### 나를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

우석이의 원래 계획은 자신의 영상에 들어갈 음악을 직접 만드는 것이었다. 우석이와 연락을 하고 지내며 처음에는 음악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점점 우석이는 스스로

새로운 시도들을 해보기 시작했다. 석고로 자신의 손을 본떠 만들어보기도 하고, 그림을 그려보기도 하며 음악뿐 아닌 자신이 생각했던 예술과 표현하고 싶은 모습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냥 저의 다양한 생각, 모습들을 작품들에 담아보고 싶었어요.”

우석이의 이번 십만원프로젝트 과정은 출발점이었다. 평소엔 생각으로만 품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고,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였다. 올해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우석이가 완료한 작품은 없었다. 그리고 끝낼 필요도 없었다. 십만원프로젝트는 하나의 계기지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다.

### 아직도 내 자리엔 우석이의 권리증이...

숨에서는 십만원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친구들에게 매년 ‘시도하고 실패할 권리증’이라는 작은 증서를 준다. 그리고 우석이는 아마 올해 이 시도하고 실패할 권리증을 유일하게 받지 못한 친구이다. 코로나로, 먼 거리로.. 참 많은 연락은 했지만 정작 우석이와 만나지 못했던 한해였다.

내 자리에는 아직도 우석이의 이번 십만원프로젝트 시도하고 실패할 권리증이 있다. 코로나로 닿기 어려웠던, 우석이가 보내고 있는 학교, 학원의 바쁜 일상, 그리고 숨이 있는 강북구와 우석이가 살고 있는 송파 사이의 거리. 내 손바닥만한 크기의 시도하고 실패할 권리증이지만 작지 않은 사연을 품고 있는 권리증이기도 하다.

21년에 우석이에게 꼭 이 〈시도하고 실패할 권리증〉을 전해주고 싶다.

짜깁 정규민의 시선

텔레토비

◇◇◇◇◇◇◇◇◇◇

안연우, 김태경, 이세진  
이지현

### 학교동아리에 대한 아쉬움

텔레토비 친구들은 원래 학교동아리로 보컬부를 함께 하던 친구들이다. 학교동아리로는 학교축제를 제외한 다른 무대에 올라가는 것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경험에도 한계가 있었다. 그 아쉬움과 한계를 조금이나마 벗어나보기 위해 이번 십만원프로젝트를 함께 하게 됐고, 이 친구들이 주제로 잡은 것은 ‘버스킹’이었다.

### 현실적 어려움과 제약

‘버스킹’은 길거리에서 공연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2020년은 코로나로 그 어느 때보다 돌아다니기 어려운 한 해였다. 코로나로 버스킹 자체가 쉽지 않았던 것도 있지만, 이 프로젝트의 당사자인 텔레토비 친구들의 상황 역시 쉽지 않았다. 각자 다른 일정과 상황들 속에서 자신들끼리 만날 수 있는 모임 시간 잡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버스킹을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버스킹은 뭘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했던 프로젝트였지만 그 질문에 대한 생각과 대답을 만들어보기도 전에 코로나 상황은 유지됐

고(심지어 심해지기도 했다.) 아이들의 상황 역시 프로젝트를 계속 고민하고 즐겁게 만들어가기 위한 현실적 상황들이 따라주지 못했다.

### 작지만 평소와는 다른 작은 시도

비대면, 온택트, 언택트, 온라인으로 가득했던 2020년. 텔레토비의 십만원프로젝트도 길거리에서 진행하는 버스킹이 아닌 이 온라인의 방식을 이용해서 해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기존의 방식처럼 mr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닌 조금은 다른 시도와 노력들을 해보기로 했다. 숨의 온라인 축제를 무대로 프로젝트 당사자 텔레토비가 주인공이 되어 숨의 청소년과 어른들이 함께 합을 맞춰 밴드로 무대를 하는 것이었다.

자신들의 무대를 위해 편곡된 노래, 그리고 처음 맞춰보는 밴드 사운드. 올해 십만원프로젝트가 텔레토비 친구들에게는 여러 아쉬움이 있는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그 상황 안에서 해볼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가며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만들어갔다.

# 십만원 주인공들의 이야기보따리

페이드 아웃  
시간을 담는 사진  
갱얼쥐 방법대  
간지작살  
그림그림  
감성포켓  
나만의 베이킹  
내가 가는 길이 정답  
COSMOS  
내가 찾던 힐링  
우주조류  
내 안에 우리동네 있다  
인파많은  
Earth Project  
텔레토비

2020  
십만원프로젝트

〈부록〉  
15개 팀의  
십대 실험계획서 &  
개인 에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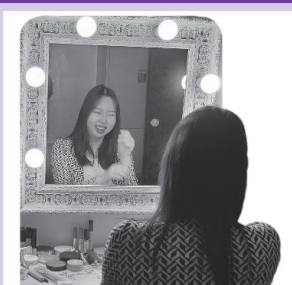
실험계획서 + 리뷰



결과 영상  
바로 보기

페이드아웃

정채영  
함주현




200초 이내의  
단편영화 제작

### 나만의 실험 소개 & 실험 계획

실험명	"짧은 영화에 담은 우리의 이야기"
WHY (1)	누군가에게 심사받아야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 <u>진심으로 우리가 원하는 영화를</u> 만들어 보고 싶다.
WHY (2)	절대 스트레스받지 않고 즐기면서 <u>영화 제작하기가 목표이다</u>
WHAT	도전이 <u>실패</u> 로 끝나더라도 <u>나의 선택</u> 을 믿고 즐기는 법을 배우고 싶다!
WHO	경험이 많은인 감독님 감정에 대해 알려줄 배우님 작법에 대해 알려줄 작가님

WHEN	하루에 1시간 정도 가지 않게, 깊은 생각을 위해 2020년을 여유롭게 살아가기 를 예정.	
WHERE	공원, 강 등의 폭넓은 배경을 지닌 장소 → 우리의 추억과 꿈을 폭넓고 아름답게 기억하고 싶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의 이미지와도 맞음)	
HOW	<p>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누구를 만나기 위한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언제 만날 것 인지?</li> <li>- 무언가를 조사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 것인지, 자료를 어떻게 찾고,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분석 할 것인지?</li> </ul>	
	기간	내용과 방법
	8월	컨셉 및 아이템 구상
	9월	시나리오 작성, 배우 섭외
	10월	소품준비 및 촬영장소 탐색, 콘티 그리기 (가능하면)
	11월	배우와 대본리딩 (감정 이해 및 촬영 방법) 촬영 시작

12월	편집장 완료
★ 프로젝트 기록 방식	
	<p>만날 때 마다 사진 촬영 + 한글 느낌 (약 2주씩 한번 영상 올)</p>
★ 고민되는 지점과 도움받고 싶은 것	
<p>촬영 장비, 캐릭터나 연출을 통해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캐릭터와 결맞는 연출이 실제 느낀 감정에 대한 인터뷰 기회 제공 도움...</p>	
★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지 예산 계획을 세워보자!	
<p>촬영 시 필요한 소품에 예산을 사용 예정 + 아역대가 없이 촬영에 일해줄 배우를 위한 원로 구매</p>	
★ 프로젝트를 통해 기대되는 나(우리팀)의 변화와 성장	
<p>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강력한 의지와 희망을 믿고 삶의 목표를 세워보고 싶다. 도전을 할 때 겁먹지 않고 위든 즐길 수 있는 방법을 배울 것이다. 이를 통해 일석이조로 연출 실력도 늘리고 영상제작 경험도 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p>	



페이드아웃

정채영

## 10만원으로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다

2020년이 코로나와 함께 다가왔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행사가 취소되고 고3이 되기 전, 10대로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그렇게 날아가나 싶었다. 그때 나는 10만원 프로젝트를 발견했고 나의 기회를 다시 되찾기로 결심했다. 친구 손을 이끌고 처음 마주한 10만원 프로젝트는 생각보다 멋졌다. 들어서 영화를 찍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사실 둘만으로 영화를 찍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는 알았기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었는데... 10만원 프로젝트에서 만난 착하고 아리따우신 짝궁쌤들과 다른 프로젝트 팀들은 그런 나의 생각을 바꿔놓았다. 우리는 망하더라도 내가 만들고 싶은 영화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열정 하나로 프로젝트의 막을 올렸다. 처음에는 무척 신도 나고 힘들지도 않았다. 주현이와 나는 서로 너무 잘통했고 시나리오를 거의 하루만에 완성을 시킬 정도였다. 소극장을 섭외해야 한다는 과정에서 예산 초과가 날 뻔도 했지만 주현이의 황금인맥을 통해 금방 해결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다가온 촬영날, 아침부터 엄청난 양의 장비를 들고 택시를 타고 소극장으로 향했다. 소극장에는 우리를 도와주러 온 친구들과 판쌤이 계셨고 우리는 순조롭게 촬영을 시작했다. 짧은 장면이라고 앞잡아봤던 나는 그대로 뒤통수를 맞았



다. 주현이는 연기를 하느라 촬영, 연출 등등 많은 일을 거의 혼자 해야 했는데 촬영 장비는 생각보다 무거웠고, 앵글이 잘 이어지지 않을뿐더러 배우들은 긴장을 해서 원하는 연기가 잘 나오지 않았다. 온몸이 쭈셨고 우리는 2분을 위해 거의 6시간을 쉬지 않고 움직였다. 분명 힘들었다. 그러나 신기한건 그 힘든 와중에도 지금 이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영화는 결과적으로? 망했다. 내가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다 담기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의 영화는 망했다. 하지만 10만원 프로젝트는 망하지 않았다. 10만원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나는 내가 만들고 싶은 영상을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나는 행복함을 느꼈다. 그럼 된거 아닌가? 내가 처음 10만원 프로젝트를 통해 이루고자 한 것은 다 이뤘다. 당연히 영화도 망하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오히려 망함으로써 나는 극복을 배웠고 열정을 얻었다. 나는 앞으로 이런 값진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한 발자국씩 나아갈 것이다. 그렇게 나아간 곳에서 잠시 뒤를 돌아봤을 때 웃으며 추억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다. 나는 10만원으로 10만원 이상의 값진 경험을 얻은 것이다.



페이드아웃

함주현

처음 이 프로젝트를 알게 된 것은 이 프로젝트를 같이 한 채영이가 소개해줘서 알게 되었다. 원래 채영이와 함께 영화를 만들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좋은 기회라 생각해 바로 같이 하게 되었다. 처음 우리가 넣고 싶은 주제와 분위기를 생각했는데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짝꿍선생님이 영상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을 소개 시켜주셔서 실제 영상을 만들 때 필요한 작업등을 알려주셔서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었고 편하게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건 우리의 의견이 잘 맞아서 쉽게 할 수 있었는데 연출 부분에서 우리의 경험이 아무래도 부족하고 나는 영상 쪽을 공부를 한번도 해 본적이 없다보니 어떻게 해야 우리가 표현하는게 잘 나타날지 직접 영상을 찾아보고 서로에게 공유도 하며 많은 고민도 해봤었다. 이때 이 작업이 제일 머리가 아프고 너무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활동과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가 만든 영상이 더 나아지고 새로운 경험을 해봤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많은 새로운 경험을 하였다. 새로운 경험을 하는게 조금 힘들진 몰라도 나는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다. 나도 처

음부터 이리지는 않았다. 초등학교때까지 소심한 성격에 엄청난 원칙주의자였고 부모님의 말이 제일 중요하고 부모님의 말을 안 들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이 싫어하는 나였다. 하지만 중학교 1학년때 연극부라는 활동을 하고싶었는데 부모님이 반대할까봐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내 예상과 달리 부모님은 쉽게 허락해주셨지만 1년만 하고 그만두라고 하셨고 그렇게 난 연극부 활동을 시작하였다. 연극부 활동을 시작할 때 모든게 낯설고 부끄러워서 사실 어딘가로 숨고 싶었다. 하지만 연극부에서 많은 것을 알려주시고 같이 하자라는 선생님의 말씀과 친구들의 응원이 있어 계속 진행하였다. 난 활동을 하며 많은 걸 배웠지만 난 그 중 당당하게 말하는 것을 잘 못했다. 하지만 친구들과 선생님의 도움으로 초반에는 부끄럽고 내가 말해도 되는 부분일까 생각했지만 계속 연습하고 도움으로 당당하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처음에는 무섭고 시작하기 부끄러울 수 있다.

나는 늘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 모 아니면 도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다. 만약 도라면 나랑 취향이 안 맞고 내 적성에 안 맞는 것일 뿐이고 모면은 나와 아주 잘 맞는 것일 뿐이다. 하지만 아무리 도가 나온 경험이라도 해본게 얼마인가. 나도 도가 나온 경험을 많이 했다. 예를 들면, 난 고소공포증이 심한 사람이지만 빠르고 높게 올라가는 놀이기구는 한번씩은 타봤다. 하지만 역시 난 너무 무서워서 소리도 못 지를 만큼 너무 힘들고 그 시간이 고통스럽긴 했지만 남들 다 해본 경험 나도 해봤기에 후회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이 프로젝트를 부모님 몰래 하였다. 친구들 중 부모님의 제한을 받는 친구들이 있을 것이다. 그 친구들 중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반대하실까봐 그리고 몰래 하는걸 한번도 해보지 못했거나 무서운 친구들이 있다. 근데 나는 부모님때문에 하고 싶은 것 작은 것까지 포기하는 친구들을 보면 참 안타깝다. 나도 물론 처음에는 몰래 하는 것이 걸릴까봐 무서웠다. 처음 몰래 한거는 연극부를 고등학교 1학년때까지 몰래 한 것이다. 생각해보면 범죄를 하는것도 아닌데 말이다. 지금도 부모님은 내가 이때까지 한 줄도 모르고 계신다. 난 숨기면서 활동을 하는게 너무 힘들고 마음 한 쪽에서 식은땀을 흘렸지만 하다보니 익숙해졌다. 그리고 부모님 몰

래 경험했던 모든 순간들 모두 힘들었지만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 또 모두 한번쯤은 그때만 할 수 있는 경험들이 있었고 그때 그것에 대한 엄청난 열정을 가졌을 때 그 시간을 놓쳐서 후회밖에 못한 경험 다들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몰래 해보는건 그때만 힘들뿐이지 지금 생각해보면 후회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경험을 많이 하면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런 새로운 사람들이 나의 인생에 새롭고 한번도 생각을 하지 못했던 방향을 알려준다. 그런 방향들을 보면서 나의 방향을 찾아가면 된다. 그치만 그 사람들의 말을 따라 가는게 아니라 방향을 알려주는거지 어디로 갈 지는 내 몫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나와 비슷한 상황을 가진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다. 많은 경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많은 경험을 토대로 자기가 원하는 길을 선택하길 바란다. 하지만 너무 성급하지 않아도 된다. 나도 이제 19살이지만 아직 선택하지 못했다. 그치만 지금 놓여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지금 놓여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가까운 미래든 먼 미래든 선택할 상황이 놓일 때 노력을 안했을때의 선택보다 훨씬 나은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험계획서 + 리뷰

결과 영상  
바로 보기

## 시간을 담는 사진

이승철



사진을 찍는 프로젝트이다.

야외 촬영을 주로 할 예정이며

날씨가 좋지 않으면 실내 촬영을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내가 찍은 사진들을 앨범으로 만들어 전

사회날에 공유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WHY (1)	프로젝트를 통해 나의 사진 스타일을 관찰하고 연구해보며 새로운 시각으로 더 많은 사진을 찍어보고 싶고 앨범을 만들거나 전시회를 하여 좋은 기억을 만들고 싶다.	
WHY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대를 공부와 게임에 낭비하지 않고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것.</li> <li>• 사진을 찍고 글을 보고, 쓰고 그것들을 공유하며 얻는 즐거움과 내면의 성장.</li> </ul>	
WHAT	사진을 찍고 좋은 글을 보고 씬으로써 정신적으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	
WHO	나와 비슷한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들과 함께 출사를 나가보는것도 좋을 것 같다.	
WHEN	날씨가 좋은 날은 야외촬영, 날씨가 좋지 않은 날은 카페촬영	
WHERE	야외 어디든 / 구름사진을 주로 찍을 예정이며, 감성사진 위주로 담아낼 것이기 때문이다. 즉 어디에서든 사진은 찍을 수 있다.	
HOW	기간	내용과 방법
	8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준비 기간
	9월	출사 및 사진 보정과 글쓰기, 더울 것 같아서 카페 촬영 위주로 찍을 것 같습니다.
	10월	출사 및 사진 보정과 글쓰기, 날씨가 조금 선선할 테니 야외 촬영을 할 예정, 나무와 꽃이 많은 곳으로 갈 예정
	11월	11월 초에 사진 몇 장을 찍고 보정과 글쓰기, 앨범만 들기와 전시 계획 세우기
	12월	12월 첫 주 전시회 준비
프로젝트 기록방식	sns기록과 공유, 사진과 글기록	
고민되는 지점과 도움받고 싶은 것	아직은 없습니다.	

지원금 사용 계획을 세워보자!	식비, 야외 촬영시 간단한 음료, 카페 촬영시 마실 음료, 앨범 만들기 비용, 엽서 주문 제작 비용 등
기대되는 나(우리팀)의 변화와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로젝트를 하면서 가보지 못한 곳을 가거나 돈이 부담되어 가지 못했던 곳을 가볼 수 있다는 점이 설렙니다.</li> <li>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내가 '나'를 더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li> <li>제가 프로젝트에 지원한 이유는 저의 10대에 좋은 추억, 경험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하며 좋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내 스스로 계획하며 성장하고싶다.</li> <li>12월의 내 모습이 어린 아이 같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아직 어리다고 생각한다. 비록 짧은 시간이고 고3이라는 어린 나이지만 조금 어른스러워 지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li> </ul>



시간을 담는 사진

|

이승철

그 끝의 마침표

「.」

시작은 나의 10대를 조금은 의미있게, 조금은 어둡지 않게 하기 위해 시작했다.  
계획형 프로젝트는 처음이었다.

나는 프로젝트를 통해 나 자신을 알아가고, 나만의 사진을 배워보고 싶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다.  
일단 시작했다.

시작은 순조로웠다.  
내가 원하는 장소에 가서 내가 원하는 사진을 담아내고  
그 시간을 즐겼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초조했다.

코로나로 인해 내가 계획한 장소들을 가볼 수 없게 된 것이다.  
가까운곳 위주로 가게되고 많은 사진을 담아내기 힘들었다.  
그래도 일단 열심히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마무리에서 내 사진들을 전시해 멋지게 보여주고 싶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귀한 시간을 경험했다.  
혼자 사진을 찍기 외로워 불러낸 같이 게임만 하던 친구와  
카페에서 사진을 찍으며 게임이야기가 아닌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했다.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다.  
그 친구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었고, 그 친구의 특별함도 알게되었다.  
단언컨대 그 날은 내 프로젝트 중 특별한날의 한부분이 될 것이다.

프로젝트 중간 발표날도 빼놓을 수 없다.  
가기 전 나는 조금 긴장했다.  
학교에서의 발표는 자신있었지만, 외부사람 앞에서의 발표는 처음이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있었고 전부 나보다 나이가 많았다.  
떨렸지만 나는 발표를 마쳤다.  
내가 계획한 프로젝트와 발표 프레젠테이션은 큰 호응을 얻었다.  
덕분에 떨림이 줄었고 나는 처음보는 사람들과  
서로의 프로젝트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있었다.

축제날이 왔다.  
아쉬운점이 너무 많았다.  
기흥 때문에 내 사진액자들을 직접 전시해보지 못했다.  
비대면 축제로 인해 내 사진들을 현장에서 보여주지 못했다.  
더 많은 사람들과 대화해 볼 수 없었다.  
다만 전기기획팀이 내가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기게 전시해주어  
너무 감사했다.

적어도 내가 표현할 수 있는 한도에서 그 감사함을 표현할 수 없이 좋았다.


축제에서 다른 팀들의 주제와 결과물을 보며 많은 것을 느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저마다 생각하는게 다르다는 것  
각각의 주제로 자신을 표현하는 모습이 멋졌다.

프로젝트 시작 전 받은 실패할 권리 증표는 처음엔 의미없다 생각했다.  
하지만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진행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증표를 보며  
“그래 이런거 처음 해보잖아. 시도해보는게 어디야” 하며 위안을 얻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프로젝트는 마무리됐고 나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사람을 만나는 즐거움과  
사진을 찍는 내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10만원 프로젝트는 나의 어두운 10대에 불빛이 들어오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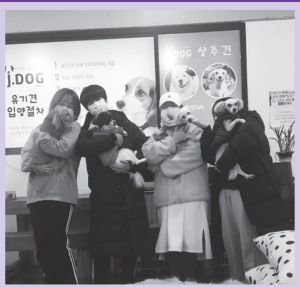
실험계획서 + 리뷰



결과 영상  
바로 보기

## [ 갱얼취 방법대 ]

김세아  
김이소  
손정희  
유민  
차우진



다양한 봉사과 캠페인을 통해  
길거리 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시선을 개선하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음을 실험함.

WHY(1)	사람들로 인해 힘겹게 살아가는 유기견과 길고양이들을 보고, 이들에게 좀 더 나은 삶을 선물해주고, 더 나아가 길거리 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시선을 바꾸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고 싶었다.
WHY(2)	학교에서 동물 보호 자율동아리를 만들어 활동을 하면서 동물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다시 알게 되었고, 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알리고, 앞장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나서는 사람이 되어 사회적 문제를 SNS로 알리거나 캠페인을 여는 등의 활동을 하고, 그로인해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과 시선이 바뀌고 동물과 사람이 더 붙어 살아갈 수 있는 편견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WH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이 외의 다른 사회적 문제들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li> <li>• 사람들에게 사회적 문제를 알리고,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li> <li>• 길거리 동물들에게 좀 더 나은 삶을 선물해줄 수 있을 것이다.</li> </ul>
WH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프로젝트에 동물 보호를 주제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분들과 현재 동물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li> <li>• 우리보다 먼저 활동을 하셔서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갖고 계실 것 같기 때문에 많은 경험담과 조언을 받아보고 싶다.</li> <li>• 우리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팀장(김세아): SNS운영 및 총괄</li> <li>- 기록자(김이소, 손정희): 활동 내용 정리 및 기록</li> <li>- 총무(유민): 프로젝트 내 재정 관리</li> <li>- 사진작가(차우진): 활동 내용 촬영 및 프린트</li> </ul> </li> </ul>
WHEN	<p>개학 전: 토요일 4~6시 ZOOM을 통한 비대면 회의 진행</p> <p>개학 후: 토요일 4~6시 회의 장소에서 대면 회의 진행</p> <p>* 이 시간 외에도 필요하다면 언제든 카톡을 통한 회의 진행</p>
WHERE	마을배움터(뽕뽕방) 또는 카페 또는 팀원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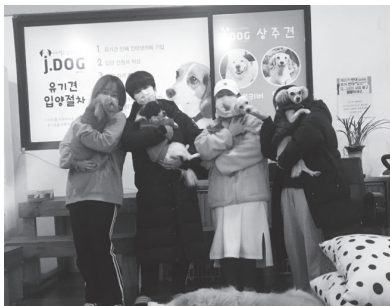


HOW	기간	내용과 방법
	8월	〈사전조사〉 앞으로의 활동에 필요한 것들을 미리 조사하고, 회의를 통해 그에 대한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
	9월	〈간식 만들기〉 1.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회의를 진행. 2. 간식 레시피를 찾아보고, 간식 재료를 구입. 3. 간식을 제작(하루는 고양이 간식, 하루는 강아지 간식) 4. 고양이 간식은 길고양이들에게 주고, 강아지 간식은 유기견 보호 카페인 '제이도그'에 기부. 5. 활동 내용을 정리해 기록하고, 그것을 토대로 SNS에 사진과 글 업데이트.
	10월	〈장난감& 쿠션 만들기〉 1.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회의 진행. 2. 장난감과 쿠션을 만들 재료구입 3. 장난감과 쿠션을 제작(하루는 장난감, 하루는 쿠션 제작) 4. 제작한 장난감과 쿠션은 유기 동물 보호 센터인 '동물자유연대와 유기견 보호 카페인 제이도그'에 기부. 5. 활동 내용을 정리해 기록하고, 그것을 토대로 SNS에 사진과 글을 업데이트.
	11월	〈뱃지제작〉 1.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회의를 진행. 2. 뱃지 디자인을 제작. 3. 네이버폼과 SNS를 통해 뱃지 구매 사전 조사. 4. 뱃지를 제작. 5. SNS를 통해 뱃지를 홍보하고 판매. 6. 뱃지를 통해 얻은 수익금 전액을 유기 동물 보호 센터에 기부.

HOW	기간	내용과 방법
	11월	7. 활동 내용을 정리해 기록하고, 그것을 토대로 SNS에 사진과 글 업데이트.
프로젝트 기록방식	12월	활동 마무리 이제까지 해온 활동들을 돌아보고 정리하며 배운 점과 아쉬운 점, 좋았던 점 등 각자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프로젝트 기록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NS 기록 사진 촬영 담당인 우진이가 우리가 활동하는 사진을 촬영하고 정리하고, 기록 담당인 이소와 정희가 활동 내용을 글로 정리하여 기록한다. 그리고 SNS 담당인 세아가 위 내용을 모두 정리해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올린다.</li> <li>• 글쓰기 기록 활동할 때마다 회의를 통해 정리한 내용(활동 주제와 내용, 사진, 이번 활동을 통해 달라진 점, 잘한 점과 아쉬운 점 등)을 기록 담당인 이소와 정희가 기록하고, 개별로 느낀 점을 적는다.</li> </ul>
	고민되는 지점과 도움받고 싶은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물 보호 프로젝트를 진행해보신 분들이 이 프로젝트를 처음 진행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을 것 같아 이미 비슷한 프로젝트를 진행해보신 분들을 만나 조언을 들어보고 싶습니다.</li> </ul>
	지원금 사용 계획을 세워보자!	유기견&길고양이를 위한 간식 재료: 약 6만원 유기견&길고양이를 위한 장난감과 쿠션 재료: 약 4만원 뱃지 제작: 약 10만원
기대되는 나(우리팀)의 변화와 성장	기대되는 나(우리팀)의 변화와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젝트를 하면서 행복하거나 즐거울 것 같은 것이 무엇인가요?</li> <li>- 세아: 팀원들의 노력의 작은 결과로 조금씩 바뀌어 가는 사람과 동물의 모습을 볼 때 행복할 것 같다.</li> <li>- 이소: 소중한 사람들과 소중한 생명들을 위해 소중한 땀과 시간을 공유할 수 있는 그야말로 소중한 프로젝트 그렇기에 모든 게 fun&amp;happy~</li> </ul>

<p>기대되는 나(우리팀)의 변화와 성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희 :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 나 혼자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실천으로 옮겨 행동할 수 있고 현재 힘들어하는 동물친구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하고 즐거울 것 같다.</li> <li>- 민 : 길고양이들과 반려견들이 행복하게 지낼 것을 생각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즐거울 것 같습니다.</li> <li>- 우진 : 팀원들과 함께 각자의 역할을 맡아 다양한 활동들을 해나가면서 협동심과 책임감을 기르는 일을 하는 것이 즐거울 것 같다.</li> </ul> <p>• 무엇을 느껴가길 희망하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아 : 사람들이 동물에 관한 잘못된 인식과 시선을 올바르게 고쳐나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하는 것을 느껴보고 싶다.</li> <li>- 이소 : 우리들이 지금보다 더 올바르게 깊게 나아감으로써 주변 사람들이 동물보호의 중요성을 느꼈음을 희망한다.</li> <li>- 정희 : 우리와 같이 작은 단체들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의 편견들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다.</li> <li>- 민 : 나 뿐만 아니라 주변이 점점 반려견과 다른 동물들에 대한 생각이 변하는 것을 느껴보고 싶습니다.</li> <li>- 우진 : 이 프로젝트를 통해 큰 변화가 아닌 작은 변화라도 바뀌어 나가는 걸 느끼길 희망한다.</li> </ul> <p>• 어떤 성장과 배움을 얻길 꿈꾸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아 :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사회적 문제들을 인식하고,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아 지금보다 더 넓은 세상을 보는 눈을 키워나가고 싶다.</li> <li>- 이소 : 우리들의 작은 날갯짓으로 세상이 변하는구나. 희망을 잃지 말자.</li> <li>- 정희 :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내주변의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지를 깨달았으면 좋겠다.</li> <li>- 민 : 이 프로젝트를 통해 알지 못했던 사실과 지식을 알게 되고 그것을 잘 전달하는 능력을 얻길 원합니다.</li> </ul>
------------------------------------	---

<p>기대되는 나(우리팀)의 변화와 성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진 : 내가 몰랐던 다양한 지식들이나 활동들을 더 배우고, 그것을 토대로 한 실천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아 나가고 싶다.</li> </ul> <p>• 올해 12월엔 내가 어떤 모습이길 희망하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아 : 다양한 활동으로 인한 경험들을 많이 쌓아 더 성장한, 마음만이 아닌 행동으로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한 동물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모습이길 희망한다.</li> <li>- 이소 : 동물보호의 다양한 인식 속에서 올바른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고 전파하는 나</li> <li>- 정희 : 이 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껴 12월에는 이러한 활동에 대해 좀 더 열정적인 좀 더 적극적인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li> <li>- 민 : 현 반려견들과 근처의 길고양이들에게 더 책임감을 느끼고 같이 공존하는 모습이길 희망합니다.</li> <li>- 우진 : 다양하고 많은 걸 배우고 얻어 현재의 나보다 더욱 크게 성장한 내 자신이 서있길 희망한다.</li> </ul>
------------------------------------	---



## 갱얼쥐 방범대

### 차우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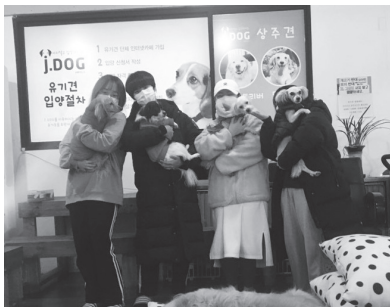
2020년 7월, 모든게 낯설고 새로웠던 여름이었다. 주위 친구들의 권유로 시작 된 프로젝트가 나를 비롯한 모두가 처음이었을 텐데 나만 이렇게 떨리는 건가 싶을 정도로 긴장이 되고 잘 할 수 있을까란 의심을 품은 상태로 시작하게 되었다. 계획부터 실행까지 모든게 완벽할 거란 생각을 하지 않았다. 팀원들 전원이 고3인지라 입시부터 수시, 실기, 수능까지 가장 바쁜 일 년을 보내야 했었기 때문에 실패를 한들 후회만 없도록 열심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다. 그런데 완벽하게 끝낸 12월의 우리 모습들을 돌아보니 그렇게 대견할 수가 없었다. 계획표에 썼던 계획들이 모두 완벽하게 되진 않았지만 나온 결과들을 보니 모두가 열심히 활동을 해준게 눈에 보여 너무 뿌듯했다.

모든 과정들과 실행했던 결과들이 완벽했지만 한 가지 아쉬웠던게 있다면 코로나 때문에 팀원들과 자주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만약 코로나가 지금 세상에 없었다면 프로젝트를 더 완벽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를뿐더러 프로젝트를 하는 다양한 사람들과 눈을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을 것

이다. 코로나 진짜 별로다.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다. 난 처음부터 팀원들만큼 동물을 사랑하진 않았다. 사랑을 하긴 했었지만 내가 발 벗고 나설 정도의 사랑은 없었다는 말이다. 그만큼 동물들의 관한 정보도 없었고 동물자유연대도 처음 들었었다. 고2때 자율동아리도 친구들의 권유로 시작하여 올해는 더 스케일이 커진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 더욱 관심이 생기고 처음으로 어떤 단체에 기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다. 내가 했던 모든 활동들이 내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이 활동들로 인해 내 가치관과 생각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전보다 동물들을 사랑하게 된 것은 물론이고 더 큰 꿈을 갖게 되었다. '내가 로또에 당첨 된다면?' 과 같은 어처구니가 없는 상상 속에 유기견 센터에 기부가 추가 된 것만 봐도 그것들이 얼마나 내게 큰 의미로 다가왔는지 쉽게 알 수 있었다.

수시합격부터 프로젝트 성공과 십개판 축제까지 모든게 좋았지만 그만큼 아쉬운게 많았던 한 해였다.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못했던 활동들이 많았어도 그걸 극복할 만큼 즐거운 일들이 많았고 너무 행복했다. 내년엔 프로젝트를 할진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한 번 더 하고 싶다. 추억과 즐거움이 많았던 활동이었고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완성시켜준 우리 팀원들과 숨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을 남기고 싶다. 감사드립니다.



## 갯알쥐 방법대

김세아

### 작은 힘이 만들어 낸 나비효과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면 왜 안 될까요? 마땅한 이유가 생각나시나요? 아마 대부분 고양이가 그곳으로 몰려들어 쓰레기봉투를 뒤킨지나 시끄럽게 울어대는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면 오히려 쓰레기봉투를 뒤킨 일이 없어집니다. 배고픈 길고양이들은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쓰레기봉투를 뒤킨거든요. 그리고 동물들은 사람과 다르게 성욕보다 종족 번식의 집착이 강해서,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느낄수록 개체수를 더 늘리려고 하기 때문에 길고양이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동네의 길고양이는 점점 늘어만 갈 것입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나요, 새롭게 알게 되었나요?

저는 이렇게 사람들의 동물에 대한 잘못된 시선과 편견을 개선하고, 동물 권을 알리기 위해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동물보호’라는 주제로 10만원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길고양이 뿐만 아니라 인간에 의해 고통 받

는 동물들은 정말 많거든요. 저 멀리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려 집이 사라지고 있는 북극곰부터,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유기견과 길고양이도 인간에 의해 계속 고통 받고 있습니다. 혹시 동물보호를 해야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선뜻 실천할 용기가 없으신가요? ‘나 하나쯤이야, 무슨 도움이 되겠어?’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저의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처음으로 동물보호를 위한 작은 실천을 한 때는 18살, 교내 자율동아리에서 활동했을 때입니다. 동물보호동아리인 ‘보금자리’의 부원으로서 동아리 친구들과 동물보호에 대해 깊게 알아가며 서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학교에서 음료를 판매는 동시에 사람들에게 올바른 인식을 알리는 캠페인을 열어 수익금 전액을 유기견을 위해 기부하는 활동을 하면서 정말 뿌듯하고 행복한 기분을 느꼈어요. 그리고 동아리 활동을 시작으로 동물보호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우연히 ‘10만원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얻어 이번에는 ‘갯알쥐 방법대’라는 팀에 속해 팀원들과 함께 동물보호에 앞장섰습니다. 보금자리에서 활동할 때에는 금전적인 문제에 한계가 있어 더 많은 활동을 하기 어려웠는데, 20만원이라는 작지만 큰 지원금이 생겨 쿠션 만들기 등 더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활동들 중 ‘갯알쥐 방법대’의 프로젝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우선 팀원들과의 회의를 통해 무엇을 하면 좋을지 서로 의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간식과 쿠션, 장난감, 뱃지를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예산과 시간이 부족하여 뱃지 제작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씩 실천해나갔는데요, 첫 번째로 원단과 운동화 끈을 구매해 강아지를 위한 쿠션과 터그를 만들고, 박스를 구해 고양이를 위한 스크래처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활동으로는 ‘숨’에 있는 ‘10대의 주방’을 빌려 단호박 쿠키와 닭가슴살 완자를 만들고, 포장까지 팀원들과 직접 다 하였습니다. 포장 속 간식이 반려동물을 위



한 간식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스티커까지 디자인하여 붙였고요. 완성된 간식은 동물보호센터에 쿠션&장난감과 함께 기부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친구들에게도 나누어주었습니다. 손바느질로 일일이 다 만들어야 하는 쿠션과 처음 만들어보는 터그, 의외로 손이 많이 드는 스크래처, 톱 치기만 해도 부서지는 단호박 쿠키와 닭가슴살 완자까지 모두 처음 시도해본 것들이라 생소하기도 하고 다 같이 횡설수설하기도 했지만, 팀원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일을 열정적으로 해냈기에 전부 해낼 수 있던 게 아닐까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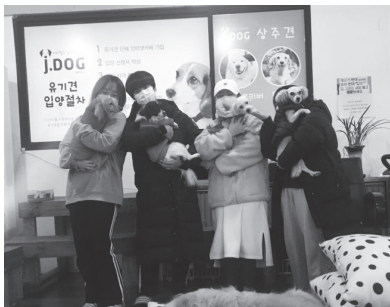
비록 과정이 힘들긴 했어도, 더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걸어온, 여러 사람들과 행복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비록 작은 힘이지만 동물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 가장 뿌듯하고 기쁜 것 같습니다. 아래는 저희 ‘갱얼쥐 방법대’가 기부한 쿠션과 스크래처를 사용하는 동물보호센터 고양이들의 모습입니다.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지 않나요?



누군가의 작은 실천이라도 동물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 달라진다고 세상이 바뀌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그런 작은 생각들이 모여 실천으로 바뀐다면, 큰 기적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물행동학 박사인 ‘제인 구달’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은 스스로를 위해 그러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사람에게는 동물을 다스릴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지킬 의무가 있는 것이다’라는 명언을 남겼죠. 저는 친구들과 함께 갈 곳 없는 동물들의 보금자리와 말 못하는 동물들의 목소리가 되어주기 위해 앞에 나왔던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동물보호에 관심이 없었던 분이셨다면,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단한 일은 아니어도, 지금까지도 고통 받고 있을 동물들을 위해 작은 도움을 주는 것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북극곰을 위해 냉장고 문을 오래 열지 않는다면, 동물원에 가지 않는 것, 오리털 패딩을 사지 않는 것 등이에요. 이러한 작은 시도들이 모여 유기동물을 위한 봉사나 기부를 하는 것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동물권을 널리 알리는 활동가가 되어 세상을 바꿀 지도 모르는 일이지요. 작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어쩌면 기적을 일으킬 지도 몰라요.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토네이도를 일으키는 나비효과처럼요. 여러분의 작은 날갯짓이 모여 어떤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세상에 보여주세요.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함께 와준 ‘갱얼쥐 방법대’의 팀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항상 저희에게 기회와 도움을 주시는 ‘숨’의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듣고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바뀌었길 바라면서 이야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봐요! 안녕 :)



## 갯알쥐 방범대

유 민

### 머리글

귀엽고 예쁜걸 보고 ‘귀엽다’, ‘예쁘다’에서 멈추지 않고 속에 가진 아픔까지 보듬어 예쁘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동물들이 가진 생각을 모두 이해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동물들은 우리가 모르게 표현하고 말하고 있다. 다들 그 언어를 인간의 눈과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동물의 시선에서 동물의 상황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했다.

### 동물이 좋아요!

어렸을 때부터 아쿠아리움과 동물원에 가는 것을 좋아했다. 동물이 막연하게 너무 좋아서 좋아하였다. 그런 곳에 있는 동물들 뿐만 아니라 어린시절부터 강아지를 좋아하는 어머니의 영향으로 반려견을 키우면서 강아지랑은 가족처럼 지내는 것이 너무 당연했다. 그래서 동물들이 아프지 않고 상처 받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나중에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티비에 나오고 동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희생하시는 분들의 말을 듣고 난 죄책감에 너무 부끄러웠다. 외모지상주의가 그렇게 싫다고 떠돌고 다니는 내가 동물들의 겉모습만 좋아했던 것이다. 동물원이 아쿠아리움이 인간의 행복을 위해 동물의 행복을 희생시켰어야 했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더 이상 동물원과 아쿠아리움에 가지 않았고 그 안에 있던 동물들이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며 동물의 행복에 목소리 내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그리고 유기견 보호소에 가서 봉사를 하며 아프고 힘들었던 동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하였고, 이전엔 아파했었던 강아지 두 마리를 책임지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되었다. 예전에는 털이 달린 동물이 좋았고, 지금은 털이달리고 말고가 아닌 우리와 같이 지구를 살아가야 할 동물들을 좋아한다. 그래서 지켜주고 싶다.

### 동물들에게 도움을 줘요!

개인적인 노력으로 동물들에게 도움을 주기는 했지만 사실 한계가 있는게 사실이다. 그래서 단체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학교에 나랑 마음과 생각이 맞는 친구들이 있었고 그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서 우리가 각자 공부한 것을 토대로 다른 학우들에게 알리고 모르는 부분은 더 공부했다. 그러나 학교에서 재정을 지원해주지 않다보니 다같이 돈을 모아도 실질적으로 개인적인 봉사와의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돈도 지원해주고 우리가 하는 것을 응원해주는 곳과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큰 기회였고 나중에 우리가 크면 다른 도움을 주자라고 항상 생각해 왔기에 기회를 틈석 잡아서 하고 싶었던 것을 모두 기획하고 계획했다. 손이 많으니깐 만들어서 주는 것을 기획했는데 생각보다 힘들어서 하루 활동하고 나면 꽤 지쳤다. 그치만 우리가 만든 장난감들 퀄리티는 생각보다 너무 괜찮았고 보호소에 있는 강아지들 고양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뿌듯하였다. 그리고 생각보다 동물들이 인간들의 욕심으로 피해를 보고 상처 받고 있다는 사실과



우리가 쓰는 언어생활 문화생활에서 동물들을 수단으로만 생각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 안에서 대화할 때 나라도 애견이 아닌 반려로 동물은 인간의 행복수단이 아닌 공동체의 일부로 인지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모르면 알려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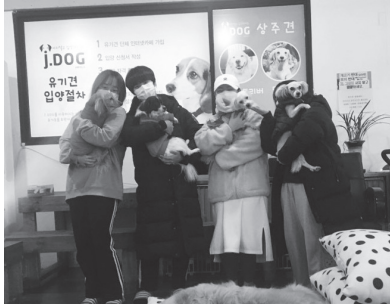
### 책임감이 생겼어요!

생명을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 너무 싫었다. 동물들의 마음을 공부하다보니 인간의 욕심으로 동물들의 생명은 수단에 불과 했고 그것이 죄인걸 안다고 얘기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의 태도가 너무 싫었다. 그러나 싫다고 얘기하기 하나 내가 판사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다보니 뿌리채 잘못된 것을 바꿀 수 없어서 나라도 조금씩 동물의 모피로 만든 옷을 구매하지 않고 반대측에 서서 목소리를 낸다. 그리고 아쿠아리움에 돌고래가 모기를 부리는 것을, 종자 분양을 위해 강아지농장을 만드는 것을 반대한다. 소수의 사람들은 “너가 그런다고 바뀌지 않는다”라고 얘기한다. 맞다. 눈에 띄게 바뀌는 것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섞인 내 두 자아를 설명해준 말이 있었다. ‘약 70억 인구 중에서 덜 유해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말이 착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과 그것이 욕심이라는 두 자아를 잘 표현한 말인 것 같다. 그렇다 난 70억 인구 중에서 조금이라도 생명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고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고 싶다.

### 책을 썼어요!

학교에서는 우리의 활동이 온전히 보장 받기 어려웠다. 우리의 의견을 그리고 활동을 온전히 이해해주는 선생님은 오직 한 분 너무 억울했다. 학교에서하는 공부가 아니면 과심을 갖지 않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다. 하지만 숨에서는 정말 답답하고 화난 마음에 숨을 불어넣어주듯 우리의 모든 것을 흡수하고 이해해주셨다. 행복했다.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 소녀냐

라고 주변에서 얘기할 때 그냥 사춘기인가 싶었지만 나의 의견이 우리의 의견이 묻히면서 세상에 내가 필요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불만이였다. 그래서 활동하고 나서 느꼈다. 우리의 가능성을 어른들이 조금 더 믿어준다면 세상이 더 예뻐보이지 않을까?



## 갱얼쥐 방법대

김이소

### 나에게 십만원 프로젝트란?

2019년 초, 서로에게 관심도 배려도 넘치던 친구들과 학생 한 명 한 명을 편견없이 소중하게 대해주시 선생님들, 항상 웃음소리가 들렸던 공간, 그저 하고 싶다는 생각만 하던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만들어 주던 든든한 곳.

나는 '동북권역마을배움터', 지금은 '숨'으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아지트를 만나게 되었다. 그 속에서 좋은 사람들과 차츰차츰 친해져 갈 즈음, 나와 내 친구들은 '십만원 프로젝트'를 알게 되었고, 이런 기회가 생기면 절대 놓치지 않던 우리는 고민없이 바로 신청하게 되었다.

2020년 초, 현재의 내가 생각하는 십만원 프로젝트는 그저 청소년들이 십만원으로 하고 싶던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 이미 완성된 존재들이 건강한 방향을 찾아떠나 서로를 응원하고 위로해주는 꿈의 첫 내딛음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봐 왔던 프로젝트 구성원들은 모두 생각도 깊고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뚜렷

한 멋진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맛있는 존재들이 펼쳐내는 한 권 한 권의 이야기를 이제부터 시작한다!

### 갱얼쥐 방법대

#### ★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가지고 활동했던 구성원 소개 ★

- 누구보다 따뜻한 감성을 가진 [팀장] 김세아 님
- 그 어떤 어려운 일도 척척 잘 해내는 손정희 님
- 같이 있으면 웃음 보장 SSAP가능 차우진 님
- 그의 계획엔 빠꾸는 없다 프로젝트기획 유민 님
- 이들과 함께 해서 즐거운 나... 김이소 님

#### ★ 활동 과정 ★

- 초반: 월별 계획과 목표 구성
  - 장난감: 강아지 티그놀이 장난감 & 고양이 스크래처 만들기 / 쿠션 만들기
  - 간식: 강아지 쿠키 & 고양이 완자 만들기
  - 기부 물품 전달하기
- 중반: 초반에 세웠던 계획과 목표 실행
  - 장소: 땡땡방(장난감과 쿠션), 십대의 부엌(간식)
  - 만들기의 자세한 과정은 브이로그에
  - 만들어진 간식들과 장난감, 쿠션을 제이도그 유기견 보호시설과 자유연대, 주변 지인들과 지나가는 고양이들에게 기부
- 후반: 결과 도출 및 소감 나누기, 브이로그 편집 및 십개판 축제
  - \*갱얼쥐 브이로그는 '동북권역 마을 배움터 유튜브 채널'
  - 십개판 축제 영상 속 [2:58:30~]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 세상에 하고 싶은 말 ★

초등학교 5학년, 2013년 10월 5일. 그 날은 친할아버지가 내 작은 은하수 속 별이

되신 날이었다. 작고 어렸던 나는 쓰러진 할아버지를 보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가족들은 할아버지를 앰블런스에 태워 응급실로 향했고, 나는 그때 당시 서로를 미워하고 무시워 하던 어린 강아지 한 마리와 둘이 집에 남겨졌다.

나를 항상 아껴주고 챙겨주시던 할아버지가 쓰러진 게 마냥 내 탓 같아서 혼자 있던 밤새 울었던 것 같다. 그러다 갑자기 나만 보면 경계하고 이빨부터 드러내던 그 강아지가 내 곁으로 오더니 내 무릎에 발을 올리고, 귀와 자세를 낮추는 게 왠지 걱정해주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선, 등을 돌려 앉아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고개를 휙 돌리며 밤새 날 지켜줬었다. 우린 그 날부터 가장 친한 친구이자 내 소중한 가족으로서 현재 13년째 동거중이다.

아마 그때부터 였던 것 같다. 동물보호에 관심이 생기고, 그 작은 존재들을 내가 지켜야만 할 것 같은 묘한 의무감이 생겼던 게. 실험동물, 공장동물, 동물원, 유기동물, 식용동물. 이 동물들의 공통점은 인간을 미워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보다 약하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동물들을 이용한다. 인권은 중요시하며 동물권에 대해선 너그러운 게 인간의 이기심이다. 동물을 걱정하는 태도는 강자에 대항하여 약자의 편에서 행동이다. 인간이 항상 동경하던 영웅들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기도 하며,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다.

인간의 안전을 위해 동물들의 살생을 쉽게 여기는 잔인한 동물실험. 동물과 인간이 공유하는 질병은 1.16%밖에 되지 않으며, 이미 식약처 안전 인증을 받은 약재들이 1만 가지도 넘는다. 동물 실험은 그저 '동물 실험 완료'라는 광고 문구 한 줄을 위한 보여주기식 살생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인간만을 위해 개량되고 생산되는 공장동물. 개농장이라고 들어보았는가? 오직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강제임신과 제왕절개를 반복하는 모견들이 사는 뜯장이다. 그들의 자궁 속 여러개의 난자에 정자를 강제로 인공수정하기 위한 주사 자국이 수십개가 남은 채, 핏샷으로 경매되는 강아지들은 무조건 작아야 하기에 다 자라지도 않은 어린 태아의 제왕절개가 행해진다. 자격증도 없는 민간인이 모견의 배를 갈라도 처벌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법규가 없어 제대

로 된 마취는 커녕 수술 후 흩어진 장기를 대충 넣고 꿰매기의 반복이다. 그 후 살지 못 하거나 장애가 생긴 모견들은 시중에 판매되는 개고기가 된다. 그 외 돼지, 소, 닭 등의 동물들도 비슷하지만 모두 다양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지금도 여전히 살육이 진행되고 있다.

동물원 속 동물들은 행복할까? 라는 질문에 몇몇은 '동물원 속에 동물들은 삶의 공간은 제한되었지만 안전을 보장받고 산다' 라며 인간중심적인 생각을 한다. 그렇다면 나도 인간중심적인 대답을 해주고 싶다. "너가 만약 누군가의 납치로 호텔방에 강제로 입주되었고, 너한테 삼시세끼를 챙겨주는 대신, 문을 닫을수도 문 밖으로 나갈수도 없으며 매일 몇 백명의 사람들이 너의 삶을 구경하고 조롱해도 넌 그 곳에서 평생을 살아야 하며 너의 본능을 억압할거야 그래도 넌 행복할 수 있어?". 그 동물들은 그 삶 속에서 미쳐가고 죽어간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동물들은 모두 나름의 존재 이유가 있지만 그것은 인간을 위한 이유가 절대 아니며,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말한 인간은 살아있는 묘지라는 말은 우리가 다른 생명체의 죽음을 통해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다. 사회운동가 간디는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에서 동물이 받는 대우에서 가늠할 수 있다고 했다. 동물연구가 제인 구달은 인간은 다른 생명들은 다스릴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닌, 지킬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나는 채식을 권유하는 것도, 동물보호를 강요하는 것도 아닌, 지금까지 나와 내가 살아가는 세상으로 인해 아파하고 죽어가는 모든 생명을 위한 감사와 참회의 마음이 집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마음 속 감기에 걸린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어느 날 찾아온 나의 우울증,  
마음 속 감기.

모두의 이야기를 듣다가  
생각이 너무 많은 나, 미래에 대해 불확실한 나,  
자존감 낮은 나, 관계들 속 지친 나.  
각가지 이유들로 인해  
지금 이 순간에도 난 우울하고  
이런 나처럼 우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꽤 많구나  
라고 느끼게 되었다.

그들을 위해 또한 나를 위해  
차곡차곡 모아둔 나의 에세이를 들려주려고 한다.

현재 우울하지 않다면  
굳이 읽진 않아도 되지만  
현재 자신에게 위로가 필요하거나 힘들다거나  
혹여나 힘들어 하는 지인을 위로해주고 싶다면

감히 꼭 읽어보라고 말하고 싶다.

1. 꽃은 피어나는 걸까 저가는 걸까  
나는 이따금씩 이런 생각을 자주 했다.  
꽃은 피어나는 걸까 저 가는 걸까  
우린 살아가는 걸까 죽어가는 걸까  
사실은 없었고 나비가 떠올랐다.

모든 건 내가 추구하는대로 남들은 이끌린다.  
내가 행복하다 하면 너는 지금 행복하구나 하고  
내가 부정적이게 행동하면 저 사람은 부정적이구나 생각한다

그렇다고 남들 앞에서 행복해보이려 노력할 필요는 없다.  
내가 우울하다 해도 너의 우울을 꼭 안아줄 수 있는  
예쁜 사람들만 너의 곁에 남겨두면 되는 것이다.

2. 나비  
위에 첫 구절 질문에 나는 항상 꽃은 저 가는 것이고  
우린 죽어가는 것이라 생각했었다.  
나비가 떠오르기 전까지 말이다.

나비는 알에서 태어나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였던 삶을 포기한 채,  
번데기가 된다. 그 모습이 우울했던 나를 미워하고 스스로를 죽이려 했던  
과거의 내가 떠올랐다.  
그러곤, 단단하게 외부에 벽을 친 채로 외로워 했었다.

그 번데기는 이제 자신만의 무늬를 가진 나비로 다시 태어나게 된  
다. 인간 항상 스스로 죽어가고 싶을 때가 있고, 그 죽음으로 인해  
더 단단하고 새로워진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아팠던 당신은 아름다운 꽃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간다.

### 3. 겨울에 피는 꽃

만약 인간이 꽃이라면 나는 겨울에 피는 꽃이고 싶다.

주위 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하지만 아름다운 꽃.

### 4. 내가 장미를 좋아하는 이유

장미는 머금은 물의 색깔로 꽃잎의 색이 변한다.

때론 따뜻하며 때론 냉정하게.

파란 장미 노란 장미 빨간 장미

모두 꽃말이 다르며 분위기 조차 변한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가시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혼자 있을 땐 우아하며 여럿이 함께 있으면 다정하다.

난 장미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 5. 우울해도 괜찮아

안녕, 소중한 너야.

있잖아

힘들면 힘들다고 울어도 되고

짜증나면 짜증내도 돼.

우울한 너 자신을 외면하지 않았음 해.

거울 속 너의 눈을 똑바로 보고 말해

우울해도 괜찮다고

행복한 내가 나이기에

우울한 나도 내 존재로서 소중하다고.

그럼 이젠

우울한 너를 꼭 안아줘.

그럼 이젠

아무 이유 없이 너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어.

### 6. 사랑받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뻐져야만, 사랑받을 행동을 해야만

상대가 날 좋아할거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요.

세상엔 지금 당신의 모습도 당신 자체로 예뻐해줄 사람이 많아요.

이미 존재함에 충분히 예쁜 사람이니까요.

그치만 스스로 예뻐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게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멋있는거죠.

소중한 나를 더 소중한 존재로 만들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게 얼마나 멋져요.

이미 그 자체로 당신은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네요.

### 평소 힘들때마다 하는 생각들

-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니라 도전하지 않는 것! 당장 시작하기.
- 누가 날 깎아내린다면 그냥 날 조각한다고 생각하기!
- 다 잘 될거야 라는 마음보단 망하면 어때 SIBAL♥이라는 마음 가짐 가지기^\_^
- 모든 일에 일단 최선을 다 하고 후회하지 않기
- 오는 사람 밀어내지 말고 가는 사람 붙잡지 않기
- 관계에 집착하거나 기대하지 말기

## 나에게 '숨'이란?

한 주제를 보고 여러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하던 나에게 십만원 프로젝트는 항상 진심이었다. 다시금 내게 동물보호의 의지를 불태웠고, 즐거운 추억과 함께 친구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 도라이 방법대 아아. 갱얼쥐 방법대.

다양한 관계들 속 많은 생각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게 해주고,  
한 명 한 명이 너무 멋지고 똑부러지던 더 숨 기획단 친구들.  
자존감도 낮고 우울이 잦았던 내게 요리로 위로를 전해준 십대 셰프.  
살면서 처음 경험해 볼 수 있던 자작곡 작곡해준 세아. (with.랩지우와 베이스현이)  
뮤비 제작 해주시고 스튜디오까지 빌려주신 판쌤.  
실력자 밴드와 노래할 수 있게 기회 주신 심쌤.  
고마운 내 숨.

이 모든 추억을 다 녹여낸 십개판 축제로 모두의 이야기를 모두와 다양히 나눌 수 있어 너무 좋은 기회였고 잊지 못할 나의 기억이었다.

우리 모두 살아가는 것도 죽어가는 것도 아닌 진정한 나를 찾아가기 위한 나비같은 삶으로 나아가기로 해요. 사랑합니다 너러분..☆

끝.

(너무 길게 썼나..(눈치눈치))



## 갱얼쥐 방법대

| 손정희

저에게 십만원 프로젝트란 무언가를 도전하기 위한 첫 경험인 것 같았습니다. 시 작은 미미했지만 끝은 창대했던 ㅎㅎ 많은 것을 느끼고 얻을 수 있었던 활동이었습니다.

갱얼쥐방법대 팀은 유기견, 묘 보호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귀엽다' '안타깝다'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겨울 따뜻하게 보내게 해 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가 십만원 프로젝트라는 기획을 보고 뜻이 맞는 친구들 끼리 모여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돈을 최대한 활용하여 터그 장난감, 스크래쳐, 쿠션, 반려견/묘 간식인 쿠키와 완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하며 어려웠던 점은 고3으로 이루어진 팀이라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작업할 수 있는 장소도 제약이 있었습니다.

고3인 나는 항상 학교에서 하라는 데로 틀에 갇힌 수행평가를 해 왔어서, 틀에 갇혀있지 않은 십만원 프로젝트의 시작은 난해했습니다.



하지만 곧 어른들의 간섭을 받지 않고 기획부터 실행까지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자유롭고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십만원 프로젝트를 마무리 지으며 이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나중에 무언가를 도전하는 날이 올 때 시작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실험계획서 + 리뷰



결 과 영 상  
바 로 보 기

## [ 간지작살 ]

김지우  
조서영  
장선주



우리의 개성이 담긴  
악세사리 만들기!

179

성만원을 내맘대로 씁니다



### 간지작살 | 김지우

나는 처음 이 프로젝트를 가족을 통해 알게되었다.

무엇을 하는지, 한다면 필요한 것들이 뭔지 하나씩 찾아가며 아마 처음으로 진지하게 내가 10만원으로 뭘 하고싶은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던거 같다.

또한 10대에 처음으로 친구들과 허구된 얘기가 아닌 계획과 실행으로 이뤄낸 꿈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처음엔 공짜로 10만원이 생긴 기쁨에 내가 진정 뭘 하고 싶은지보다는 평소와 같이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만 생각 했던 거 같다. 그러다 짝궁을 만나게되면서 차근차근 천천히 10만원 프로젝트를 실행 할 수 있게 되었다.

하면서 힘들었던 적은 정말 단 한 번도 없던거 같다.

잠시 막막했던 적은 있었지만 나 혼자만이 아니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짝궁인 규민

쌤이 도움을 주셨다. 하는 도중에 코로나 때문에 멋대로 돌아다니거나 만날 수 있던 날들이 줄어들었지만, 그것 또한 우리가 이겨내야 할 것이고 나름대로의 추억이고 재밌었다.

실패든 성공이든 좋지않은 환경이든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에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이니까. 학생의 할 일은 공부, 등교, 학원 등등 어느정도 틀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대로 움직이다 온전히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다는게 설레었던거 같다.

이전 거의 1년동안 해온 10만원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이고 이제부터 기획단을 하면서 경험한 것들을 적어보려한다.

10만원 프로젝트를 하면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간간히 만나 중간정점을 하고 교류를 하였다 그때 기획단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받았고 가벼운 마음과 호기심으로 기획단을 자처하였다. 이 활동을 통해서 얻은 것은 정말 많다. 좋은 사람들, 살면서 겪어야 할 수도 있는 상황들을 배우고 느끼고 다같은 마음과 목표를 가지고 이룬다는건 큰 의미였다. 가볍게 시작했지만 점점 열정과 협동심으로 더 더 열심히 나의 시간과 모든 것을 투자해 하나의 축제를 만들어냈다.

다신 없을 수도 있는 좋은 사람들과 기회들이 나에겐 너무 감사하고, 이 마을배움 터가 사라지지 않고 항상 함께했음 좋겠다.



## 간지작살

|

## 장선주

나는 10대의 소중함과 많은 생각들을 얻어냈다. 10만원을 받아서 내가 하고싶었던 일을 하게 되는건 정말 흔히 있을 수 없는 기회였다. 아직 어린 나와 친구들에게 그 10만원을 온전히 맡겨준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겐 신선한 감동이였다. 처음 본 우리를 믿어주는 것에 나도 자연스럽게 열심히 하게 된 것 같다.

10만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경험과 추억, 그리고 책임감 까지 받은 것 만 같은 기분 이였다. 이제 나는 10대의 마지막인 19살이 되었다. 실감나지 않고 믿기지도 않지만 현실은 똑바로 응시하기로 했다. 다음에도 이 프로젝트를 또 참여하게 된다면 나는 내가 디자인 하고 내 생각을 담은 포스터나 스티커, 메모지 등을 발주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싶다. 이걸 내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과 동시에 내가 디자인한 작업물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 이기에 매우 재미있을 것 같고 신나게 작업 할 수 있을 것 같다.

20년도의 절반 조금 안되는 기간동안 이 프로젝트를 했다는게 너무나도 신기했다. 처음이라 미숙한 부분도 있고 몰랐던 점도 많았지만 다음에는 제대로 준비해서 참여

하고 싶다.

이번 프로젝트는 나에게 단순한 기회 뿐만이 아니라 감정을 공유하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멋진 추억을 주었다.



## 간지작살

|  
조서영

### 열여덟

십만 원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이 내게 주어졌다  
하고 싶은 것은 많았고 할 수 있던 것은 적었던 나에게  
조금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었다  
십만 원을 갚지게 쓰는 것  
내 목표였다  
계획을 세우고 돈을 나누고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찾아봤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라는 말이 있다  
근데 내 시작은 창대했고 끝은 미약해보였다

곧 끝날 거라 믿었던 외출제한  
내 생각보다 무수히 많던 선택지  
나와 맞지 않는 감성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는 것이 내 인생모토인데  
돌아보면 사실 후회가 많았다  
내가 하고 싶던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꽤 망설인 탓이다  
아쉬움이 똑똑 묻어났다

어찌어찌 잘 흘러간 건지 그저 그리 지나간 건지  
중간 점검의 날이 왔고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다  
나와 비슷한 또래임에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분명했고 멋있었지만  
나름 각자의 아쉬움도 묻어있었다

얘기를 나누다 축제계획을 같이 할 생각이 있냐고 물었다  
나의 아쉬움과 모두의 아쉬움을 털 수 있던 기회였다  
기획이라는 두려움과 부담은 내 기대와 무모함이 이겨냈다

축제의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고 많이 서툴렀다  
실수에 질타는 없었고 눈물에 이유를 캐묻지 않았다  
그만큼 다들 미성숙하고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었기에

넘지 못 한 허들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어디서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교육과  
그저 너무 좋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음이 감사했고  
축제에 손을 대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  
마냥 좋았다

### 온라인축제

그 누구도 해본 적 없었고 표현의 공유는 한정적이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만든 축제이기에 잘 흘러간 것이라 믿는다  
뒤에서 비춰주고 믿어줬던 선생님들과 어수선했던 속에도 이해해주던 사람들  
축제기획단

### 우리 모두가 만든 축제다

프로젝트와 축제를 통해 배운 것이 정말 많았고  
좋은 사람들에게 받은 에너지와 칭찬과 용기로 남아있는 아쉬움을 모조리 털었다

십만원 프로젝트, 누가 보기엔 엉성하고 부족한 프로젝트였겠지만  
나에겐 완벽한 프로젝트였다

실험계획서 + 리뷰



결과 영상  
바로 보기

## [ 그림그림 ]

권도연



페미니즘을 주제로 공부하고  
그에 대한 그림책을 구상하여 제작하는 것



WHY (1)	학교생활을 하면서 그림책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고, 이번 기회에 평소에 느꼈던 우리 사회의 성차별에 대해 공부해보고 탐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WHY (2)	시작할 때에는 그림책 한권을 제작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제작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다만 제작을 시도하면서 최대한 많은 것들을 얻어가는 것이 목표이다.												
WHAT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배움, 경험												
WHO	주위의 사람들 나에게 배움을 주는 사람은 꼭 선생님이거나 어른들이지 않는다. 일상생활 속에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배우는 것들이 많다. 필요하다면 나의 계획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른들												
WHEN	9~12월 수시로 시간이 있을 때마다												
WHERE	학교나 집. 굳이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지 않아서 내가 가장 오랜시간을 보내는 장소들												
HOW	<table border="1"> <thead> <tr> <th>기간</th><th>내용과 방법</th></tr> </thead> <tbody> <tr> <td>8월</td><td>준비하기</td></tr> <tr> <td>9월</td><td>공부하고 알아가기(책 읽기, 영상 보기, 인터뷰하기 등)</td></tr> <tr> <td>10월</td><td>공부하고 더 알아가기, 스토리보드 제작, 구상하기</td></tr> <tr> <td>11월</td><td>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기</td></tr> <tr> <td>12월</td><td>내용들을 묶어서 완성하기</td></tr> </tbody> </table>	기간	내용과 방법	8월	준비하기	9월	공부하고 알아가기(책 읽기, 영상 보기, 인터뷰하기 등)	10월	공부하고 더 알아가기, 스토리보드 제작, 구상하기	11월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기	12월	내용들을 묶어서 완성하기
기간	내용과 방법												
8월	준비하기												
9월	공부하고 알아가기(책 읽기, 영상 보기, 인터뷰하기 등)												
10월	공부하고 더 알아가기, 스토리보드 제작, 구상하기												
11월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기												
12월	내용들을 묶어서 완성하기												
프로젝트 기록방식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서 남기고 일기를 쓰거나 글을 남기기												
고민되는 지점과 도움받고 싶은 것	조금 부지런 해야할 텐데 나태해지거나 지칠 때 격려와 응원,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원금 사용 계획을 세워보자!	공부하고 알아가는 비용(책값, 인터뷰 선물) 제작비(그림도구, 인쇄비)
기대되는 나(우리팀)의 변화와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금 더 바쁘게 살아갈 나</li> <li>• 몰랐던 것들을 알아가고 못 봤던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한뼘 더 성장할 나</li> <li>• 17살의 기억에 한칸 쌓일 추억</li> </ul>



그림그림

| 권도연

7월의 어느날 학교 단독방에 올라온 십만원 프로젝트 홍보 자료 한 장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고민하다 신청서를 냈다. 예전 한 선생님이 나에게 가슴이 콩닥거리고 눈이 반짝이는 일을 하라고 하신 적이 있다. 그 때 신청서를 쓸 때 나는 눈이 반짝거리고 가슴이 콩닥거렸다. 신청서를 내고 며칠 뒤 면접을 보러 배움터로 갔다. 배움터에 발을 들이는 순간 민정샘이 반겨주시면서 건물을 소개시켜 주셨다. 면접도 안 끝났는데 왜 건물을 소개 시켜주시지? 했는데 붙고 떨어지는 면접이 아니라 그냥 이야기를 하는 날이었다. 그날 항상 무거웠던 면접이란 단어가 가벼워졌다. 민정샘과 이야기를 마치고 기대를 한 아름 품고 집에 돌아갔다.

책을 몇 권 읽었고, 사람을 만났다.

내 짝꿍샘과 '선량한 차별주의자'를 읽고 나눴다. '맘충'이라는 단어가 이상하게도 마음 속에 계속 남고 걸려서 영화 '82년생 김지영'을 보고 또 이야기 했다. 엄마와 아이 맘충과 노키즈존. 우리사회에서 약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아직도 차갑고 또 차갑다. 예전에는 나도 어린아이가 식당에서 시끄럽게 구는게 싫어서 노키즈존에 '찬성'

했었다. 하지만 식당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아저씨들을 보며 이상함을 느꼈다. 이 '이상함'을 느끼고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서 나의 시선은 달라졌다. 나의 세상은 '이상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배움터에서 이어준 인연으로 페미니즘 계간지를 발행하시는 정아언니를 만났다, 합정에 있는 언니의 사무실에 가서 언니와 이야기를 나눴다. 앞으로 내가 살 세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조언도 받았다. 뜻 깊은 시간을 보내고 집에 가는 길에 비가 세차게 내렸고, 비를 피하고자 찾았던 서점에서 우연히 정아 언니가 추천해주신 '코끼리 가면'이라는 책을 발견했다.

책을 읽었다. 눈물이 났다. 어린시절 친오빠에게 받은 성폭력 이야기를 동화처럼 풀어서 썼다. 그 책의 작가이자 그 책을 낸 출판사의 대표를 찾아봤다. 출판사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출판사에 대한 기사도 읽었다. 찾아보고 찾아보니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용기를 내서 만나달라는 글을 썼고, 보냈다. 매일매일 메일창에 들어가서 새로고침을 하고 답을 기다렸다. 몇 번의 조급함을 겪고나서 인터뷰 약속을 잡아 작가님을 만났다. 2시간 반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성폭력 피해 사실을 담은 책을 내기까지의 어려움, 직접 출판사를 내고 나서의 힘들었던 점을 듣고 멋진 어른으로부터 미래를 살아갈 나에게 응원과 희망을 받았다.

올해 배움터에서는 페미니즘을 중심으로 다루고 공부했지만 개인적으로 환경문제와 성소수자인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다. 나는 나 자신을 스스로 페미니스트, 환경운동가라고 자부 할 수 있을 만큼 똑똑한 것도 아니고 그 말의 무게를 견딜 자신도 없다. 아직은 모르는 것도 정말 많고 올해 내가 공부했던 건 새발의 피도 못 미친다. 매일 매일 실수도 엄청 많이 하고 지구도 마구 더럽히며 살고 있다. 나는 그냥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는 최 많은 인간들 70억명 중 한명이고 단지 그 수많은 인간들중에서 조금 덜 유해한 사람이 되고 싶을 뿐이다.

지금 망설이고 있을 수많은 과거의 나에게 응원을 보낸다. 과거의 나는 부정적이고

단편적인 시선으로 페미니즘을 바라봤다. 인터넷에 떠도는 남을 헐뜯는 글들에 선동 당하지 말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과연 올바른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나 역시도 항상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고민하고 있다. 나중에 미래의 내가 지금의 나의 행동을 본다면 후회하거나 부끄러워할 지 도 모르지만 이게 지금 나의 최선의 선택이다. 우리 모두 사실에 귀를 기울이고, 올바른 시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

십만원 프로젝트, 짧고 짧았다. 7월부터 12월, 약 5달이라는 숫자가 처음에는 뭐든 할 수 있게 느껴졌지만 바쁜 일상과 또 코로나라는 장애물 때문에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다. 사실 처음 세웠던 계획은 무너졌고, 목표도 지키지 못 했다. 하지만 새로운 인연을 만났고, 새로운 경험을 쌓았다. 나는 시도해 봤고, 즐거웠으니 후회하지 않는다.

실험계획서 + 리뷰



결과 영상  
바로 보기

# [ 감성포켓 ]

유 민  
김려은



기성 의류를 통해 현재 이슈화되는  
사회적 문제를 표현하며 옷이 상업 물품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의사소통 매체로 이용될 수 있음을 실험한다.

WHY (1)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의 과시 소비를 위해, 또는 유행을 따라가기 위해 옷을 사고 있다. 하지만 옷을 의식주에 포함될 만큼 민족문화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옷이 상품으로써 만이 아닌 사회 배경을 알리고 다른 대상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매체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다.
WHY (2)	학교에서 사회를 배우면서 다양한 사회문제를 알게 되고 시사나 뉴스도 관심 있게 보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내가 관심 있는 사회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하는 옷에 관한 사회적 문제라면 표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고 그것을 표현함으로써 나의 진로인 패션MD의 일을 간접적으로 체험해보고 사회적 문제를 담은 옷을 대중들에게 알림으로써 옷이 상품으로써 만의 가치가 아닌 문화적인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WH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옷과 사회적 문제의 융합을 가능성을 볼 수 있을 것이다.</li> <li>•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li> <li>• 중간에 활용되는 기성 의류의 영향력을 경험해 볼 수 있을 것이다.</li> <li>• 옷의 문화적 가치를 알 수 있을 것이다.</li> </ul>
WH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자이너 옷을 직접 제작하시는 디자이너분들을 만나 뵙게 된다면 옷을 제작할 때 영감을 어디서 얻으시고, 옷을 제작하고 보여주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싶다.</li> <li>• 모델 청소년 친구 중에 모델을 하는 친구들, 다른 진로를 가지고 있지만, 모델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고 싶다. (표현하는 것을 즐기는 친구들이라면 모두 좋다)&lt;&gt; ▶ 기획, 디자인, 편집 1차 - 유민 ▶ 의견보충, 촬영, 편집 2차(마무리)- 김려은</li> </ul>
WHEN	매주 토요일 1시에 대면 회의 및 활동 일요일은 쉬는날 but, 온라인개학 기간에는 1시~3시 정규회의 등교 개학 이후에는 4시~6시 정규회의

WHERE	3층 나폴나폴 or 땡땡방 or 카페(코로나 나아지면...)	
HOW	기간	내용과 방법
	8월 ~ 9월 초	<p>&lt;성평등&gt; 영감(할렘) : 최근에 변경된 포순이&gt; 1. 주제에 대한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추린다. (성평등의 뜻, 의의, 관련단어, 사회배경, 문제해결방안, 인스타 게시물 글귀)</p> <p>2. 모델을 섭외한다 남자2명 여자2명 예상</p> <p>3. 옷을 구매한다 (모나미룩)</p> <p>2. 10대들을 상대로 네이버 폼을 만들어 현재 성평 등이 사회에 잘 들어나는 것 같은지 그렇다, 조금이다, 아니다. 3가지 답변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설문기간은 적게는 3일 길게는 5일)</p> <p>4. 1.에서 추린 문항들이 채워지고, 설문조사결과가 나오면 촬영시작.</p> <p>5. 다음날 편집 시작</p>
HOW	9월 말 ~ 10월 초	<p>&lt;언택트시대 - 사이버폭력&gt; 영감(할렘) : 2020FW 브랜드쇼</p> <p>1. 주제에 대한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추린다. (언택트의 뜻, 사이버폭력의 뜻, 의의, 관련단어, 사회배경, 문제해결방안, 인스타 게시물 글귀)</p> <p>2. 모델을 섭외한다 남자2명 여자2명 예상</p> <p>3. 옷을 구매한다 (전체 화이트 룩에 빨강,검정,노랑 등의 경고 암시 악세서리 착용)</p> <p>2. 10대들을 상대로 네이버 폼을 만들어 현재 사이버폭력이 사회에 큰 문제인지 그렇다, 조금이다, 아니다. 3가지 답변으로 결과 제작, 언택트시대가 불편한지에 대한 그렇다, 조금이다, 아니다. 3가지 답변으로 결과 제작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설문기간은 적게는 3일 길게는 5일)</p> <p>4. 1.에서 추린 문항들이 채워지고, 설문조사결과가 나오면 촬영시작.</p> <p>5. 다음날 편집시작</p>

HOW	기간	내용과 방법
	10월 말 ~ 11월 초	<p>〈패스트패션〉 - 옷 돌려입기 영감(할범) : 입시준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제에 대한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추린다. (패스트패션의 뜻, 의미, 관련단어, 사회배경, 문제해결방안, 인스타 게시물 글귀)</li> <li>모델을 섭외한다. 남자2명 여자2명 예상</li> <li>옷을 구매한다 (가을룩을 참고하여 5가지 정도 사서 일주일 돌려입기)</li> <li>10대들을 상대로 네이버 폼을 만들어 현재 패스트패션이 사회에 큰 문제 인지 그렇다, 조금이다, 아니다. 3가지 답변으로 결과 제작, 옷을 수선하거나 되돌려입는다. 대한 그렇다, 조금이다, 아니다. 3가지 답변으로 결과 제작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설문기간은 적게는 3일 길게는 5일)</li> <li>1.에서 추린 문항들이 채워지고, 설문조사결과가 나오면 촬영시작.</li> <li>다음날 편집 시작</li> </ol>
	11월 말	기부할 옷을 정리 및 포장, 여태까지 한 과정 정리 및 느낀점 작성.
	12월 중순	지원금으로 구매한 모든 의류를 옷칸을 통해 취약 계층에게 기부한다.
프로젝트 기록방식	<p>〈인스타 기록〉 모든 과정에서 촬영을 담당한 러은이가 사진을 찍는다. 기획과정, 준비과정, 결과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사진을 모은다. (인스타에 기획과정 사진과 글귀, 준비과정과 글귀, 결과와 글귀)</p> <p>〈형식적 기록〉 모든 과정에서 촬영을 담당한 러은이가 사진을 찍는다. 매 회의마다 형식적인 회의록을 작성한다. (회의제목, 걸린시간, 서기, 사진, 회의하고 느낀점, 수정사항, 다음시간에는?)</p> <p>〈개인〉 각자의 방식으로 그때그때 마다 배우고 느낀점 회의방식의 장점, 단점을 기록한다. (유민, 김려은 - 다이어리, 일기)</p>	

고민되는 지점과 도움받고 싶은 것	혹시라도 만나볼 수 있는 디자이너 선생님을 섭외, 옷을 입을 수 있는 모델 섭외 이 두 가지 사항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원금 사용 계획을 세워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예산 금액 : 20만원</li> <li>- 주제 하나 당 65600원 소비 예상</li> <li>- 마지막 옷 기부 시 배달비 30000원 예상</li> </ul>
기대되는 나(우리팀)의 변화와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젝트를 하면서 행복하거나 즐거울 것 같은 것이 무엇인가요?</li> <li>- 유민 : 여태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못했던 것은 제가 혼자서 모든 걸 총괄한다는 것은 욕심이라고 하는 시선에 짓눌려서 양보하고 포기하고 버리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를 통해서 더 많은 가능성이 있는 저를 발견하면서 공부로 인해 계속 사라지는 제 자존감을 찾는 것이 즐거울 것 같습니다.</li> <li>- 러은 : 학교를 자퇴하고 난 후에는 친구와 무언가를 할 기회가 적었고, 내가 하고싶은것을 할 기회도 적었다.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친구와 의논하고 서로 관심있고 하고싶어했던 것을 하는게 행복할것같다</li> <li>• 무엇을 느껴가길 희망하나요? or 성장과 배움을 얻길 꿈꾸나요?</li> <li>- 유민 : 나의 가능성, 한계, 열정, 옷의 가능성, 영향력, 대중들의 목소리</li> <li>- 러은 : 서로 같이 계획했던 것들이 하나씩 이루어져 간다는 성취감</li> <li>• 올해 12월엔 내가 어떤 모습이길 희망하나요?</li> <li>- 유민 : 이 프로젝트를 잘 해냈다는 저의 모습?</li> <li>- 러은 : 잘했던 못했던간에, 일단 프로젝트를 했다는것에 만족하는 모습</li> </ul>



감성포켓

|

유 민

### 1. 머리말 \_ 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었다.

어떤 3자가 봤을 땐 무모한 도전을 한다고 하였다.

어떤 3자는 왜 하냐고 하였고 나에게 공감하지 못했다.

어떤 3자는 몸 생각 안 하냐고 했다.

어떤 3자는 대단하다고 하였다. 이제 마지막 어떤 3자일까?

그들은 멋지다고 하였다.

그렇다. 난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이다.

사람들의 평가에 적응해 버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도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지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 글을 쓰는 와중에도 사람들이 내 글을 보고 어떻게 평가할지 생각한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걸 알지만,

모두를 만족시키는 사람이 되고 싶다.

더 이상 욕먹고 싶지 않았고 평가받기 싫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사회에 일원으로 살고 있고 그 사회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내가 사는 곳을 방치하는 것이다.

그래서 방치하지 않고 가꾸어 내려면 반대에서 목소리를 내고 욕을 먹더라도 수용하고 무시할 줄 알아야 한다.

그렇다. 난 그 방법이 알고 싶었고 그 과정이 필요했다.

### 2. 도전 \_ 난 대한민국이 정해준 고3이기 싫었다.

내가 10만원 프로젝트를 만나게 된 날은 2학년 겨울방학이었다.

사실 이전에 해보지 않았냐는 제안을 받았지만 계속 망설이게 되었다.

나에게는 절대 안 올 것만 같았던 입시 때문이다.

하지만 나의 19살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지금 마음에 있는 이 열정은 이번이 아니면 없어질 것 같았다.

그래서 입시를 하면서 하겠다고 했다.

누군가 이 글을 본다면 그냥 '오 되게 용기 있다.'라고만 얘기하겠지만,

진짜 고민 많이 했다.

성적이 좋은 학생이 아니었기에 대학은 하늘에 별 따기 수준이었고, 어떻게든 대학에 들어가려고, 그리고 엄마를 실망시켜드리지 않으려고 적성고사, 수능, 면접, 자소서 모두 처음이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게 준비하고 해내야 했다. 근데 이 와중에 프로젝트를 한 건 앞에서 얘기했듯이 내 19살을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난 유민인데 나라가 정해준 입시라는 시계를 받아서 1년 동안 조종당하는 듯 지내기에 는 날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더 프로젝트에 눈이 갔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계속 제한받고 사는데 내가 이렇게 젊을 때 아무것도 못 하고 누구에게 조종받을 생각을 하니 벌써 지긋지긋했고 저항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또 하나의 기회로 잡은 프로젝트.

하지만 순간 드는 생각, '이걸 완벽하게 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또 욕심부려서 하



나는 흐지부지 넘어가게 되면 욕먹겠지?”라는 생각. 계획서를 작성해 오라는 말 하나에 들었던 생각이다. 근데 선생님들은 나의 이런 생각을 아셨을까? 실수해도 좋다고 하셨다. ‘완벽하게 하라고 주어지는 과제가 아니야’, ‘실패하면 그게 경험이 될 거야’라는 말 정말 살면서 너무 듣고 싶었던 말이다.

실수와 실패는 점수로 보였고 날 맨날 땅으로 곤두박질치게 만들었기에 그 말은 내가 프로젝트에 애정을 가지게 해주었다. 나를 볼 수 있는 시간일 것 같아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전했다.

온전히 나를 위해.

### 3. 과정 \_ 배우고 경험하는 즐거움

〈9월〉

난 12년 동안 학생으로 지내왔다.  
그 12년뿐만 그전에도 계속 가졌던 불만.  
성차별이다.  
여자라서 무거운 걸 들 자격이 없어진다.  
여자라서 조신해야된다고 억압한다.  
여자라서 여자라서….

실제로 들은 말이다.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설문조사를 한 결과 계속 그런 소리를 듣고 지내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다. 아무리 봐도 성 말고는 다른 게 없는 평범한 학생들이다. 똑같은 것을 배우고 머리도 비슷하고 의상도 비슷하다.

근데 왜 사람들은 성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그 안에 가두려고 하는 것일까?  
조금씩 변한다고 해도 아직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모두 가지 불만이다.  
내가 조금이라도 목소리를 낸다면 극소수는 경각심을 가지고 같이 관심 가져주지

않을까 싶었다.

사진에서도 보이지 않을까? 모델 친구들의 눈빛으로 청소년도 성차별을 당한다는 것 그것에 크게 상처받고 있고 사회의 시선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 그리고 모두 각자의 개성으로 같은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즉, 모두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사진에 담아보았다. 처음이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도 어려움이 있었고 체력도 체력대로 문제였지만 원하는 그림을 찍었다.

〈10월〉

난 초등학교 시절,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였다.  
그날 정말 최악이었지만 아무한테도 이야기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아무렇지 않았다.  
3자들은 상황도 모르면서 수군수군….

다 그만하고 싶었다. 하지만 괜찮은 척 해야 했고, 들리는 얘기는 웃어 넘길 줄 알았어야 했다. 그리고 내가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연예인들이 지속하는 비난과 날카로운 화살에 하나둘씩 하늘에 별이 되었다. 그 마음을 너무 알기에 그들이 하늘에서는 더 빛나길 원했고 불분명한 가해자들이 위로하는 3자가 되는 걸 볼 땐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래서 다시 사람들에게 상기시키고 싶었다.

자연(사회)은 얼마나 이들에게 차가웠고, 그곳에서 외롭게 눈 감아야 했다는 것을… 다시는 누군가 우리 곁을 떠나야 끝나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그들의 무소식은 다른 누군가의 무소식을 만들지 않기 위한 용기였고, 목소리였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11월, 12월〉

고등학교 3학년 초반 면접을 준비하다가 처음 알게 된 단어 ‘패스트 패션’.  
처음에 이 단어를 듣고 너무 창피했다….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매년 공부하다 보니 나름 일회용을 줄이고 음식물쓰레기도

줄이는데.... 이것들뿐만 아니라 내가 사고 버린 옷들이 환경오염의 원인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듯 옷이 얼마나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찾아보기 시작했다. 당장 시장의 경제를 질이 좋고 그에 낮은 가격으로 팔 수 있게 바꿀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유행만 따르지 않고 우리의 개성에 집중한다면,  
잠깐 입고 버릴 옷이 아니라 내 몸에 잘 맞아 계속 입을 옷을 구매한다면,  
조금은 달라진 환경을 마주하게 되지 않을까?

또 무슨 방법이 있을까 고민했는데 많은 패션 유튜버들이 보여주는 콘텐츠인 돌려 입기. 나도 항상 말로만 돌려 입어봐야지 했지만, 이번엔 눈에 보이게 해봤다. 우리가 사는 곳이고,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곳 바로 지구이다. 다른 곳으로 갈 생각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한 실수를 바로 잡아 가꾸어야 할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 4. 결과 \_ 덜 유해한 사람

내가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나서 가장 느끼고 싶었던 감정이 뿌듯함과 편안함이었다. 프로젝트를 잘 해내었다는 뿌듯함과 원하는 걸 하였다는 편안함 말이다. 그렇게 원하는 모든 감정을 느끼고 쉬는 동안 나의 프로젝트가 타인에게 전달이 되었는데 고민하였는데 순간 나는 어떤 사람으로 비치고 싶었을까 생각하게 되었다.

착한 사람? 사회운동가? 좀 더 활동적인 고3?

다 아니었다.

그러다 17살 소녀의 한마디.

난 70억 인구에서 덜 유해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 말.

짧은 한마디가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았고 너무 공감하게 되는 말이었다.

그렇다.

난 사회의 일원으로 조금 덜 유해한 사람이고 싶었다.

#### 5. 나 \_ 난 이런 사람이다.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계속 생각해보았다.

미성숙하고 더 배워야 할 것이 많지만 그리고 덜 유해해지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아직 누군가에게는 유해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이런 생각 속에는 아직 프로젝트를 하기 전의 나만이 남아있었다. 그러나 프로젝트를 하면서 아무의 비난도 없었고 나의 도전에 아무도 토를 달지 않았다. 학교와는 다른 환경에선 다른 나를 볼 수 있었다.

일할 때 가장 행복했고,

바쁜 일상이 행복했고,

내 사람들과 있을 때 가장 편했고,

계획적인 삶에 유동성을 주는 게 필요했고 지금은 조금 적응한듯했다.

그래서 2021년 조금 미성숙한 성인이 된 나는 계획적인 삶에서 조금 변수에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계획이 틀어져도 털어버릴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먼저더라고 남의 생각도 고려하여 섞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지금도 노력 중이다.

‘내가 누군지 알면 숨 쉬는 느낌이 든다.

내가 살아 있음을 알면 그만큼 남도 챙길 수 있다.’



감성포켓

|  
김려은

제가 모든걸 포기하고 싶었을때,  
이 프로젝트로 인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많은걸 배웠습니다.

너무 좋은 친구를 만나 좋은 프로젝트를 함께 했고 프로젝트를 하면서  
알게 된 좋은 사람들에게 너무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네요! :)

하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해주고 생각하게 해준 시간들도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실험계획서 + 리뷰



결과 영상  
바로 보기

# [ 나만의 베이킹 ]

고은세



유지와 설탕을 줄인  
건강한 빵 만들어 보기

WHY (1)	설탕과 유지를 조금 넣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건강한 빵을 만들어 주고 싶고 맛있다는걸 보여주고 싶다												
WHY (2)	설탕과 유지를 많이 안 넣어도 맛있어서 사람들이 웃는 모습을 보고 싶다. 빵에 발효종을 넣어 속이 더 편한 빵을 만들고 빵과 과자에 원배합이랑 10g 20g 30g의 유지와 설탕을 줄여보고 먹어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맛을 보여준다												
WHAT	책과 네이버를 참고해서 유지와 설탕을 많이 안 넣고 베이킹을 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나만의 베이킹 책을 만든다. 실험을 하면서 실패와 경험을 통해 성장해 나가고 싶다.												
WHO	베이킹을 하는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받고 싶다												
WHEN	8월달부터 12월까지 한 달에 1~2가지씩												
WHERE	실험 장소는 집. 도구와 재료들이 있어서												
HOW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작업 : 책과 인터넷으로 레시피를 찾아 본다</li> <li>• 장보기 : 그에 맞는 재료를 산다</li> <li>• 만들기 : 찾아본 레시피로 여러 가지 실험해서 만들기</li> <li>• 나누기 : 재미난 카페에서 사람들에게 맛보여주기</li> <li>• 평가 : 평가를 메모지에다가 적어달라고 하기</li> <li>• 개선하기 : 평가를 보고 안 좋은 부분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 보기</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기간</th><th>내용과 방법</th></tr> </thead> <tbody> <tr> <td>8월</td><td>레시피 찾기 장보기 만들기 평가를 바탕으로 개선</td></tr> <tr> <td>9월</td><td>레시피 찾기 장보기 만들기 평가를 바탕으로 개선</td></tr> <tr> <td>10월</td><td>레시피 찾기 장보기 만들기 평가를 바탕으로 개선</td></tr> <tr> <td>11월</td><td>레시피 찾기 장보기 만들기 평가를 바탕으로 개선</td></tr> <tr> <td>12월</td><td>레시피 찾기 장보기 만들기 평가를 바탕으로 개선</td></tr> </tbody> </table>	기간	내용과 방법	8월	레시피 찾기 장보기 만들기 평가를 바탕으로 개선	9월	레시피 찾기 장보기 만들기 평가를 바탕으로 개선	10월	레시피 찾기 장보기 만들기 평가를 바탕으로 개선	11월	레시피 찾기 장보기 만들기 평가를 바탕으로 개선	12월	레시피 찾기 장보기 만들기 평가를 바탕으로 개선
기간	내용과 방법												
8월	레시피 찾기 장보기 만들기 평가를 바탕으로 개선												
9월	레시피 찾기 장보기 만들기 평가를 바탕으로 개선												
10월	레시피 찾기 장보기 만들기 평가를 바탕으로 개선												
11월	레시피 찾기 장보기 만들기 평가를 바탕으로 개선												
12월	레시피 찾기 장보기 만들기 평가를 바탕으로 개선												
프로젝트 기록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만의 노트에 레시피 조사한 것부터 진행과정 기록, 만든 것 사진 찍어 붙인다.</li> <li>• 평가받은 것을 노트에 붙이고 어떻게 개선했는지 개선한 점을 적고 다시 평가를 받아 붙인다.</li> </ul>												

고민되는 지점과 도움받고 싶은 것	식감과 사람들의 반응이 걱정된다.
지원금 사용 계획을 세워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들고 평가를 보고 개선하면서 그에 맞는 재료를 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트, 포장지, 포스트잇, 판과 부재료 등 - 5만원</li> <li>☞ 베이킹 재료 - 15만원(3만원 * 5개월)</li> </ul> </li> </ul>
기대되는 나(우리팀)의 변화와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만의 실험을 하는 게 재미있을 것 같다.</li> <li>• 만들면서 실험해 보고 실패와 경험을 통해 배움을 얻고 싶다.</li> <li>• 과정을 돌아보면서 내가 성장을 했다는 걸 느낄 것 같다.</li> <li>• 내가 만들면서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이 기대된다.</li> </ul>



## 나만의 베이킹

### 고은세

2019년에 십만원 프로젝트를 했을 때는 강아지 간식 만들기를 실험했었는데 이번에는 '나만의 베이킹'이라는 주제로 실험을 했다.

유기농으로 재료를 사서 유지와 설탕을 줄여 만들었다. 파리바게트에 있는 것은 부제 같은 것이 들어 있어서 사람 몸에 안 좋아서 유기농을 선택했다. 그리고 설탕과 유지를 줄여서 사람들 건강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는 마음이기도 했고 내가 단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이기도 했다. 빵에는 이스트를 많이 넣는 것을 대신해서 천연발효종을 넣어 속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다. 왜냐하면 어른들도 빵을 좋아하는데 속이 편하지 않아서 먹고 싶어도 많이 못 드셔서 천연 발효종을 넣어 만들었다. 처음에 만들 때 사람들에게 반응이 신경 쓰였다. 왜냐하면 설탕과 유지를 많이 넣은 것에 익숙해져 있어서 걱정했고 설탕과 유지를 줄이면 식감이 걱정됐다.

처음 실험에서는 머핀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시식평을 적어 달라고 부탁했다. 그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 어떻게 하면 식감이 좋아질까 하고 고민하면서 실험을 통해 평을 듣고 개선해 나갔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많은 시식평을 듣지 못

해 아쉬웠다. 그렇지만 실험이 재미있었고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를 생각 하다 보니 2019년에 십만원 프로젝트를 했을 때는 강아지 간식 만들기를 실험했었는데 이번에는 '나만의 베이킹'이라는 주제로 실험을 했다.

유기농으로 재료를 사서 유지와 설탕을 줄여 만들었다. 파리바게트에 있는 것은 부제 같은 것이 들어 있어서 사람 몸에 안 좋아서 유기농을 선택했다. 그리고 설탕과 유지를 줄여서 사람들 건강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는 마음이기도 했고 내가 단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이기도 했다. 빵에는 이스트를 많이 넣는 것을 대신해서 천연발효종을 넣어 속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다. 왜냐하면 어른들도 빵을 좋아하는데 속이 편하지 않아서 먹고 싶어도 많이 못 드셔서 천연 발효종을 넣어 만들었다. 처음에 만들 때 사람들에게 반응이 신경 쓰였다. 왜냐하면 설탕과 유지를 많이 넣은 것에 익숙해져 있어서 걱정했고 설탕과 유지를 줄이면 식감이 걱정됐다.

처음 실험에서는 머핀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시식평을 적어 달라고 부탁했다. 그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 어떻게 하면 식감이 좋아질까 하고 고민하면서 실험을 통해 평을 듣고 개선해 나갔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많은 시식평을 듣지 못해 아쉬웠다. 그렇지만 실험이 재미있었고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를 생각 하다 보니까 매우 여러 가지 종류를 만들었다.

그중에서 베리머핀이 나는 너무 맛이 있었다. 많이 달지도 않고 느끼하지도 않고 특히 새콤해서 더 맛이 있었다. 버터쿠키배합도 바뀌서 만들었다. 담백하고 적당히 달아서 괜찮았다.

마드레노도 만들어 봤다. 그것도 버터가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만들면 맛있게 나올지 고민을 많이 했다.

쿠키도 만들었다. 또 빵도 만들어 봤다. 하드계열 빵 중에 유지와 설탕이 들어가는

종류가 있었는데 그것을 조금씩 줄여 나가면서 만드니 그러저럭 괜찮았다.

이번 십만원 프로젝트 하는 사람들 몇 명과 숨 선생님과 숨 근처에 계시는 가게들에게 나눠 주었다. 그 자리에서 평도 들었다. 웬지 모르게 포스트잇에 적어주는 것보다 더 떨렸다. 십만원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쿠키를 드리고 평도 부탁했다. 평을 너무 좋게 써주셔서 감사했다.

마지막인데 비대면으로 얼굴을 보는 게 아쉬웠다. 내 담당 선생님이 한번 바뀌었는데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조금 지나고 나니까 괜찮았다. 민정 선생님과 서인 선생님이 항상 볼 때마다 미소로 반겨 주셔서 감사했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주셨다. 그것을 듣고 좋은 의견을 만들어 내서 좋았다. 그리고 까미노 빵집에서 달지 않은 빵을 먹고 공부가 됐다. 다음이 있다면 강아지와 사람이 같이 먹을 수 있는 베이킹을 해보고 싶다.

실험계획서 + 리뷰



결과 영상  
바로 보기

## [ 내가 가는 길이 정답 ]

손민서  
이송희



고3 친구들에게 힐링을 줄 수 있는  
간식 만들기



WHY (1)	고3 친구들에게 힐링을 주기 위해서												
WHY (2)	달달한 간식을 처음 만들어 보고												
WHAT	간식 만들기를 배운다												
WH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빵 알려주시는 분을 만나고 싶다. 간식을 더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li> <li>• 팀 친구와 배려와 협동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다.</li> </ul>												
WHEN	10월 초												
WHERE	마을배움터의 간식을 만들 수 있는 공간 (간식만들기를 알려주실 분이 계시기 때문)												
HOW	<table border="1"> <thead> <tr> <th>기간</th><th>내용과 방법</th></tr> </thead> <tbody> <tr> <td>8월</td><td>마을배움터 견학 및 짬뽕쌈과의 첫만남</td></tr> <tr> <td>9월</td><td>재료 구상 및 프로젝트 계획 세우기</td></tr> <tr> <td>10월</td><td>간식 만들기 및 나눠주기</td></tr> <tr> <td>11월</td><td>후원 악세서리 구매</td></tr> <tr> <td>12월</td><td>성인파티</td></tr> </tbody> </table>	기간	내용과 방법	8월	마을배움터 견학 및 짬뽕쌈과의 첫만남	9월	재료 구상 및 프로젝트 계획 세우기	10월	간식 만들기 및 나눠주기	11월	후원 악세서리 구매	12월	성인파티
기간	내용과 방법												
8월	마을배움터 견학 및 짬뽕쌈과의 첫만남												
9월	재료 구상 및 프로젝트 계획 세우기												
10월	간식 만들기 및 나눠주기												
11월	후원 악세서리 구매												
12월	성인파티												
프로젝트 기록방식	사진 찍기												
고민되는 지점과 도움받고 싶은 것	간식만들기 도움 필요												
지원금 사용 계획을 세워보자!	간식재료, 담을상자, 과자, 젤리												
기대되는 나(우리팀)의 변화와 성장	만드는 즐거움, 친구에게 전해줄 때												

실험계획서 + 리뷰



결과 영상  
바로 보기

[ 코스모스 ]

임우석



여러 가지 활동을 해 보면서

나를 표현해 보기

WHY (1)	예술 활동을 해보면 꿈에 대해 생각하고 나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데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예전에 음악에 대한 경험이 좀 있어 프로듀싱을 해보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또 프로듀싱만 하지 않고 밖에서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여러 경험들을 쌓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찾아보고싶기 때문입니다.												
WHY (2)	예술가가 꿈이라면 어떤 예술을 하고 싶은지, 예술을 하면서 무엇을 얻고자, 이루고자 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싶습니다.												
WHAT	전시회를 관람하거나 여러 지역에 방문해 보는 등 여러 활동들을 해 보며 경험들을 많이 해보고, 그 활동들을 하면서 느낀 것을 음악으로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WHO	음악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프로듀싱을 하는 데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지만, 작곡이나 악기를 다루는 방법은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공부 할 수 있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거나 경제성을 따지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예술을 하면서 사는 분들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리짓군즈라는 음악과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모이신 그룹이 있는데, 그분들을 보고 나중에 그렇게 재밌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WHEN	나의 앞으로의 스케줄을 살펴보고 일정을 잡아보자												
WHERE	작곡은 집이나 카페같이 장비를 놓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 할 수 있으니, 해보고 싶다고 생각이 드는 장소에서 할 생각입니다.												
HOW	<table border="1"> <tr> <th>기간</th><th>내용과 방법</th></tr> <tr> <td>8월</td><td>악기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 익힌다.</td></tr> <tr> <td>9월</td><td>여러 가지 곡들을 리메이크 해본다.</td></tr> <tr> <td>10월</td><td>여러 가지 해보고 싶은 활동(전시회나 여러 지역 방문)을 해보면서 만들 음악에 대한 주제를 정한다.</td></tr> <tr> <td>11월</td><td>프로듀싱 시작</td></tr> <tr> <td>12월</td><td>프로듀싱 마무리 및 앨범 커버 제작</td></tr> </table>	기간	내용과 방법	8월	악기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 익힌다.	9월	여러 가지 곡들을 리메이크 해본다.	10월	여러 가지 해보고 싶은 활동(전시회나 여러 지역 방문)을 해보면서 만들 음악에 대한 주제를 정한다.	11월	프로듀싱 시작	12월	프로듀싱 마무리 및 앨범 커버 제작
기간	내용과 방법												
8월	악기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 익힌다.												
9월	여러 가지 곡들을 리메이크 해본다.												
10월	여러 가지 해보고 싶은 활동(전시회나 여러 지역 방문)을 해보면서 만들 음악에 대한 주제를 정한다.												
11월	프로듀싱 시작												
12월	프로듀싱 마무리 및 앨범 커버 제작												

프로젝트 기록방식	활동하면서 사진을 찍고, 활동한 날을 일기형식으로 그 날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하면서 어떤 생각들이 들었는지 간략히 적으면서 기록할 예정입니다.
고민되는 지점과 도움받고 싶은 것	마스터 키보드가 처음 다뤄보는 악기여서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고 프로듀싱도 처음 해봐서 공부하는 데에도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지원금 사용 계획을 세워보자!	악기(마스터 키보드)를 구매하는 데에 이용하거나 여러 활동들을 하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기대되는 나(우리팀)의 변화와 성장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나'에 대해 좀 더 알아가고 좀 더 구체적인 꿈에 대해 고민하고 그 꿈을 위한 계획을 세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 전엔 막연히 예술을 하고 싶었지만, 이번 기회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예술이 어떤 예술인지에 대해 좀 더 진지하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코스모스(COSMOS)

|

임우석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떤 확실한 결과를 내진 못했지만, 여러 가지 내가 해보고 싶은 활동들을 해보면서 진짜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가고, 앞으로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알아보고,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렇게 내가 해보고 싶은 것들을 맘껏 해보기 전에는 뭔가를 할 때 마다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어도 괜찮을까?', '이거 해도 괜찮은 건가?'하는 등의 생각들을 했었지만 이제는 내가 하는 행동들에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생각을 해봤다. 요리도 좋아하고 음악도 좋아하고 그림도 좋아하고 사진도 좋아하고 디자인도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 뭘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었다. 그러다가 든 생각은, '굳이 왜 하나만 해야 하는가'였다.

피자집을 열 것이다. 사람들이 와서 맛있는 음식과 음악, 그리고 시각적인 것을 즐길 수 있는 피자집. 피자집이라기보단 문화복합공간에 가깝다. 아티스트들이 와서 공연이나 전시회도 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사람들이 와서 재밌고 편하게 놀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어릴 땐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돈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좋아하는 사람들과 재밌게 사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배웠다. 나중에 후회 없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씩 해나가면서 재밌게 살고 싶다.

실험계획서 + 리뷰

결과 영상  
바로 보기

## 내가 찾던 힐링

김진희



자연과 일상(카페)을  
카메라에 담으며 나만의 힐링찾기

WHO	혼자 떠나기 하지만 함께 가게 된다면 친구와 가족이 좋은 것 같다.												
WHEN	나의 앞으로의 스케줄을 살펴보고 일정을 잡아보자												
WHERE	반포대교, 서울 식물원, 서울숲, 양평 두물머리, 행주 산성공원 등등 여러 곳으로 출사를 떠나고 싶다.												
WHAT	우리의 일상과 자연에서 느낄 수 있는 편안함과 자연스러움을 있는 그대로 느끼며 그 속에서 내가 찾던 휴식과 힐링을 하고 싶다. 또한 그때그때 느낀 '나'의 생각, 감정을 정리하고 스트레스 받는 인 간관계, 학업 등에서의 벗어나 스트레스를 떨쳐버리고 싶다. 그렇게 한다면 온전한 나를 찾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HOW	<table border="1"> <thead> <tr> <th>기간</th><th>내용과 방법</th></tr> </thead> <tbody> <tr> <td>8월</td><td>반포대교와 백민건널목(철로쪽) 출사.</td></tr> <tr> <td>9월</td><td>서울식물원 출사</td></tr> <tr> <td>10월</td><td>서울숲 출사</td></tr> <tr> <td>11월</td><td>양평 두물머리 출사</td></tr> <tr> <td>12월</td><td>행주산성공원 출사</td></tr> </tbody> </table> <p>작년 참가를 통해 길고양이에 대해 생각해보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알게 되었다.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고 사진과 글을 통 해 기록이 쌓이고 그것을 책으로 만들어 직접 내 눈으로 보았을 때 감회가 새달랐다.</p> <p>그래서 이번에는 자연과 사진으로 나를 찾아보는 프로젝트를 진행 해 보고 싶다. 저번 활동에서는 '나'라는 사람은 단지 중간을 거쳐가 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번엔 사진과 자연 나를 묶어 또 하나의 기 록으로 만들어가고 싶다.</p>	기간	내용과 방법	8월	반포대교와 백민건널목(철로쪽) 출사.	9월	서울식물원 출사	10월	서울숲 출사	11월	양평 두물머리 출사	12월	행주산성공원 출사
기간	내용과 방법												
8월	반포대교와 백민건널목(철로쪽) 출사.												
9월	서울식물원 출사												
10월	서울숲 출사												
11월	양평 두물머리 출사												
12월	행주산성공원 출사												
WHY (2)	우선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하려 했던 것들이 모두 뒤로 미뤄졌고, 그 공백으로 인해 반복되고 지치는 사회와 인간관계, 학업에서 벗어 나 새로운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중 마침 20만 원 프로젝트의 기회가 생겼고 사진을 찍어 우리가 매 일 또는 당연하게 보는 일상과 자연을 기록하고 싶어졌다. 그리고 그것을 하면서 휴식과 힐링을 하며, 담백하게 나를 기록 하고 싶다.												

프로젝트 기록방식	어플을 통해 그날그날 찍은 사진과 나의 생각, 그때 느낀 감정 등을 꾸준히 작성하고 나중에 나만의 전시로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나누고 싶다. 민정샘과도 사진을 주고 받으며 이야기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고민되는 지점과 도움받고 싶은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언가를 하고 잘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내가 정말 즐기며 휴식과 힐링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너무 완벽하게 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너무 노력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li> <li>• 내가 찍은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내 마음과 같이 않다는 생각도 종종 들 것 같다. ㅎㅎ</li> <li>• 사진을 잘 아는 선생님과 이야기해 보고 싶다.</li> </ul>
지원금 사용 계획을 세워보자!	숙박비? 10만원 식비(간식비) 10만원?
기대되는 나(우리팀)의 변화와 성장	<p>나의 사진은 어떤 느낌인지 찾는 것이 나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가는 시간을 보내고 싶다.</p> <p>12월에는 조금 더 여유롭고 느긋한 내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p>



## 내가 찾던 힐링

김진희

###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시간 속 이야기

<2020 너의 뒤에서 날 바라보고>

코로나로 인해 일상이었던 것들이 많이 달라진 한 해였다. 어쩌면 익숙하지 않음에 적응하기 위해 더 바쁘게 지낸 나날들.

또한 내 안의 나약함을 마주하기 싫어서 회피하고 모른척했다.

남들에게 들키는 건 죽기보다 더 싫었고.. 괜한 고집이었다는 건 얼마 안 가 깨닫게 되었지만.

어쨌든 그 때문에 처음 계획했던 나의 힐링, 쉼을 찾기 위한 계획과 목표에는 너무 많이 떨어진 상태였다. 학교에서의 생활, 새로운 인간관계, 학생회, 부과대, 부모님과의 갈등 등.. 뭐 그 밖의 여러 가지 일들이 시도 때도 없이 나를 파도처럼 덮치고 휩

슬었다. 또한 그 자리에 대한 책임감, 누군가의 응원이 무겁게도 다가왔으며 잠깐의  
쉽과 함께 오는 불안감과 또다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들이 나를 미치게 했다.  
그리고 다 끝날 후에 그 순간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조용히 무너져내린 내 몸과 마음.  
그 시간들은 때때로는 나를 기분파로도, 나를 잠만보로도 만들며 나를 가지고 놀 듯  
조종했다. 그리고 나면 나 자신이 싫어지고 후회됐지만 다시금 나타나는 그 기분과  
행동들에 난 또다시 잠식당해 잠을 자고, 자고 또 잠을 잤다.

그리고 중간중간 드는 프로젝트에 대한 생각... 또다시 난 결국 벗어날 수 없는 생  
각의 굴레 속에서 성취감이 아닌, 어김없이 찾아오는 무기력함과 공허함의 시간들을  
보냈다.

그러다 문득 뭘 좋아하나는 가벼운 질문에 머리가 하얗게 변해버린 나를 직면하고  
야 말았다. 분명 나를 향한 따뜻한 질문임에도 말문이 막혀 조금은 부끄러웠고, 머  
리가 아닌 심장에 아프게 내리꽂혀진 그 질문은 그제서야 명청하게도 나를 돌아보  
는 시간들이 되어주었다. 위로가 필요했다고, 누군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해주길 기  
다렸다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지만. 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리고 돌아가고 싶었다. 그때의 나로. 진정 나를 위해 살던 나로.

<나의 20살 그리고 10만원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면서. 어쩌면 후회가 아닌 시간들>

어느샌가부터 항상 주변 사람들이 넌 너무 쓸데없이 열심히 살아. 여전하네. 꾸준  
하네.라는 말을 듣고 나서야 내가 열심히 살았구나. 잘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  
다. 하지만 문득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열심히 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움츠러들었  
다. 그리고 좌절했다. 왜?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나름 (나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거  
같은데.

이런저런 생각들이 나를 집어삼키고 한동안 계속 침체기에 시달렸다.  
부정적인 나의 성격이 여기서도 한 몫 했지만.. ㅎㅎ

그러던 중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좀 안타까워.라는 말을 듣고 나서 머리가 멍해졌  
다. 내가 불쌍한가? 고민하다가 나 좀 불쌍한 것 같아.라는 결론이 나왔다. 물론 지금  
생각해 보면 스스로에 대한 간사한 동정이자 자기 연민, 또 자기합리화에 빠진 것뿐  
이었지만. 아무튼 그렇게 내 마음도 모른 채 계속해 시간은 흘러갔다.

수고했다고  
더 잘 할 수 있었던 말로  
채찍질하지 마  
I did a freaking good job  
이 정도면 뭐  
편히 쉬어도 돼

-스텔라장 Good job 가사 중-

그러던 중 어느 날 문득 노래를 듣다가 스스로에게 너무 채찍질하고 있었다는걸,  
또한 남들 다 무언가 하니깐. 안주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했던 모든 일들이. 처음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는지도 모른 채, 뭔지도 모르는 곳에 목을 매고 있었다는 걸 알  
게 되었다.

하지만 난 내 마음을 다독이는 방법을 몰랐고 내 상태를 자각하자 또다시 남들과  
나를 비교하며 질책했다. 빨리 이 상태를 벗어나고 싶어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  
을 했고, 그렇게 선급하게 결정한 나의 두 번째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매 순간, 정말 이게 맞아?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시간들이었다. 그러나 그 시간들(프로젝트)을 통해 그래도 조금은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 내가 가야 하는 길들을 알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뭐 어떻게 보면 딱히 특별할 것 없는 그런 쉽이자, 소소한 행복이었지만 그 특별할  
것 없는 시간들이 난 텃없이 좋았다. 나다워서. 온전히 나였기에.



리뷰

결과 영상  
바로 보기

우주조류

김지우



우주에서 표류하고 있는  
지금 나의 이야기를  
글로 쓰고 그림으로 그려보기

게으름이 아니라  
요양중인 거임

우주조류

김지우

시간은 그렇게 흐르고

올해 십만원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할 때에는 자신만만했다. 여러 조사와 학술적 공부, 인터뷰 등 사실 학생으로서 시간을 내기 어려운 활동들이 가득했지만 미래의 내가 잘해낼 거란 확신이 있었다. 나는 그동안 살면서 언제나 그랬기 때문이다. 학교도, 일도, 아무리 힘들어 그만두고 싶어도 끝까지 어떻게든 잘해냈었다. 오기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일조차 없이, 나에겐 당연한 것이었다. 중간에 포기하거나 무언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나 또한 가치없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올해 9월 나는 정말로 스스로가 생각하던 가치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생활이 무너졌다. 전부터 우울증이 있었고, 있는데도 내 인생을 아등바등 끌고 오던 거지만... 갑자기 더 이상 끌어당길 수가 없더라. 너무 오래 달려 다리에 힘이 풀려

버린 사람처럼, 내 자아는 아무리 내가 다그쳐도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야, 난 못해. 내가 날 잡아끌어당겨줘도 못한다고. 난 앉아서 좀 쉴래.

내가 못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 죄책감이 들었다. 대충 다니고 과제도 제출 안하며 학교에 끼치는 민폐. 내가 해야하지만 밀려있는 일감. 잉여처럼 누워있는 나를 바라봐야 하는 부모님. 계획과 다르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십만원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자책했다. 지원금까지 받았으니 무언가 제대로 해내야 하지 않겠는가. 아니, 지원금 보다는 차라리 나를 믿어주신 선생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컸다. 남들에 비하면 어릴 때부터 돈을 벌었기에 10만원은 갚고자 하면 어떻게든 쉽게 채워넣을 것 같았다. 그러나 도저히 믿음과 응원은 어떻게 갚아야할줄 몰라 전전긍긍했다. 성희 선생님과, 그리고 다른 좋은 어른들과 이야기하며 응원을 부채처럼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아무튼 그때의 나는 그랬다.

그런 색안경으로 세상을 보면 내 인생은 빗투성이였다. 안 그래도 움직이지 못하는 몸뚱아리로 어떻게든 그것들을 갚아내려 노력하다 또다시 몇 번이고 무너졌다. 절망스러웠다.

내가 전에 계획했던 연구프로젝트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은 직감했다. 우울증 때문에 옅은 난독증 증세까지 있는데 논문을 뒤지는 일은 무리였다. 그래도... 이대로 멈추고 싶진 않았다. 나를 너무나 도와주신 마을배움터에 대한 부채감도 있었지만, 아깝단 마음이 컸다. 거의 2년을 여기에 쏟았는데 그냥 그만둘 순 없어. 그런 생각으로 어떻게든 프로젝트를 이어나갈 방법을 고민했다.

나는 오랜시간동안 글로 돈을 벌고 또한 그만큼 쉽게 썼다. 그런데 이제는 글을 쓸 수 없으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물론 못 그린다. 내가 그림에 재능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그쪽 분야로 나갔지, 굳이 글을 열심히 쓸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거의 낙서같은 그림을 하나둘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이상하게, 위안이 되었다.

글은 아무리 써도 일이라는 느낌이 들기에 조금씩 불편하지만, 그림은 그런 것 없이 온전히 내 의지대로 노는 일이니까. 글로는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농담들을 그림으로 어떻게 그릴지 고민했다. 선생님께 오랜만에 연락드려 내가 그린 일러스트들을 보내드렸다.


선생님이 그 그림들을 보고 재밌다고 해 주셨을 때 내 세상이 밝아졌다.

평생 나는 나를 내 능력으로 정의했는데..... 공부, 성적, 글쓰기.....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을 때, 문득. 나는 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너무 목에 칼이 들어온 듯이 집착하며 살 필요는 없었다.

설렁설렁 그린 낙서도 남에게 감동을 줄 때가 있고, 무엇보다 중요하게 스스로에게 위로가 된다.

음, 사실 아직도 부족하긴 하다. '존재로서 온전하다'는 말이 머리로는 이해가도 마음으로는 모르겠다. 그래도 나는 재미있게 그린 낙서처럼, 가볍게 춤추며 살아가고 싶다. 조금 모자라도 행복하게. 마라톤 선수보다는 여기저기 샛길로 새며 여행하는 바보처럼. 한번 무너졌던 내 인생, 좀 무너져도 괜찮다는 사실을 그렇게 배우고 있다.


실험계획서 + 리뷰



결과 영상  
바로 보기

# [ 내 안에 우리동네있다 ]

김혜원  
권지원



우리 동네를 관찰하여 사진으로 찍고  
퍼즐로 제작하여 다 같이 모여서 맞추고  
사진을 전시함으로써  
우리 동네의 소소한 일상을 즐긴다.

WHY (1)	무심코 지나쳤던 우리 동네의 작지만 소중한 것들을 기억하고 싶어 사진으로라도 남기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사진을 찍는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다.						
WHY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 : 찍은 사진 중 하나를 퍼즐로 제작하는 것</li> <li>• 이유 : 코로나 때문에 모두 지치고 힘들어서 조각나버린 일상을 하나하나 맞춰가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찍은 사진을 퍼즐로 제작하여 다 같이 맞추면서 무료해진 일상을 다 같이 이겨내고 싶다.</li> </ul>						
WHAT	일상 사진 속 어떤 사진은 남은 계절 동안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사진을 찍고 바뀐 점을 비교, 관찰하기도 한다. 그러다 보면 사소한 것이라도 관찰하는 법을 배우고 그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진을 많이 찍다 보면 사진 찍는 기술도 성장할 것이다. 또한 마음에 드는 완벽한 사진을 건질 때까지 많은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것이다.						
WHO	프로젝트 과정에서 사진작가를 만나보면 좋을 것 같다. 이유는 다양한 경험을 들어보기도 하고, 사진을 찍는 기술(구도나 기술 등)을 배우고, 먼저 찍은 사진에 대해 피드백을 받기 위해 만나보고 싶다. (지원: 영수증 정리 / 혜원: 가계부 정리 / 공동: sns 업로드)						
WHEN	1주일에 한 번 이상 각자 사진을 찍고 그중에 골라서 짧은 글과 함께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한다.						
WHE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실험 장소 : 우리 동네 어디든</li> <li>• 이유 : 우리 동네의 분위기와 일상을 담기 위해서이다.</li> <li>• 필요한 장소 : 회의를 하기 위해 카페 같은 조용하고 쾌적한 공간이 필요하고,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우리 동네 어디든 상관없다.</li> </ul>						
HOW	<table border="1"> <thead> <tr> <th>기간</th><th>내용과 방법</th></tr> </thead> <tbody> <tr> <td>8월</td><td>만나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회의하고 날씨가 좋은 날에 밖에서 사진 찍기</td></tr> <tr> <td>9월</td><td>인터넷으로 사진 전시회에 대해 검색 후 가서 다양한 사진을 보고 분석을 통해 경험 쌓기, 한 번 갔던 곳을 반복해서 가 보면서 변화한 점을 발견해 보기</td></tr> </tbody> </table>	기간	내용과 방법	8월	만나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회의하고 날씨가 좋은 날에 밖에서 사진 찍기	9월	인터넷으로 사진 전시회에 대해 검색 후 가서 다양한 사진을 보고 분석을 통해 경험 쌓기, 한 번 갔던 곳을 반복해서 가 보면서 변화한 점을 발견해 보기
기간	내용과 방법						
8월	만나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회의하고 날씨가 좋은 날에 밖에서 사진 찍기						
9월	인터넷으로 사진 전시회에 대해 검색 후 가서 다양한 사진을 보고 분석을 통해 경험 쌓기, 한 번 갔던 곳을 반복해서 가 보면서 변화한 점을 발견해 보기						

HOW	기간	내용과 방법
	10월	중간점검
	11월	사진 찍은 것들은 sns를 통해서 정리하고, 그중 하나로 퍼즐 제작
	12월	예산 정리, 마무리, 사진 전시
프로젝트 기록방식	SNS(인스타그램)에 사진 찍을 당시의 상황이나 느낌 또는 감정을 담은 짧은 글과 우리 동네 사진 2장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업로드를 통해 기록한다.	
고민되는 지점과 도움받고 싶은 것	모모학당에서 사진작가를 만날 수 있겠지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면 잘 배우지 못할 것 같아서 걱정이다.	
지원금 사용 계획을 세워보자!	회의할 때 간식비 (5,000원X2=10,000원)X2=20,000원, 퍼즐을 제작비 50,000원, 전시회 비용 15,000원X2=30,000원	
기대되는 나(우리팀)의 변화와 성장	프로젝트를 하면서 우리 동네의 사진을 찍으려고 관찰을 하다 보면 그동안 눈여겨보지 않아서 있는지도 잘 몰랐던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 새로운 것 같고, 이미 알고 있었던 것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게 된다는 점이 흥미로울 것 같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주변에는 그냥 지나쳐서 몰랐던 것들이 많고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도 많다. 그 많은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사소한 것이라도 자세히 관찰하는 관찰력을 높이고 시야를 넓혀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점점 성장하는 관찰력으로 보는 모든 것들을 통해 배움을 얻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도 길을 걷거나 지하철을 탈 때 스마트폰만 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 세상을 보는 마음가짐을 항상 지니게 되었으면 좋겠다.	



내 안에 우리동네 있다

김혜원

십만원 프로젝트를 시작 한 지 벌써 1년이 흘렀다. 우리의 프로젝트는 우리 동네의 사진을 찍어서 퍼즐로 남겨보자 인데 다른 팀들도 만나보고 함께 이야기를 해보니 하고싶은 게 더 많아졌다. 올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도 많이 만나보지 못 하고 사진도 많이 찍으려 다니지 못 해서 아쉬웠지만 줌으로 다른 팀원들을 만나 보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십만원 프로젝트로 평소에는 하지 못 했던 것 들을 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 직접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어볼 수 있어서 새로운 경험이었고, 또 그 사진들을 평소에 좋아하던 퍼즐로도 만들어볼 수 있어서 뜻깊었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마지막에 십만원 프로젝트 팀원들이 모두 모여서 하는 온라인 축제였다. 실제로 만나서 했더라면 더 재밌었겠지만 온라인으로도 축제를 하게되어 좋았다. 우리가 찍은 사진퍼즐을 전시하고, 또 그 전시장을 직접 꾸미고 직접 소개하는 활동도 재밌었다. 그리고 직접 만든 쿠키와 반지 등 택배로 프로젝트를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좋았던 것 같다. 1년 동안에 모두가 노력하여 이뤄 낸 성과를 보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이렇게 1년 동안의 십만원 프로젝트가 끝이 났는데 이렇게 마무리 에세이를 쓰면서 그동안에 했던 활동들이 정말 소중한 경험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즐거웠다~!



내 안에 우리동네 있다

권지원

처음에는 코로나가 이렇게 심한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10만 원 프로젝트를 한다는 얘기를 그냥 흘려 들었는데 학교에서 공지를 올려주고 선생님이 알려주시고 그러다 보니 관심이 생겼다. 그래서 신청은 하고 싶는데 뭘 해야 할까 오래 고민하다 보니 신청 마지막 날 우리 동네 사진을 찍고 그것들 중 하나를 퍼즐로 만들겠다는 내용으로 큰 틀만 잡고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하다 보니 한 번 제대로 해보자는 생각에 어떤 의미를 담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다. 그러다 우리 동네에서의 일상을 찍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걸 퍼즐로도 만들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으로 신청했다.

그렇게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많이 돌아다닐 수는 없었지만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나름 열심히 찍었다. 동네를 찍으면서 보니까 평소에는 그냥 핸드폰 하거나 뛰어가거나 앞만 보고 갔는데 뭘 찍어야 잘 나올까 예쁘게 나올까 하다가 처음 다 같이 온 라인으로 만났을 때 사진 찍는 팀들은 관찰을 잘 해야 한다고 하였던 말씀이 생각나서 천천히 또는 멈춰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니 처음 보는 것도 있었고 변한 것들이 많았다. 그리고 새삼 우리 동네가 예쁘고 볼 것이 많구나라는 생

각이 많이 들었다. 최대한 자주 지나가니던 길을 다시 가보았고 골목이나 우이천을 많이 갔던 것 같다. 이렇게 찍은 사진들을 골라서 퍼즐을 만들어 보았는데 생각보다 예뻐서 놀랐다. 그리고 축제 전시를 준비하는 동안 언제 또 내가 이런 걸 해볼까 하는 생각에 열심히 했다. 기획단 언니들이 도와주시고 의견 내는 것마다 다 좋다고 해주셔서 더 많은 의견을 낼 수 있었고 준비를 도와주셔서 더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왔던 것 같다.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맨날 똑같이 반복되는 하루에서 즐거움을 찾게 되었고 앞만 보고 가다가 가끔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며 가는 법도 배운 것 같았다. 그리고 다른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 많은 경험과 추억을 쌓았던 것 같다.

## 실험계획서



## 인파많은파

처조영



인권에 관련된 논문을  
찾아보거나 책을 사서 보고,  
내용을 정리하기

WHY (1)	제가 이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은 이유는 고등학교 통합사회 시간에 인권에 대해 배운 적이 있는데, 듣고 생각해 보니, '나는 인권에 대하여 자세히 아는 것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이번 기회에 이 프로젝트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WHY (2)	이 프로젝트에서 최대한 많이 정보를 수집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일단 인권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여 그 정보로, 사회적 약자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사례와 연관지어 생각해보고, 궁극적으로, 제가 인권이란 분야에 얼마나 관심이 있고, 또 어떤 인권 분야 직업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WHAT	인권에 관련된 도서, 혹은 청소년 인권에 관련된 도서, 아니면 인권 침해사례나 인권 관련 사례를 찾아보고, 그것을 정리하여 조사보고서나 ppt를 작성하여 마을배움터나 반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WHO	짜깁쟁이 많은 조연을 주셨으면 좋겠다.^^												
WHEN	나의 앞으로의 스케줄을 살펴보며 일정을 잡아보자												
WHERE	주요 실험 장소는 집이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정보를 조사하려면 집에서 컴퓨터로 조사하는 것이 제일 빠르기 때문이다.												
HOW	<table border="1"> <thead> <tr> <th>기간</th><th>내용과 방법</th></tr> </thead> <tbody> <tr> <td>8월</td><td>돈을 쓸 계획과 무슨 책을 살지 교보문고 사이트로 정할 것이다.</td></tr> <tr> <td>9월</td><td>책을 사서 독서를 해보고, 책을 통해 내 의견을 적어 친구들이나 마을배움터에 공유해본다.</td></tr> <tr> <td>10월</td><td>인권침해 사례 같은 것을 찾아보고, 인권에 관련하여 내 생각을 적어본다.</td></tr> <tr> <td>11월</td><td>모든 자료조사를 끝내고, 보고서나 ppt를 작성한다.</td></tr> <tr> <td>12월</td><td>작성한 것을 가지고 마을배움터나 학교 친구들, 또는 선생님에게 보여주거나 알린다.</td></tr> </tbody> </table>	기간	내용과 방법	8월	돈을 쓸 계획과 무슨 책을 살지 교보문고 사이트로 정할 것이다.	9월	책을 사서 독서를 해보고, 책을 통해 내 의견을 적어 친구들이나 마을배움터에 공유해본다.	10월	인권침해 사례 같은 것을 찾아보고, 인권에 관련하여 내 생각을 적어본다.	11월	모든 자료조사를 끝내고, 보고서나 ppt를 작성한다.	12월	작성한 것을 가지고 마을배움터나 학교 친구들, 또는 선생님에게 보여주거나 알린다.
기간	내용과 방법												
8월	돈을 쓸 계획과 무슨 책을 살지 교보문고 사이트로 정할 것이다.												
9월	책을 사서 독서를 해보고, 책을 통해 내 의견을 적어 친구들이나 마을배움터에 공유해본다.												
10월	인권침해 사례 같은 것을 찾아보고, 인권에 관련하여 내 생각을 적어본다.												
11월	모든 자료조사를 끝내고, 보고서나 ppt를 작성한다.												
12월	작성한 것을 가지고 마을배움터나 학교 친구들, 또는 선생님에게 보여주거나 알린다.												



프로젝트 기록방식	스스로 질문을 해보고, 인터넷으로 조사하고 내 생각까지 적기
고민되는 지점과 도움받고 싶은 것	실패해도 괜찮다고 하셨지만,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긴장이 된다. 그리고 독서를 하면서, 선생님의견을 들어서 결과물에 반영하고 싶다.
지원금 사용 계획을 세워보자!	책 : 인권, 교문을 넘다.
기대되는 나(우리팀)의 변화와 성장	<p>학교에서 하는 다른 프로젝트나 다른 활동들을 보면, 실패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이 프로젝트는 시도하고 실패해도 그것을 응원하고 증명하는 것을 보고, 전 이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p> <p>그리고 또, 인권에 대하여 조사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인권이란 것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갖고, 또 그것을 활용하게 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하며 같은 프로젝트를 하는 참가자들이나 짝꿍쟁이를 만나면서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p>

실험계획서 + 리뷰

결과 영상 바로 보기

[ EARTH PROJECT ]

강동현  
권순현  
김경수  
조예준  
홍유태

릴 디키의 Earth 라는 곡을 커버 녹음하고,  
영상도 제작하여 SNS에 공유한다.  
학교에서 기부금을 모금해 지구 후원 단체나  
코로나 관련 기부를 실천한다.

시민권 마을배움 Storytelling Book

시민권 마을배움 Storytelling Book

237

WHY (1)	릴 디키의 EARTH 라는 곡을 들으면서 이 곡이 모든 수익금을 지구 후원단체에 기부 하였다는 것이 멋있어 보이고, 우리도 실천하면 뿌듯할 것 같아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WHY (2)	프로젝트를 제작하고 기부 활동을 하면서 고등학교 때의 추억을 만들고, 만든 영상을 SNS에 공유하여 일과 학업에 지친 사람들에게 영상을 보는 짧은 시간이라도 즐거움을 주고 싶다.
WHAT	기부 활동의 뿌듯함. 기부를 하면서 자신을 위해 쓰는 돈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돈의 값어치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고등학교 때의 추억. 친구들과 같이 녹음을 하고 제작하면서 성인이 되어서는 만들 수 없는 추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WH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동현 : 녹음의 참가하는 16명의 친구들에게 스케줄을 짜고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제공원 및 홍보 담당</li> <li>• 권순현 : 제공받은 돈을 관리하고 영상을 촬영하는 회계 및 촬영 담당</li> <li>• 김경수 : 녹음과 영상에 큰 도움을 주고 팀의 얼굴을 담당하는 대장 및 얼굴 담당</li> <li>• 조예준 : 녹음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프로젝트에 있어서 관련된 미술 관련 업무 담당</li> <li>• 홍유태 : 촬영된 영상을 편집하는 영상 편집 담당</li> </ul>
WH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월 달 안에 녹음을 마무리 짓는다.</li> <li>• 9월 달에 개학과 동시에 2주간 기부금을 모으면서 영상 촬영에 들어간다. 기부금과 영상이 모두 완료가 되면 편집을 하여 9월달 안에 영상제작을 마친다.</li> <li>• 10월 달에는 만들어진 영상으로 SNS에 공유를 하고 여러 공모전에 참가한다.</li> <li>• 11월 달 및 12월 달에는 영상의 후기를 작성한다.</li> </ul>
WHERE	학교. 학교에서 기부금도 모으고 대부분의 촬영을 하기 때문에 학교가 주요 장소이다.

HOW	기간	내용과 방법
	8월	총 16명의 친구들과 함께 녹음을 하여 녹음 및 믹싱을 마무리 짓는다.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학과 동시에 2주간 학교에 모금함을 만들어 모금을 한다. 또, 모금을 하는 동안 영상을 촬영한다.</li> <li>• 모금과 영상 촬영이 끝나면 모금한 돈을 기부하고, 영상 제작을 한다.</li> </ul>
	10월	만들어진 영상을 SMS에 공유하고, 여러 영상 공모전에 참가한다.
	11, 12월	SNS에 공유된 영상과 여러 공모전에 참가했던 활동을 한 번 더 정리하고 완성된 영상, 그리고 영상 제작에 참가했던 후기를 작성한다.
프로젝트 기록방식	사진과 약간의 글, 그리고 영상으로 기록한다.	
고민되는 지점과 도움받고 싶은 것	기부금을 모을 때 과연 학교에서 모금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잘 알려지고, 많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모금에 참여해줄지 조금 걱정이 된다. 아직까지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필요한 도움이 생각나지 않는다. 나중에 다시 한 번 놀러가고 싶다.	
지원금 사용 계획을 세워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부금을 모금할 기부함.</li> <li>• 도움을 준 친구들에게 조그만한 선물</li> <li>• 영상에 필요할 것 같은 동물 관련 옷이나 장식품들</li> <li>• 영상을 제작하면서 배고픈 배를 채워주고 회의의 시간을 갖게 해주는 간식비용 등..</li> </ul>	
기대되는 나(우리팀)의 변화와 성장	프로젝트를 하면서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아 즐겁다. 마지막 고등학교 생활인 만큼 큰 추억을 쌓고 싶다. 우리 뿐만 아니라 기부를 도와주는 학생 및 선생님들, SNS에 공유된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즐거움을 느끼고, 기부의 뿌듯함을 알아갔으면 좋겠다. 내년엔 성인이 되는 만큼 이 활동으로 조금이나마 어른으로써 성장하고, 철이 들었으면 좋겠다.	



## EARTH PROJECT

홍유태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 나가고 별로 하는 것도 없이 순식간에 지나갈 뻔 했지만, 그래도 십만원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친구들과 졸업 전에 추억도 남기고, 즐겁게 영상도 만들어서 다행히 좋은 활동 하나 한 것 같아 뿌듯하다.

원래 영상 촬영 및 제작에 점점 흥미를 잃어가고 있었지만, 이번 활동 덕분에 다시 동기부여를 가지게 된 것 같다. 졸업 후에도 여러 영상을 친구들과 함께 제작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영상 제작 및 기부에 도움을 준 선생님들, 학생들, 그리고 마을배움터에 정말 다시 한 번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



## EARTH PROJECT


권순현

생각보다 재미있었고 평소에 자급에 대한 부담때문에 친구들과 해보지 못했던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비록 코로나때문에 지금은 많이 힘들지만 또 비대면 온라인이라는 색다른 재미도 느낄 수 있었다.

다양한 분야의 관심있는 사람들이 한곳에 모여 다양한 이야기도 듣고 활동을 하다 보니 참 다재다능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이번 10만원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힘과 좋은 기운들을 얻고 가서 내 인생에서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다.




실험계획서 + 리뷰



결과 영상  
바로 보기

# [ 텔레토비 ]

김태경  
안연우  
이예진  
이지현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하며  
버스킹을 준비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만의 버스킹 무대를 준비한다.

WHY (1)	노래 실력 향상, 도움 없이 우리끼리 도전해보기 어려운 일 도전해 보기				
WHY (2)	다양한 장소의 버스킹을 관람해보고 직접 버스킹을 해보는 시간을 갖고 싶다.				
WH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버스킹을 관람함으로써 버스킹의 의미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만의 버스킹 공연을 해보고 싶다.</li> <li>• 기회가 된다면 녹음을 해보고 우리 노래를 더 자세히 직접 들어보는 기회도 있으면 좋을 것 같다.</li> <li>• 코로나로 인해 버스킹을 하기 힘든 상황이 될 수 있기에 장비 등을 빌릴 수 있다면 곡을 녹음하여 유튜브나 sns 등에 올리는 것을 대체방안으로 생각하고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li> <li>• 버스킹을 할 수 있게 되더라도 이를 연습 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실행하면 좋을 것 같다.</li> </ul>				
WH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평가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녹음을 도와주시고 녹음실을 빌려주실 수 있는 분</li> <li>• 노래를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li> <li>• 버스킹을 하고 계신 분을 만나 버스킹을 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대한 자세한 부분까지 직접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li> <li>• 10만 원 프로젝트를 하는 팀들 중 노래 관련 실험을 하는 팀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li> </ul>				
WHEN	11월 11일 전까지 끝내고 싶다.				
WHE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로, 홍대 등 버스킹을 많이 하는 장소</li> <li>• 연습을 하기 위해 필요한 연습실, 녹음실 등</li> </ul>				
HOW	<table border="1"> <thead> <tr> <th>기간</th><th>내용과 방법</th></tr> </thead> <tbody> <tr> <td>8월</td><td>버스킹 하는 장소에 가서 버스킹을 관람하고 우리의 버스킹은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곡을 정하고 전체적 구성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td></tr> </tbody> </table>	기간	내용과 방법	8월	버스킹 하는 장소에 가서 버스킹을 관람하고 우리의 버스킹은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곡을 정하고 전체적 구성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기간	내용과 방법				
8월	버스킹 하는 장소에 가서 버스킹을 관람하고 우리의 버스킹은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곡을 정하고 전체적 구성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HOW	기간	내용과 방법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악 관련 실험을 하는 다른 팀들을 만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다. 틈틈이 노래 연습을 하고 팀원들과 맞춰보고, 노래를 가르쳐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도움받아 연습하고 싶다.</li> <li>• 악기 연주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만나서 함께 연습하고 무대도 같이 서면 좋을 것 같다.</li> </ul>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버스킹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 조언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li> <li>• 녹음실을 쓸 수 있다면 녹음을 하고 팀원끼리 피드백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다. 의상을 결정한다.</li> <li>• 장비를 빌릴 수 있다면 노래를 녹음하여 sns 등에 올리는 활동도 해보고 싶다.</li> </ul>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일 전까지는 버스킹을 하는 것을 목표로 계속 연습한다.</li> <li>• 최종 무대 구성을 생각한다.</li> </ul>
프로젝트 기록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ns 계정을 만들어 연습한 노래를 녹음하거나 영상으로 촬영하여 올리는 것으로 연습 과정을 기록한다.</li> <li>• 매 연습마다 한 줄씩이라도 그날 느낀 점이나 생각한 것 등을 자유롭게 적어보는 시간을 갖는다.</li> </ul>	
고민되는 지점과 도움받고 싶은 것	<p>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 노래 연습실을 빌려서 연습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악기를 배워 한 곡이라도 우리가 직접 연주하고 싶었으나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 고민이다. 우리가 악기 연주를 하지 못하게 된다 해도 한두 곡이라도 악기를 사용한 무대를 꾸미고 싶어 이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좋을 것 같다. 실제로 버스킹을 하고 계신 분들을 만나 조언을 듣고 싶으나 아는 분들이 없어 소개를 받고 싶다. 노래 부르는 것을 녹음하고 그 영상을 찍어 sns나 유튜브 등에 올리는 것을 해보고 싶으나 장비나 녹음 공간 등을 마련할 수 있을지 몰라 고민이 된다.</p>	

지원금 사용 계획을 세워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버스킹 보러 갈 때 식사 비용 4만원</li> <li>• 장비 6만원</li> </ul>
기대되는 나(우리팀)의 변화와 성장	<p>많은 연습과 무대 경험으로 노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 같고, 우리와 같은 관심사를 가진 다양한 사람을 만나며 생각을 공유해봄으로 정보를 얻기도 하고 스스로 음악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경험하기 어려운 일들을 경험해봄으로써 노래를 부르기만 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 같다. 또한 팀원들 사이의 친밀도도 높아질 것이라 기대한다.</p>



텔레토비

|

김태경

처음 연우에게 프로젝트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신기하고 노래라는 분야를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다고 해서 바로 하고 싶다고 하였다. 그래서 학교 동아리에서 같이 하고 싶은 애들끼리 구성하여 팀을 짜고 그렇게 처음 배움터를 갔다.

나에게는 먼 거리였다 성신여대에서부터 북한산보국문까지 오려면 40-50분 정도 소요가 되어서 처음 갈 때 내가 이 곳을 계속 부지런히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하였다 처음 들어갔을 때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처음보는 환경, 익숙하지 않은 공간이다 보니까 많이 굳어 있었고 낯설었다 그걸 알고 선생님들이 더 친절하게 설명해주셨다 처음에 십만원프로젝트가 무엇인지,우리가 프로젝트를 할 때 어떤 것을 하고싶은지 등등 얘기를 하였는데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갔었다.

그리고 그 때 심현이 아이스티를 타준 것이 기억에 남는다 맛있었는데 지금은 귀찮다고 안 타줄 것 같다. 아 그리고 처음에 무결이를 봤을 때 귀엽기 보다 너무 크고 흔히 볼 수 없는 종의 개다 보니까 무서웠다 하지만 순한 무결이를 보고 반해서 다음에

올 때 마다 항상 무결이 먼저 반겼다.이렇게 처음 왔을 때는 이러한 생각을 하였고, 오면 올수록 내집 같은 편안한 분위기였다.

우리가 하는 분야가 노래이기 때문에 버스킹을 할 생각이었는데 불행하게도 코로나 때문에 버스킹을 할 수 있을지 짝궁 쌤과 정말 많은 얘기를 하였다. 솔직히 연습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드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은 고민이 생겼다. 결론적으로 버스킹을 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동아리에서 하는 축제는 연령도 다 비슷하고 내부에서하여서 버스킹의 다른 매력을 느껴보고 싶었는데 정말 코로나 망할 자식!!그래도 배움터안에서 축제를 다 같이 해서 다행이지 그마저도 못했으면 너무 서운할 뻔 했다

축제 영상 찍을 때 비하인드를 잠깐 말하면 일단 연습을 솔직히 별로 못하였다 서로 바쁜것도 있었고 코로나 때문에 동아리실을 못쓰게 되는 바람에 공간도 마땅치 않았다.그리고 옷도 10만원 안에서 해결하는 것도 힘들었고 시간이 얼마남지 않는 시간에서 시켜서 조마조마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조건이 좋지 않았는데도 영상이 잘 나와서 행복하다.영상을 찍는 건 다들 처음이어서 긴장을 많이 했었다 그래서 찍을 때 가사도 내가 제일 많이 틀린 거 같은데 틀릴 때 마다 친구들에게 너무 미안했다,

그래도 마지막에 딱 완벽하게 돼서 진짜 다행이었다. 정말 1시간30 정도 한 거같은데 체감상 3.4시간은 촬영한 거 같았다 하고 나서 가수들이 정말 대단하구나 생각이 들었다.촬영을 하고 허기가져서 배움터에서 주신 김밥을 맛있게 먹고 집으로 간 기억이 난다 정말 배움터는 잊지못할 추억이다. 그당시에는 힘들었지만 생각해보면 이런 경험을 다시는 하지 못할 것 같다 버스킹을 하지 못하게 너무 한이 되어 고3때도 하고 싶지만 대학입시 때문에 시간이 될지 모르겠다,그냥 생각나는대로 써서 말의 흐름이 정말 안 맞지만 제가 느낀 그대로이다 이 외에도 추억이 정말 많다.코로나 때문에 심심한 2020에 빛을 밝혀준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든다.





## 텔레토비

|

## 안연우

### 십만원 프로젝트를 하게 된 이유 : 겁쟁이에서 벗어나 보자

나는 새로운 일, 처음 해보는 일에 용기를 잘 내지 못한다. 걱정이 앞서,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 적이 많았지만 '그러지 말아야지' 생각만 하곤 계속 제자리였다. 나는 한 번이라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용기를 내봐야겠다고 생각했고, 운 좋게도 그때 나는 십만원 프로젝트를 만나게 되었다. 혼자 힘으로는 모든 과정을 준비하고 실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미뤄왔던 일, 생각만 해왔던 일을 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여 십만원 프로젝트를 신청하게 되었다.

### 어떤 활동을 할까?: 음악이 좋은 이유

음악이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게 해주는 것을 좋아하는 나는, 나의 노래가 훗날 사람들에게 '그 노래를 들으면 떠오르는 작은 추억' 정도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했었다. 때문에 십만원 프로젝트에서 노래 부르는 일을 하고 싶었고, 길에서 노

래를 들으며 추억을 떠올리고 또 그 시간을 새로운 기억으로 만들 수 있는 버스킹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한 버스킹은 내가 하고 싶던 일들 중 혼자 모든 것을 준비하기에 가장 막막하여 포기해야 했던 일이기도 했기에 이번 기회에 도전해보고 싶었고, 이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해 줄 거라 믿었던 동아리 친구들과 신청하게 되었다.

### 실행 과정 :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우리는 우리가 음악을 정말 좋아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무대를 만들고 싶었고, 열심히 해보려 했지만 코로나로 인한 상황 때문에 처음 계획한 것을 대부분 실현하지 못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사전답사가 취소되고 준비 기간을 계속 미루다 결국 버스킹은 하지 못할 것 같다는 판단을 내렸고 선생님과 상의를 통해 무대 영상을 촬영하는 것으로 대체하였다. 십만원 프로젝트 축제에 우리 무대 영상이 보여질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비대면 축제의 아쉬움과 연말을 제대로 즐기 못하는 속상함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연말 축제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는 곡으로 무대를 하기로 하였다. 의상도 무대와 어울리게 차려입고, 악기를 연주해 주시는 분들의 도움도 받아 더 즐겁고 풍성한 무대를 만들 수 있었다.

### 축제 : 피 땀 눈물

축제를 통해 다른 십만원 프로젝트 참가자들의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집으로 배송 온 물건들로 함께 축제를 즐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너무 좋았다. 십만원 프로젝트를 하는 모든 팀들이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후드티부터, 한사람 한 사람의 십만원 프로젝트를 칭찬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듯한 상장, 온라인 축제 중에도 리액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보드마크와 보드판, 축제 분위기를 한껏 올려준 머리띠, 건강한 빵과자를 만드는 은세님의 정성이 가득 담긴 쿠키, 세프학교 분들의 식당에 초대받을 수 있는 vip 티켓, 온라인 축제를 더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줄 설명서와 중간중간 허기를 채워 줄 간식들까

지. 온라인 축제이지만 지루할 틈 없도록, 하나같이 정성을 가득 담아 보내주신 물건들에 한 번 더 감동했던 것 같다.

### 나에게 십만원 프로젝트란 : 너의 의미

비록 처음 생각했던 계획을 모두 실현하지는 못했지만 또 다른 즐거움과 추억을 얻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또한 원하지 않아도 해야 하는 일이 늘어나고, 하고 싶은 일도 경쟁을 통해 쟁취해야만 할 수 있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로 평가받아야만 하는 요즘,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온전히 보여주고 서로 응원하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십만원 프로젝트와 축제는 너무나 값진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나에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말을 건네준 십만원 프로젝트는 2020년 나의 가장 큰 행복과 위로가 되어 주었다.



텔레토비

|

이예진

십만원 프로젝트 과정을 준비하면서 시험기간이랑 많이 겹쳐서 팀원들과 함께 연습시간을 잡는 것이 힘들었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못했고 다른 팀 분들과 얼굴보며 만나보지 못해 아쉬웠지만 실시간 줌으로 축제도 하고 몇몇 팀과 만나보고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재미있었습니다.

또 마을 배움터에서 연습도 하고 맛있는 떡볶이도 시켜 먹고해서 팀원들과 친한 학교 동아리 선후배 관계에서 조금 더 발전한 친한 언니 동생 사이?ㅎ 가 된 것 같고 몇몇 분들의 프로젝트 진행 과정을 들으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동기부여를 받아 유익한 활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텔레토비

|

이지현

### 값진 경험

약 4년 전쯤 중학교 입학할 때 학교 밴드부에 들어가 멋있게 노래하는 모습을 꿈꿔 온 적이 있었다. 하지만 오디션을 보고 합격하여 밴드부에 들어갈 자신이 없어서 도전해보지도 않고 포기했다. 학교 축제에 나가서 노래를 부르고 싶었지만, 그럴만한 능력도, 혼자 축제에 나갈 용기도 없었다. 중학교 1학년 때는 자유학기제로 선택프로그램을 할 수 있었는데 보컬부에 들어간 나에게는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기뻐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무대에서 나는 그 누구보다 즐겁게 노래를 불렀다. 무대가 끝난 이후, 밴드부에 도전해보지 않았던 내자신에 대해 조금은 후회와 실망이 있었지만 이를 계기로 삼아 다음번에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한번은 붙잡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생이 된 나는 학교 보컬부 오디션에 도전했고, 붙고 나서는 왠지 모를 자신감과 희망이 생긴 것 같았다. 보컬부에 들어오고나서 좋은 선배들과 친구들을 만나고, 그렇게 하고 싶어했던 노래로 무대도 오를 수 있게 되었다. 그

안에서 또 친해진 사람들과 팀을 꾸려 함께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일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실제 밴드가운다와 함께 우리 팀이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지금껏 해본 적 없고, 앞으로도 쉽게 오지는 않을 기회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이번 십만원 프로젝트가 나에게 매우 가치있었다고 생각한다.

옛날의 의기소침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용기를 내서 보컬부에 도전한 이후 나에게 일어난 것이었다. '숨'의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서 하고 싶은 일에 대해 공유해본다는 것, 나의 일뿐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일에 대해 시간을 들여 들어본다는 것, 그 안에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을 수도 있으니 이 자체만으로도 값진 경험이고 충분히 가치가 있었다. 두번 다시 오지 않을 십만원 프로젝트의 사람들 모두와 함께했다는 것은 시간을 헛되이 보낸 것이 아닌, 결코 되값을 수 없을 정도로 귀한 추억을 선물받은 것이다.

발행일 | 2020년 12월

펴낸곳 | 서울특별시 / 서울시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숨'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 173길 31-6 / [www.baeum.org](http://www.baeum.org))

디자인 | 강명숙

인쇄 | 한울타리

<청소년 마을배움 Storytelling Book - 십만원 프로젝트 이야기편 2>의

내용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